

# 횡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

김 동 정





황성에서는 1919년 3월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3월27일 첫만세 운동이 있은 후 4월 1일과 2일 3차에 걸쳐 황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 중 가장 치열했던 만세운동은 4월 1일로서 장터에서 시작되어 저녁 무렵에는 군청 뒤편 일본 헌병 본거지 가까이 까지 가서 많은 군중(당시 일본 보고자료 1300명)이 태극기 물결 속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무자비한 발포와 탄압으로 순국자,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어떤 분은 해외로 망명하여 광복이 될 때 까지 독립운동에 몸 바친 분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온갖 핍박속에 고난의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지만 황성의 애국지사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황성은 이 책에 소개한 인물처럼 애국지사들이 많아 애국의 고장이라 일컫고 있으며 3·1공원, 만세공원, 3·1광장, 3·1로 등 선열들이 활동했던 곳에 관련 지명이 붙어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목숨 바쳐 싸웠던 이 숭고한 3·1정신을 이어받고자 동아일보에서는 창간 60주년(1972년)을 맞아 3·1공원에 3·1운동기념비를 세웠다. 황성군에서도 1984년 11월 22일 그 옆에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를 세워 후세들에게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들의 항일 행적은 1세기가 흐르는 동안 문혀 지고 잊혀져가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 그 증거들이 없어지기 전에 황성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행적과 생애를 조명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본인도 80년대 당시 황성지역에 생존한 애국지사, 목격자 유가족을 찾아 자료를 수집, 자료화하여 향토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김동정님께서 열정으로 발로뛰며 더욱 심화시켜 집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이 책이 고장과 나라사랑의 귀중한 향토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 서문

“그는 시장에 가서 만세운동에 합류하였는데 주위에서 만류하자 ‘죽음이 겁나 만세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 이날 밤 일본헌병들의 발포로 순국하였다.”



위의 글은 본문의 강성순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횡성군민들과 우리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리라.

횡성의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있는 운동이었다. 동아일보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3·1운동비」를 세워 후손들에게 ‘3·1운동 정신’을 물려주려고 전국 대표적인 만세운동지를 선정하였는데, 횡성이 선정된 것이다. 그것도 전국에서 이리와 영동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지게 되었다. 1972년 8월에 「횡성3·1운동비」 제막식에서 동아일보 김상만 사장의 제의에 「3·1공원」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횡성’하면 대한제국기(1897~1910) ‘의병’,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한제국이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의병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강원도와 강원출신의 의병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그중에서도 모든 의병장들이 이곳 횡성에서 의병들을 훈련시키며 일본군 및 경찰과 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의병들은 이곳 횡성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홍천, 춘천, 양구 등지로, 동으로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으로, 남쪽으로는 원주와 제천, 단양,

안동 등 충청 및 경상도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양평 등의 경기지역을 오가며 일본군들과 격전을 치렀다.

3·1만세운동 때인 3월 27일에는 300여 명 참여, 4월 1일에는 강원도장관이 1,300명의 만세 군중이 참여하였다고 보고했다. 3월 27일 당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윤태환의 딸 윤신자는 “아버지가 시위대에 나누어 주려고 장작을 췌고 만세운동을 할 때는 학도가를 부르며 큰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어요. 아버지는 맨발인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는 용수가 씌워진 채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라고 하며 어릴 때의 쓰라린 기억을 상기한 적이 있다. 5살 정도의 어린 딸이 본 아빠의 모습! 한평생 그 모습을 새기며 살았으니 얼마나 아픈 삶이었을까!

4월 1일에는 아마도 수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를 떠나서 참여하였다. 그중에서도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하던 김순이 여사는 이날 시위에 참여하여 혹 두려워하는 참여자들을 독려하며 목청 높여 만세를 불렀다. 평소에는 독립운동가 최양옥을 비롯하여 여러 독립운동가를 도왔는데,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황성장날 4월 1일은 강원도에서 가장 대규모로 열기가 뜨거웠으며, 희생 또한 컸다.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이 날 현장에서 하영현 · 강달희 · 전한국 · 강성순 의사(김치정도 당시 사망)가 숨졌고 강만형 의사는 옥중에서 순국하였으며, 이때 최양옥도 참여하였다가 간신히 처가로 피신, 그곳에서 체포되었다가 탈출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고문과 형을 받았다. 만세를 불렀다는 죄 아닌 죄로 본인 뿐 아니라 가정도 고난에 처해졌

## 서문

다. 그 중에 강성순(일명 사운) 애국지사를 중심으로 자신과 가정의 희생, 자손에게로 까지 부과되었던 고통스러운 대물림과 가정의 수난사는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강성순이 27살에 노부모, 처, 일곱 살 아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가벼웠을 때 처는 재가하였다. 어린 아들은 성장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게 되었으나 부인과 어린 2남 2녀를 남겨둔 채 서른두 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어려운 살림에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부인은 막내아들만 데리고 재가하게 되었고 고아로 남은 자식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아들은 머슴살이로, 딸들은 서울 남의 집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굳세게 성장한 아들은 스무 살에 결혼하여 6남 1녀를 키워냈다.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자신의 어릴 적 부모 없이 불행했던 삶을 돌아보며 자기와는 달리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잘 키우려 노력하였다. 그는 이제 암흑기 같던 어려운 시절을 흘려보내고 자수성가하여 옛이야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강성순 지사의 손자며느리가 남아서 이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듯 당시 황성지역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군민들이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몸부림이 서려있다. 이에 황성출신이나 황성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사실(史實)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여 후대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황성 3·1운동개관으로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과 4월 1일 만세운동을 간략히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과 4월 1일 만세운동 그리고 황성출신의 다양한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기술하였다. 가나다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강달희, 강만형, 강성순, 김명기, 김성서, 김순서, 김순이, 김옥봉, 김연의, 김윤배, 김윤신, 김인경, 김준경, 김진대/최동수, 김치정, 남상정, 박민희, 박봉수, 백홍기, 성태현, 송병기, 신재근, 안승훈(경춘), 원후정, 유정근, 윤동선, 윤석환, 윤태환, 위창래, 이기순, 이동구, 이두연, 이유태, 이정현, 이종우, 이채일, 장도훈, 전성수, 전한국, 정두철, 정해경, 조상열, 조홍렬, 천신재, 최양옥, 최종하, 추병륜, 탁영의, 탁영재, 하영현 등 52명이다.

아울러 제3장에서는 부록으로 독립운동관련 자료를 실었다. 황성3·1운동참여자 판결문, 애국지사 강성순 재조명, 황성「3·1운동기념비」기사, 4·1만세 운동 주도 ... 험난한 구국의 삶, 그리고 2017 향토자료발굴 답사 내용을 실었다.

이 기록들은 지금의 박순업 황성문화원장이 1980년대 초부터 황성지역의 근대교육 연구와 의병 및 3·1만세운동 관계자 및 후손들을 만나 연구해 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원장께 특히 감사를 표하며, 기쁜 마음으로 잘 도와준 문화원 관계자들 그리고 유족(증언자) 및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강원도민일보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애막골에서 감천(甘泉) 김 동 정









- ① 횡성3·1절기념비 제막식 전경(1972)
- ② 횡성3·1절기념비 제막식에서 최종완 강원도지사가 독립운동 유공자 윤동선 응에게 기념패 전달모습
- ③ 횡성3·1운동기념비
- ④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 ⑤ 최양옥이 4·1만세운동 때 쓰러져 있었던 곳, 이후 자주 찾던 느티나무
- ⑥ 횡성3·1운동기념비와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모습









①

③

②

④

- ① 강달회 묘소
- ② 강달회 묘소(원경)
- ③ 강성순 묘역
- ④ 강성순 가문이 대를 살아온 집터







|   |     |    |                     |      |            |
|---|-----|----|---------------------|------|------------|
| 氏名  | 張道勳 | 年齢 | 480年4月30日,明治4年4月30日 | 指紋番號 | 4575676789 |
|   |     | 身長 | 5尺5寸3分              |      |            |
|   |     | 特徴 | 前膊部二文身6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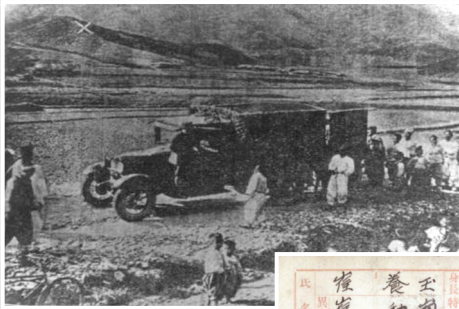
|            |                    |              |      |
|------------|--------------------|--------------|------|
| 本籍         | 江原道 橫城郡 井谷 上安興 240 |              |      |
| 出生地        | 平安南道 成川郡 三德 雲峯     |              |      |
| 住所         | 江原道 橫城郡 井谷 上安興 240 |              |      |
| 身分         | 兩班                 | 職業           | 巡迴教師 |
| 受刑事項       | 罪名                 | 保安法違反        |      |
|            | 刑名刑期               | 懲役2年         |      |
|            | 言渡年月日              | 大正8年6月6日     |      |
|            | 刑ノ始期               | 大正8年7月17日    |      |
|            | 言渡裁判所              | 京城覆審法院       |      |
|            | 執行監獄               | 西大門監獄        |      |
|            | 出獄年月日及其事由          | 大正9年7月16日 滿期 |      |
|            |                    | 備考           | 前科   |
| 歸住地本籍地長男基乙 |                    |              | 初犯   |

|   |
|---|
| ① |
|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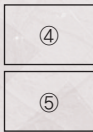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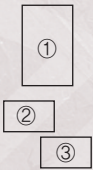
|   |
|---|
| ③ |
| ④ |

- ① 김순이 여사 묘역
- ② 김순이 여사가 주막을 경영하던 한치고개
- ③ 장도훈의 모습
- ④ 장도훈의 수형사황









- ① 최양옥(전신)
- ② 최양옥이 탈취한 우편수송차(동아일보 1929.4.20)
- ③ 경기도경찰부에서 찍은 최양옥 모습(1929.5.2)
- ④ 현재의 봉복사 모습
- ⑤ 현재의 봉복사(뒷산에서 본 모습)









## 차 례

# 횡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

### 제1장 횡성 3·1운동 개관 / 23

1. 횡성의 3월 27일 만세운동 / 25
2. 횡성의 4월 1일 만세운동 / 26

### 제2장 횡성지역 독립운동 주도 인물 / 29

- |              |                  |
|--------------|------------------|
| 1. 강달회 / 31  | 14. 김진대/최동수 / 47 |
| 2. 강만형 / 33  | 15. 김치정 / 47     |
| 3. 강성순 / 33  | 16. 남상정 / 49     |
| 4. 김명기 / 36  | 17. 박민희 / 49     |
| 5. 김성서 / 37  | 18. 박봉수 / 55     |
| 6. 김순서 / 37  | 19. 백흥기 / 56     |
| 7. 김순이 / 37  | 20. 성태현 / 62     |
| 8. 김옥봉 / 41  | 21. 송병기 / 63     |
| 9. 김연의 / 41  | 22. 신재근 / 69     |
| 10. 김윤배 / 41 | 23. 안승훈 / 73     |
| 11. 김윤신 / 42 | 24. 원후정 / 74     |
| 12. 김인경 / 42 | 25. 유정근 / 75     |
| 13. 김준경 / 46 | 26. 운동선 / 75     |



- 27. 윤석환 / 76
- 28. 윤태환 / 76
- 29. 위창래 / 77
- 30. 이기순 / 77
- 31. 이동구 / 78
- 32. 이두연 / 78
- 33. 이유태 / 79
- 34. 이정현 / 79
- 35. 이종우 / 79
- 36. 이채일/이동구 / 80
- 37. 장도훈 / 80
- 38. 전성수 / 81
- 39. 전한국 / 82
- 40. 정두철 / 82
- 41. 정해경 / 82
- 42. 조상렬 / 88
- 43. 조흥열 / 88
- 44. 천선재 / 88

45. 최양옥 / 92

- 1) 출생과 민족적 각성 / 92
- 2) 대동단(大同團) 조선지부원(朝鮮支部員)으로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 / 93
- 3)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 조직과 송금차량 탈취 의거 / 96

- 46. 최종하 / 108
- 47. 추병륜 / 112
- 48. 탁영의 / 113
- 49. 탁영재 / 113
- 50. 하영현 / 115

## 차 례

### 제3장 독립운동 관련 자료 / 117

#### 부록1 3·1운동참여자 판결문 / 119

1. 김인경의 판결문(징역 8월형) / 119
2. 김인경의 판결문(공소기각) / 120
3. 김인경의 판결문(상고기각) / 123
4. 박순길 판결문(유형 10년) / 124
5. 백홍기 외 다수 판결문(집행유예~징역2년) / 125
6. 성태현 판결문(상고기각) / 136
7. 송병기, 성태현, 박민희, 유정근, 이정현, 이두연, 이종우, 김옥봉 판결문 / 138
8. 송병기, 성태현, 이정현, 판결문(공소기각) / 143
9. 신재근, 정도훈, 안경춘, 강만형, 윤택환 판결문(징역2년~6개월) / 146
10. 신재근, 장도훈, 안경훈, 강만형, 윤택환 판결문(공소기각) / 150
11. 신재근, 장도훈, 안경태, 강만형 판결문(상고기각) / 155
12. 정해경, 조상렬, 이성서, 김윤배, 김순서 판결문  
(징역 1년 6개월~징역8월) / 157
13. 정해경, 조상렬, 김성서 판결문(공소기각) / 159
14. 정해경, 조상렬, 김성서, 김윤배 판결문(상고기각) / 163
15. 천선재 판결문(징역 1년) / 166
16. 천선재 판결문(상고기각) / 168
17. 최종하 판결문(공소기각) / 170
18. 최종하 판결문(징역 6월) / 172
19. 최종하 판결문(상고기각) / 176



부록2 애국지사 강성순 재조명 / 178

- 1) 시작하며 / 178
- 2) 애국지사 강성순 / 179
- 3) 강성순 애국지사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들(예) / 184
- 4)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의의 / 186
- 5) 맺으며 / 187

부록3 황성 3·1 운동기념비 기사 / 189

- 1) 황성「3·1 운동기념비」제막 - 김사장 시위참가 윤웅 등에게 기념패 / 189
- 2) 본사 유적 보존 사업 세 번째 결실 - 항일(抗日)의 열기린 3·1운동비(運動碑) / 190

부록4 강원인물 황성 독립운동가 최양옥 / 195

부록5 2017 황성관내 향토사 발굴 자료조사 / 200

부록6 신문기사로 본 황성의병과 독립운동가 / 223

부록7 황성항일민족운동 연표 / 253

부록8 춘천 중학생의 독서운동 / 267

참고문헌 / 269



# 제 1 장

## 횡성

### 3·1운동 개관

1. 횡성의 3월 27일 만세운동
2. 횡성의 4월 1일 만세운동







## 제1장 횡성3·1운동 개관

### 1. 횡성의 3월 27일 만세운동

횡성군의 3·1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인이 주도했다. 횡성면 영영포리에 본부를 둔 횡성천도교의 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와 도훈(道訓) 이채일(李采一)·의사원(議事員) 이동구(李東求), 그리고 봉훈(奉訓) 신재근(申在根)·강만형(姜萬馨)이 대표적 주도자들이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3일 이들은 정곡면(지금의 안흥면) 상안흥리 교인 장도훈(張道勳)을 서울 이동구에게 보내서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구입하여 영영포리에서 우천·공근면 그리고 횡성면에 배포하고, 원주 소초면은 강만형이 담당하여 안경춘(安敬春)·김인경(金麟卿)을 통해 정곡과 갑천·둔내면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3월 27일은 횡성 장날이었다. 이날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먼저 모든 상점의 폐쇄부터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상점들을 닫고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조짐을 알고 원주에서 기마병 7명이 출동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장터에 모인 사람은 300명가량이었는데, 독립만세를 몇 번 부르

지 못하여 일제 헌병대의 기습적 제압으로 주도자 12명이 구금되자 시위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 병력은 3월 16일 춘천 일본군 79연대에서 파견된 병력이었다.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 학생들이 고종 황제에 대한 조의(弔意)의 표시로서 삼베 천을 달고 등교하고, 횡성에서는 게시된 3·1운동에 대한 총독 이른바 유시문을 찢어버린 것 때문에 원주로 이동하여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7일의 횡성 장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에 붙잡힌 인사들은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았다. 신재근·장도훈 각 2년, 안경춘 10개월, 강만형 8개월, 윤태환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청에서 예심을 거쳐 그 해 5월 1일에 경성지방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 심사로서 기각되었다.

## 2. 횡성의 4월 1일 만세운동

4월 1일은 그 다음 장날이었다. 천도교에서는 지난 장날 거사실패를 거울삼아 청년층과 감리교측과도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횡성읍으로 출입하는 도로에 교인을 배치하고 마을에서는 교인이 장꾼을 인솔하였다. 이렇게 시중의 공기가 심상치 않자 일본 관헌도 비상태세에 돌입하여 군청·면사무소 등의 중요 서류를 감추고 군수 심상준(沈相俊)과 면장 김석환(金錫煥)은 관리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오후 3시경 군중은 1,300여 명에 달했고 마침내 만세소리가 폭발하였다. 온 장터가 만세 소리로 뒤덮였고 상점들을 철시했으며, 장꾼들이 가담했다. 천도교 교구실에는 태극기가 높이 솟았고, 군중은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관공서 앞의 게시판, 군청 건물일부, 문을 닫지 않은 상점들을 파괴하였다. 오전부터



주요 문서들을 숨긴 일제 관헌들은 오후에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장터의 여러 술집에서는 서로 술을 권하며 만세시위 참여를 권했다. 당시 수로공부(修路工夫)로 있던 전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받아주었다. 횡성면 옥동리 한치 고개에서 술을 팔던 황소아줌마(김순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하였다. 송강루 옆에 있던 황용구의 술집에서도 만세운동을 역설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때 횡성 헌병분견소의 헌병 고지마[小島]는 말을 타고 거리로 나타났다. 군중들은 “저놈 죽여라!”고 소리쳤고, 군중 속에서 최동수(崔東壽)는 말 위에 뛰어 올라 헌병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밟고 때렸다. 이때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총소리에 시위대의 행동이 일단 멈추었으나, 군중을 해산하지 않고 날이 저문 후 다시 만세시위가 계속되어 밤중까지 이어졌다.

시위대는 헌병분견소로 향했다. 다시 수비대 총구에서 불을 뿜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총성이 계속되었다. 야간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일제 관헌이 시체를 면사무소에 가져다 놓자 둔둔리 사람들은 면사무소로 몰려가 하영현과 강달희의 시체를 찾아 걸머메고 동리로 돌아갔다. 둔둔리 주민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4월 5일 원주군(지금의 원주시) 소초면 사무소가 있는 평장리로 몰려가 다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붙잡힌 사람은 물론, 4월 2일부터 대대적인 사찰로 일제 관헌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혹한 태형을 당하였다. 헌병대에서 태형으로 90대의 매를 맞아서 살이 일그러져 1년 동안 병 치료로 아무 일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일제 관헌에 피체된 정해경·김성서는 1년 6월, 천선재는 징역 1년, 김인경·조상렬·김윤신·전성수·김윤배·김연의(김순서) 등은 각각 8월, 추병륵은 각각 6월의 징역을 살아야했다. 탁영재·최동수·김명기(김사극)·추병학은 만세운동 후에 숨어 버렸다.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다. 주도자 강만행이 이날 붙잡혀 모

진 고문으로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했다.

4월 2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황성읍의 사람 200명이 헌병분견소에 모여 독립운동을 허가할 것과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전날 참여하였다가 해산했던 사람들도 다시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4월 6일까지 황성읍내의 상점들은 문을 닫아걸고 항쟁을 계속했다. 7일에 서야 상점들은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날 읍내 길가에는 태극기를 세워 놓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이 나붙었다.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에서 송병기(宋秉箕)·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正憲)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밤 9시경 70여 명이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을에서 이민들이 합세하여 그 수가 더하여졌다. 일동은 마을을 내려와 동리를 돌며 행진했다. 시위대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만세를 불렀다. 참가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위협도 가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밤늦도록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새벽 1시에야 끝났다.

황성 천도교회가 만세운동을 추진할 때 각 지방에서 참가한 사람은 천도교인, 감리교인, 유학자, 그리고 청년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주도층을 보면, 세 갈래의 계통이었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으로, 황성천도교구장 최종하, 읍상리 전성수, 영영포리 신재근, 법주리 강성순, 갑천면 매일리 김윤배, 안흥면 안흥리 천선재(78세), 상안흥리 장도훈·김인경·안경춘, 가좌곡리 김연의(21세), 하산전리 조상렬,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강달희·강만형·하영현, 교항리 추병학·추병륜 등이었다. 유학자인 우천면 두곡리 김명기·김진대 등이 주동자로 참여하였다. 또 하나는 내지리 정해경·탁영재 등의 감리교 계통이었다. 다른 또 하나는 윤태환·최동수 등 청년회의 계통이었다.

## 제 2 장

# 횡성지역 독립운동 주도 인물

- |             |         |             |
|-------------|---------|-------------|
| 1. 강달회      | 18. 박봉수 | 35. 이종우     |
| 2. 강만형      | 19. 백흥기 | 36. 이채일/이동구 |
| 3. 강성순      | 20. 성태현 | 37. 장도훈     |
| 4. 김명기      | 21. 송병기 | 38. 전성수     |
| 5. 김성서      | 22. 신재근 | 39. 전한국     |
| 6. 김순서      | 23. 안승훈 | 40. 정두철     |
| 7. 김순이      | 24. 원후정 | 41. 정해경     |
| 8. 김옥봉      | 25. 유정근 | 42. 조상렬     |
| 9. 김연의      | 26. 윤동선 | 43. 조흥열     |
| 10. 김윤배     | 27. 윤석환 | 44. 천선재     |
| 11. 김윤신     | 28. 윤태환 | 45. 최양옥     |
| 12. 김인경     | 29. 위창래 | 46. 최종하     |
| 13. 김준경     | 30. 이기순 | 47. 추병륜     |
| 14. 김진대/최동수 | 31. 이동구 | 48. 탁영의     |
| 15. 김치정     | 32. 이두연 | 49. 탁영재     |
| 16. 남상정     | 33. 이유태 | 50. 하영현     |
| 17. 박민희     | 34. 이정헌 |             |





## 제2장 횡성지역 독립운동 주도 인물

### 1. 강달회

강달회(姜達會)는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일명 사문(士文)이라고도 한다. 횡성 천도교회를 다녔으며, 당시 51세의 나이로 횡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에 피살되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심의성(沈宜聖, 원주 소초면 장양리 거주)의 회고담(초본)에 따르면 3월 20일경 의병 강도영의 아들인 천도교인 강만형이 이웃에 사는 강달회(일명 사문, 강도영의 막내 삼촌), 하영현(일명 하돌림)과 횡성 천도대교구장 최종하와 상의하여 천교도 이동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횡성읍에서 시위하고 원주 소초면에서 그 다음날 만세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강달회 묘소

당시 소초면에는 손병희·이화경의 전도에 의해 천도교 신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둔둔리에는 의암 류인석의 문인이자 한말 의병운동에 참여한 박영하(朴英夏)가 서당 훈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본래는 흥천사이지만 강도영 등 의병출신이 많은 둔둔리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강도영의 사위인 교항리의 추병학과 그의 동생 병륜 역시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소초면은 마을 전체가 유독 강한 항일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의 묘소는 원주시 소초면 둔둔2리에 있으며, 묘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강씨 통정공과 후손인 강달회(사문)지사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한일 병합한데 대하여 통문을 금지 못하시던 중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에서 분연이 꺾기하여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에 참가하시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주독립의지를 당당히 주장하시다가 현장에서 왜군의 총에 맞아 장렬히 순국하시었다. 지사께서는 광복된 조국을 보지도 못하고 한스러운 삶을 마치셨기에 이러한 독립항쟁정신은 우리 고을의 명예이므로 그 뜻을 기리어 묘역을 단장하고 지사의 거룩한 자주독립정신과 숭고한 얼을 후세에 전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독립지사 강달회 묘비 전후 모습

서기 1990년 10월 30일

글 박찬언(朴贊彦) 글씨 박문교(朴文教) 조각 정선교(鄭先敎)



## 2. 강만형

강만형(姜萬馨, 1887~1920)은 강원도 원주군(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전 천도교 황성교구장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이다. 강도영이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황성군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하자, 그를 계승하여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27일 횡성읍(橫城邑)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인물로, 최종하(崔宗河) 등의 동지 4명과 함께 60여 명의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시장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결국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이 해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 중,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1920년 2월 28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횡성시장 주변(1970년)

## 3. 강성순

강성순(姜聖順, 1893~1919)은 강원도 황성군 우천면 법주리 출신으로 천도교인이다. 1919년 4월 1일의 횡성장날을 기하여 천도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장에 가서 만세운동에 합류하였는데 주위에서 만류하자 “죽음이 겁나 만세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 이날 밤 일본헌병들의 발포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향리에 있는 그의 묘소가 정화되어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의 묘소는 황성군 우천면 범주리 바라골에 있으며, 묘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순국열사(殉國烈士) 진주강공성순지묘(晉州姜公聲順之墓)

공의 휘(諱)는 성순(聲順)이요 자(字)는 사윤(士允)이시니 본관은 진주요 성은 강씨이시다. 시조는 고구려 명장이신 원수공(元帥公) 휘 이식(以式)이시며 원세손(遠世孫) 박사공(博士公) 휘 계옹(啓庸)의 7세손 통정공(通政公) 휘 회백(淮伯)으로 1자가 장령공(掌令公) 휘 종덕(宗德)이라 이분의 1자이신 군수공(郡守公) 휘 자신(子愼)의 12세손 휘 유(瑜)



애국지사 강성순 묘비 전후의 모습

호(號) 상곡(商谷)은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내셨으니 공은 13세손으로 갑오년에 부친 휘 호원(浩遠)과 모친 해주오씨(海州吳氏)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 인생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殉國烈士)이다. 공의 조고(祖考) 휘는 대완(大完) 신해년 7월 13일 졸하시고 조비(祖妃) 영월신씨(寧月辛氏)는 정해 7월 2일 졸하시니 묘는 정암지통곡(正菴紙筒谷)에 계시다. 고(考) 휘는 호원(浩遠)이시니 무진생 계유 3월 10일에 졸하시고 비(妃) 해주오씨는 계미 12월 24일에 졸하셨으니 묘는 법주리 유좌(酉坐)에 안장하셨다. 배(配)는 청주한씨(靑州韓氏)로 1950년 6월 16일에 졸하셨다.

공은 시대적(時代的)으로 춥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自由)마저 빼앗긴 일제통치하(日帝統治下)의 억압된 세파(世波)속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금할 길 없는 세상을 살으셨다.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공이 살고 계신 황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차로 기미년(己未年) 2월 27일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2차로 3월 1일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이 있기까지 공은 동분서주(東奔西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 잡으며 사랑하는 조국(祖國)의 자유독립(自由獨立)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다. 더구나 황성의 3·1운동은 천도교회(天道教會)에 의해 추진(推進)되었던 바 공도 천도교인이셨던 것이다. 공은 최종하 윤태환 탁영재 전성수 최동수 등 십수명과 함께 추진 그 활약이 다대한 것으로 황성과 3·1운동이란 책에 수록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이 서거(逝去)하신 3월 1일 만세운동은 1,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의기(義氣)는 대단하였을 것이리라. 나라 잃은 백성들은 일본군의 군화발과 말굽에 밟힌 지 수십 년 동안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운동(運動)이야말로 조국 없는 백성은 없고 백성없는 나라는 없다는 말과 같이 징용에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함이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한맺힌 투쟁이

었다.

대한독립(大韓獨立)만세! 조선독립(朝鮮獨立)만세! 공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後孫)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이렇게 서광(瑞光)하지 않은가? 길이 후손에 물려줄 기상(氣像)이요 영원(永遠)한 빛이요 만만대(萬萬代)에 별이 되시리라! 고이 평안하옵소서.

공의 묘(墓)는 백자동(栢子洞)에서  
서기 1989년 11월 1일 바리골로 이장(移葬) 건좌(乾坐)

서기 1989년 11월 1일 세움[豎]

사자(嗣子) 인구(仁求)  
장손(長孫) 병철(秉哲) 병춘(秉春)  
증손(曾孫) 영묵(榮默) 도엽(到燦)  
현손(玄孫) 교식(教植)

#### 4. 김명기

김명기(金明起)는 황성군 우천면 두곡리에 살았고 일명 사극(士極)이라고도 하며 유학자이다. 김진대(金振大)의 아들로 황성의 3·1만세운동의 주동자의 한사람으로 만세운동의 추진에 크게 기여 하였고 일본헌병을 피하고 독립투쟁을 계속하고자 그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 5. 김성서

김성서(金聖西)는 영원군 양변면 주천리에 살았으며, 당시 나이 68세의 천도교인으로 장사꾼을 가장하여 횡성군내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의 주모자의 한사람으로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6. 김순서

김순서(金順瑞)는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가좌곡리(佳佐谷里) 출신이다. 1919년 4월 1일 정해경(鄭海璟)과 김성서(金聖西)가 주동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300여 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 군중은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일본관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군청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 일본헌병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었다.

## 7. 김순이

김순이(金順伊) 여사는 1878년 10월 15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1898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와 결



주막이 있었던 한치고개 모습



혼, 황성에서 살았다. 김 여사는 30대에 남편과 사별한 후 남매를 키우면서 한치고 개에서 주막을 차려 생계를 꾸려갔다. 김 여사는 6척 거구에 힘 또한 웬만한 장정보다 세 주민들 사이에 '황소 이줌마'로 불렸다.

김 여사가 3·1운동과 관련을 맺은 것은 1919년 3월 초 독립선언서를 휴대,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막을 찾아든 천도교신자 이채일씨를 만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김 여사의 편의로 주막 뒷방에서 이 지역 천도교신자와 지식인 등과 비밀리에 만나 황성 만세운동을 의논했다.

김 여사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최양옥 지사이다. 김 여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인 황성으로 내려 온 최양옥 지사가 한치고 개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주막에 들렀을 때, 애국심과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에 몸을 던지려는 지사를 적극 도우려고 결심을 하였다. 이에 김 여사가 운영하는 주막은 황성4·1만세운동의 모의 장소가 되었고 푼푼이 벌은 돈의 일부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김 여사는 1919년 4월 1일 황성장터에서 1,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고 일경 주재소 등 일본 시설을 파괴했다. 만세운동 당시 일경의 총소리에 놀라 숨는 군중을 규합하고 독려하는 등 선봉에 섰다. 이 같은 활동 때문에 일본경찰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른 이후 평범하게 살다가 1952년 12월 19일 숨을 거뒀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황성군 갑천면 구방2리 산32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김순이 여사의 공훈을 알고 있던 일부 인사의 건의로 황성군은 1990년 당시 김 여사가 주막을 운영하던 한치저수지 인근 지금의 장소로 여사의 묘를 옮겼다.

김순이 여사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조동걸 춘천교대 교수가 1972년 발간한 『황성과 3·1운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다. 만세운동을 함께 했던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김 여사의 업적이 이 책에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나마 선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막을 독립투사들의 모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4·1황성만세

운동을 이끈 ‘황소아줌마’ 김순이 여사가 2013년 4월 「강원을 빛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춘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잊혀 가는 김순이 여사의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986년 발간된 『황성군지』에는 “김씨가 당시 장터부근에서 일본경찰의 총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부근 술집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남자들을 위협, 시위현장으로 내몰았다”고 기록돼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묘역에는 상석, 장명등과 두 개의 망주석이 서 있으며, 묘비도 세워져 있다. 이 묘비를 통해 이 묘 주인공의 일대기를 알 수 있다. 묘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순이 여사의 단장된 묘소

###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비문

여사께서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에서 박영화씨와 결혼하여 황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

로 생활하시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 많은 삶을 마쳤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일명 황소갈보)께서는 뜻한 바가 있어 당시 천대받던 주막을 경영하면서 푼푼이 받은 돈으로 애국지사인 갑천면 화전리 최양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자금 모금에도 협력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3·1운동 시에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장소로 제공하여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시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황성장날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일경에 쫓겨 장터 술집에 숨어든 동지들을 규합 군중을 진두지휘하다 투옥됨으로써 황성3·1독립만세운동을 성취시킨 전설적인 여인이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챙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 없던 바,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군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안장하고 여사의 드높은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애국지사김순이여사묘비문 후면

1990년 4월 27일  
황성군민 일동

## 8. 김옥봉

김옥봉(金玉鳳, 1880~?)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지금의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출신이다. 김옥봉은 1912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에서 전개되던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자극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옥봉은 그날 밤 마을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고, 분일리 뒷산 기슭에서 송병기(宋秉箕) 등이 이끄는 시위대와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확대시켰다.

시위 후 체포된 김옥봉은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9. 김연의

김연의(金演儀)는 횡성군 안흥면 상가좌곡리(上佳佐谷里, 현 가천리) 출신으로 일명 순서(順瑞)라고도 한다. 당시 나이 21세의 천도교인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의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6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 10. 김윤배

김윤배(金允培)는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출신으로 횡성 천도교인이었다. 최종하(崔宗河), 정해경(鄭海璟), 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매일리 주민을 동원하고 술선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날 만세운동은 오후에 폭발하였는데, 1,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손에는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일본 관헌이 만들어 놓은 것, 문을 닫지 않은 상점, 군청 건물 등을 파괴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 11. 김윤신

김윤신(金允信)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출신으로 천도교인이다. 3·1운동 때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붓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만세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최종하, 정해경, 탁영재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황성읍장터에서 오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12. 김인경

김인경(金麟卿)은 황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출신으로 서당훈도였다. 천도교 황성대교구장이던 최종하와 감리교 지도자 정해경과 탁영재가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황성장날을 기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안흥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여러 사람이 인원 모으기에 힘쓴 결과 1,300여 명의 군중이 모였으며,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인경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김인경 판결문(징역 8월형)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서당교사, 김인경, 38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 김인경(金麟卿)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유]

피고는 천도교 교도인데, 대정 8년 음력 2월 13일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 천도교 순회교사 신재근(申在根)의 집에서 횡성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라는 사람으로부터 선언서라는 제목의 조선은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기재된 문서 12매의 교부를 받고, 이것을 일반 조선인에게 배포하여 인심의 동요를 초래하라는 뜻의 부탁을 받자, 이를 응하여 동월 20일경 위 주소지 피고의 집에서 천도교도인 이인영이란 사람에게 위의 선언서 3매를 교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당 공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여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

김인경의 공소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김인경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서당교사, 김인경, 38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 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이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는 8년 전부터 천도교 교도가 되었던 사람인데, 대정 8년 3월 14일(음력 2월 23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 천도교 순회교사 신재근의 집에서 횡성 대교구장 최종하로부터 선언서라는 제목의 천도교 교주 손병희 외 32명 명의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각 스스로 최후의 한 시간, 최후의 한 사람에게 이를 때까지 분투하며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불온한 문서 12매를 일반 조선인에게 배부하라는 의뢰에 의하여 그 교부를 받게 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위 의뢰를 승낙하여 3월 21일경 자택에서 천도교 교도인 이인영에게 그 중 3매

를 교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정에서의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범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다.

위와 동일한 원 판결은 타당하며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

김인경의 상고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김인경 판결문(상고기각)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서당교사, 김인경, 38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이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고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초장임오랑(草場林五郎)이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 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 취의는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인 것이 되므로 상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 판결에 기재한 것과 같이 원심인정의 사실은 원심이 적용한 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원심이 피고의 소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타당하며 논지는 자신의 의견에 근거하여 그 소위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택하기에 충분치 않다.

위 설명과 같이 본 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19일  
고등법원 형사부

### 13. 김준경

김준경(金駿卿, 1924~1973)은 강원도 횡성출신으로, 1944년 11월 중국 하북성 포기현(蒲瀛縣)에서 일본군 제3702부대를 탈출하여 중국군 왕륙기(王陸基) 장군 휘하의 신편 제15사 유격대에 가담하였다.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 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14. 김진대/최동수

최동수(崔東壽)는 횡성군 읍하리에 살면서 청년회원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만세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코지마료[小島了] 헌병 상등병을 우천면 두곡리(杜谷里)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가한 김진대(金振大) 노인과 함께 합세하여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고 담뱃대로 때리며 호령하였고 운동이 끝난 후에 일본 헌병의 눈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주를 드나들기도 하였다.

## 15. 김치정

김치정(金治正)은 기미년 만세사건 때는 갑천면 매일 3리 속칭 잔골마을에서 50대의 장년으로 한문서당을 마련해놓고 10여 명의 문하생을 두고 한학(漢學)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횡성경찰서 모습(1959)

3·1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강원도내에서는 횡성에서 제일 먼저 3월 27일에 군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참여하여 3·1만세를 불렀고 이어서 대규모 운동으로 전개된 4월 1일 장날과 2일을 계속해서 만세를 불렀다. 이때 군내 각지에서 스스로 참가하는 수많은 군민들이 횡성읍내 장터로 모여들 때 김치정씨도 잔골에서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횡성으로 와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



렀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기세가 도도해지자 경찰서에 근무하는 일경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됨을 판단한 경찰사장은 원주에 있는 일본헌병과건대에 연락을 취하여 병력지원을 요청했다. 원주헌병과건대에서 급파된 일본헌병들은 횡성 앞내다리 [前川]를 건너서면서부터 전투태세를 갖추고 횡성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동향을 살피며 서서히 접근하여 왔다.

횡성군민들의 만세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 열기는 거세어졌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선두가 일본인 경찰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본 일본헌병들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만세를 부르다 일본헌병이 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포들을 본 군중은 대노하기 시작했고 격렬해지면서 맨주먹을 움켜쥐고 혹은 돌과 몽둥이를 집어 들고 왜병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다. 사태가 위급하여진 일본 헌병들은 거세게 무차별 사격으로 독립을 외치는 군민들에게 대항하였다.

김치정은 무차별 난사하는 총탄에 맞아 만세 부르던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드디어 총소리가 멈추고 피신했던 군중들이 만세현장에 나와 총탄에 맞은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이때 신건수는 총소리에 놀라 어떻게 피신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만세사건 후 갑천면 잔골마을로 김치정의 사망한 소식이 전달되어 잔골부락민들이 횡성까지 나와서 시신을 운구하여 오고 부락민들의 정성된 협력으로 그나마 일경의 눈을 피해가며 매일 2리 박해운 자택 옆에 있는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묘가 현재도 친척들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김치정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또 순국한 사실은 당시에 일본헌병과 경찰이 두려워 오히려 남들에게 숨겨야 했으며 아직까지 그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신건수의 증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졌다.

## 16. 남상정

남상정(南相植, 1884~1962)은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20년 6월 중국 동삼성(東三省) 유하현(柳河縣)에 본부를 둔 조선독립단(대한독립단인 듯함)장 진규환(陳奎煥)의 지령을 받은 최익채(崔益采)의 권유를 받아 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수남리(水南里)에 거주하는 이규남(李奎南)과 동군(同郡) 정곡면(井谷面)에 거주하는 김연승(金連昇), 공근면(公根面)에 거주하는 정관시(鄭寬時) 등을 포섭하여 독립국(대한민국임시정부를 뜻함)가입과 군자금 모집에 협조하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한편 최익채에게는 군자금모집에 필요한 무기와 대원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작성 발송하려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20년 12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17. 박민희

박민희(朴民喜, 1879~1945)는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여 주민 50여 명을 규합, 봉화를 올린 후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고 피체되었다. 이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박민희 판결문(징역 10월형)

### [판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농업, 송병기, 28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성태현, 2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박민희, 41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유정근, 40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정헌, 26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두연, 3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종우, 40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음식점업, 김옥봉, 4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 총독부 검사 천면영육(千綿榮六)이 간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문]

피고 송병기(宋秉箕)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성태현(成泰鉉), 박민희(朴民喜)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유정근(柳定根)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 이정헌(李正憲), 이두연(李斗淵), 이종우(李鍾禹), 김옥봉(金玉鳳)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피고 송병기, 성태현, 이정헌, 박민희는 대정(大正) 8년(1919년) 4월 12일 피고 송병기의 거주지인 동인(同人)의 종형 송병창(宋秉昌)의 집에서 회담

(會談) 중 동인의 주장으로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는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등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역시 같은 운동을 하기로 기획하고 그날 밤 오후 9시경 주민 약 50명을 규합하여 동리 뒤쪽의 이름 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고, 다시 이 산기슭에서 피고 유정근 등의 무리와 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며 동리(同里) 안을 횡행하고, 피고 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옥봉은 같은 날 밤, 피고 김옥봉의 집에서 잡담 중 위 판시(判示)와 같이 다수의 주민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친다는 것을 듣고는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피고 유정근의 발의로 이 산기슭에서 다수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등 피고들은 모두 정치에 관련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또 피고 성태현은 대정 4년(1915년) 1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이다.

위 사실은

1. 당 공정에서 한 피고 송병기가 자기 종형의 주장에 의해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모인 것이 아니다. 단지 동인이 산에 올라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등산했던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 외에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당 공정에서 피고 성태현이 송병창 집에서 상담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 외 판시와 동일한 내용 및 피고 이정현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공술,
1. 검사의 피고 박민희·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옥봉의가 신문조서 중에서 각각 그 소위에 대해 각기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검사의 피고 송병기 신문조서 중에서 소집한 군중은 2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변명하는 것 외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공술기재,



1. 사법 경찰관의 피고 성태현 신문조서 중에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사법 경찰관의 피고 이정현 신문조서 중에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사법 경찰관의 증인 이상설(李相設) 신문조서 중에서 대정 8년 4월 12일 밤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내의 향산(香山), 수동(水洞), 상촌(上村), 조항(鳥項)의 각 동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사실로부터 그날 밤 송병창 등은 자기 집 앞까지 와서 만세를 불렀는데 자신은 나가지 않았고, 정문을 부수려고 해서 둘째 아들 병두(炳斗)를 나가게 했는데 문을 부수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처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조항까지 따라가게 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이것들을 종합 참작하여 증빙이 충분하고 또 피고 성태현의 전과에 대해서는 동 피고가 당 공정에서 한 판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있음에 따라 명백하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률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 형법 시행법 제3조에 의해 신·구 양법을 대조하니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또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누범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56조, 제57조에 따라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할 자에 해당함으로써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에 따라 조선형사령 제42조로부터 형명을 변경하고 소정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형법 제56조, 제57조에 준하여 누범의 법정 가중을 하고 각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송병기의 공기가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송병기 등의 판결문(공소기가각)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농업, 송병기, 28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성태현, 2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거주, 이정현, 26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등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가 관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 송병기, 성태현, 이정현 등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하고 대정 8년 4월 12일 원심 피고 박민희(朴民喜)와 함께 피고 송병기의 거촌에서 동인의 중형 송병창의 집에서 회담하고 그 촌에서도 이민(里民)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밤 9시경 이민 약 50명을 규합하여 동리 후방 무명 산 정상에 도착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계속하여 동 산기슭에서 원심 피고 유정근 등 한 무리와 합하여 전과 같은 모양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리 내를 횡행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 성태현은 대정 4년(1915) 1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

서 절도죄로 인해 징역 4월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이다.

위 범죄 사실은 당 공정에서 각 피고 등이 자신 등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의 각 공술.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송병기가 자신은 본년 4월 12일 밤 송병창의 권유로 약 50명의 사람과 함께 분일리 뒷산에 올라 일동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치고 그 뒷산에서 내려와 유정근 무리와 합하여 만세를 외치고 마을을 계속 돌았다는 뜻, 피고 성태현의 본년 4월 12일 그 주민 약 50명과 함께 마을 내 뒷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산에서 내려와 유정근 무리와 합하여 100명이 분일리 안을 계속 돌았다는 뜻, 피고 이정현이 본년 4월 12일 밤 마을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거촌에서도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송병창의 주장에 찬동하여 뒷산에 올라 산기슭에서 유정근 등의 무리와 합해 마을 안을 계속해서 돌았다는 뜻, 각 공술 기재 검사의 피고 송병기에 대한 조서 중에 군중은 2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변명하는 것 외 판시 동 취지의 공술기재, 사법경찰 및 피고 성태현에 대한 조서 중 판시 동 취지, 피고 이정현에 대한 조서 중 판시 동 취지의 각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 성태현의 전과에 대해서는 당 법정에서 피고의 판시와 같은 처형을 받았다는 뜻의 공술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각 범죄 후의 법령으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는 연고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따라 신·구법의 형을 비조하여 가벼운 것으로 적용해야한다.

신법에 있어서는 각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법에 관계됨으로 형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에 따라 법정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형법 제10조, 제9조로부터 대조함에 각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고 또한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형법 제56조 제1항, 제

57조를 적용하고, 피고 송병기와 이정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송병기를 징역 10월, 피고 성태현을 징역 8월, 피고 이정현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와 동 취지에서 나온 원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 등의 공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2일  
경성복심법원

## 18. 박봉수

박봉수(朴鳳洙, 1898~1974)는 황성출신으로 이명은 봉수(鳳秀)이다. 1932년 9월국민부(國民府) 산하 조선혁명군의 일원으로 평남 덕천에서 폭탄사건을 일으켰던 변낙규(邊洛奎), 김병수(金炳洙) 등이 국내에 잠입하자 이들을 도와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는 이들과 함께 평북 구성(龜城) 소재 거부인 최창학(崔昌學)을 납치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그는 1932년 12월 27일 동지인 장인준(張仁濬)·김일봉(金一鳳)과 함께 영변(寧邊)의 도박장(賭博場)을 습격하여 군자금모집을 시도하였다.

1933년 3월 29일 변낙규와 함께 삭주군(朔州郡) 거주 이봉주(李鳳柱)로부터 군자금 42원을 모집하고



박봉수



위조지폐(偽造紙幣)의 발행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33년 8월 9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제령(制令) 제7호, 폭발물취체규칙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19. 백흥기

백흥기(白興基, 1920~?)는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인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태(南宮培), 이찬우(李燦雨), 조규석(曹圭奭), 문세현(文世鉉)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서적부장의 일을 맡았다.



춘천고보시절 백흥기

그 후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켜 회세를 확장하여 전교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록회의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 회원은 졸업 후에도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여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3월 졸업 후 그는 문세현, 이찬우 등과 만주(滿洲)로 건너가 재만독립운동가 이동산(李東山), 오종태(吳鍾泰), 석일경(石一慶) 등과 합세하여 길림(吉林)에 상록회를 조직하는 등 문세현과 함께 간도(間島)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그도 이에 연루되어 만주에서 피체되었다.

피체 후 춘천으로 이송된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38년 당시 춘천고보 상록회 회원들

### 1938년 당시 춘천고보 상록회 회원들

백홍기 판결문(2년 6월형)

- 본(本)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 거(居) :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  
무직(元 신학교생도), 남궁태, 20세
- 본 및 거 :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천전리, 무직(원 교원), 이찬우, 22세
- 본 : 전라북도 옥구군 내면(來面) 개사리  
/ 거 :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소양통(昭陽通)  
무직(원 금융조합서기), 문세현, 23세
- 본 :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희망리 / 거 :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소양통  
무직(원 춘천우편국 사무원), 용환각, 23세
- 본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 / 거: 만주국 길림성 영길현 제2구 기반가(棋盤街),  
무직(원 교원), 백흥기, 20세
- 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도룡리 / 거: 경성부 돈의정  
무직(원 보성전문학교 학생), 조규석, 22세
- 본: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동부동 / 거: 안동군 안동읍 신세동  
무직(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검사분국 임시교원), 배근석, 21세
- 본 및 거: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동변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  
전흥기, 23세
- 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송촌리 / 거: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옥정  
무직, 조흥환, 23세
- 본: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화원정 / 거: 경성부 낙원정  
무직, 차주환, 20세
- 본: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서산리 / 거: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소양동  
무직(원 춘천중학교 생도), 이연호, 21세
- 본: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북면 용산리 / 거: 춘천읍 화원정  
무직(원 춘천중학교 생도), 신기철, 19세

위 사람들에게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해 조선총독부 검사 삼본각일(杉本覺一)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인 남궁태, 동 이찬우, 동 문세현, 동 용환각, 동 백흥기, 동 조규석, 동 배근석, 동 조흥환, 동 이연호, 동 신기철을 징역 2년 6월에 각각 처하고, 피고인 전흥기, 동 차주환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각 피고인의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각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전흥기, 동 차주환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前略) … 피고인 백흥기는 본적지의 안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소화 8년 4월 춘천고보에 입학하여 소화 13년(1938) 3월 3일 동교를 졸업하고 동년 5월 만주로 건너가 만주국 길림성 영길현 공립국민우급학교 교사로 있다가 동년 11월 29일 퇴직한 자이다. 춘천고보 3학년 무렵부터 동아일보를 구독하게 되어 점차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었고, 마침 그 무렵 동교 강전(岡田) 교사가 조선인을 모욕하는 폭언을 한 것에 매우 분개한 이후 「상록수」, 기타 많은 민족주의적 문헌을 탐독하게 되어 민족주의 사상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中略)

제 1. 피고인 남궁태, 동 이찬우, 동 문세현, 동 용환각, 동 백흥기, 동 조규석 등 6명은 소화 12년 3월 9일 춘천고보 교정에서 회합하여 상호 품고 있는 사상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동지를 규합하고 조선독립을 실현할 목적 아래 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월 14일경 피고인 이찬우는 동급생 성수경(成綏慶)에게 전기(前記) 협의 사실을 설명하고 결사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음에 따라 전기 피고인 6명 및 성수경은 동일 오전 11시경부터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전평리 수원지 부근 냇가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6명은 각기 조선민족의 어려운 상태 및 조선독립이 긴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다시 같은 날 오후 1시경부터 동읍 소양동 2정목 피고인 백흥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의 굴레로부터 이탈,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록회(常綠會)라는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 부서를,  
위원장 피고인 조규석  
부위원장 피고인 문세현  
선전부장 피고인 문세현  
선전부장 피고인 이찬우  
서적부장 피고인 백흥기  
회 계 피고인 용환각  
으로 결정하고,

결사의 목적 강령으로서 회원은 자기완성,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 단결력의 양성 훈련, 파벌 투쟁을 배척하여 조선 민족을 위해 일신을 희생한다는 등을 결정하였다.

(1) 피고인 남궁태, 이찬우, 문세현, 용환각, 백흥기의 5명은 동월 25일 오전 11시경 춘천읍 화원정 2정목 언덕 위에서 화합하여 서적 교환의 건 등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하였다.

(2) 피고인 문세현은 동년 4월경 춘천읍 화원정 2정목 기독교 교회당, 기타의 장소에서 춘천도립의원 간호부 서병선(徐丙善) 및 동읍 단양정 유경애(兪慶愛) 두 명에게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훈」, 「상록수」라는 민족주의적 문헌을 교부하고 읽어보게 한 뒤 2명을 동지로 획득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로써 전기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제 2. 위 상록회를 결성한 뒤 피고인 문세현, 백흥기 두 명은 동회 설립의 의의에 대해 피고인 남궁태 등과 의견을 달리하게 되어 탈퇴할 것을

신청하고, 성유경은 모임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탈퇴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 남궁태, 이찬우, 용환각, 조규석의 4명은 동년 4월경 춘천고보 교정에서 회합한 후 상록회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동회의 서적부를 확대, 강화하여 조선독립운동의 투사 양성을 위해 독서회를 조직할 것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한 후 피고인 남궁태, 조규석 두 명이 독서회의 조직안을 계획하여 수립할 것, 피고인 4명은 각자 동지가 될 자를 물색하여 권유할 것을 결정하였다.

(中略)

(8) 피고인 남궁태, 이찬우, 문세현, 용환각, 백흥기, 조규석 등 6명은 소화 13년 2월 5일 오후 7시경부터 춘천읍 소양동 2정목 피고인 용환각의 집에서 피고인 전흥기, 차주환 및 회원 이풍섭, 이병주와 회합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남궁태는 각자 졸업한 후의 활동방침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회원을 격려하고, 피고인 이찬우·백흥기 두 명은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갈 예정이었는데 어떤 지역으로 가더라도 조선민족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취지의 소회를 말하였다. 계속해서 전기 피고인 6명은 과거 1년간의 동지획득, 기타 모임을 위해 활동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中略)

이로써 전기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남궁태, 이찬우, 용환각, 조규석의 위 소위는 범의 계속에서 나온 것이다.

증거를 살펴보건대, 피고인 남궁태·이찬우·용환각·조규석의 범의 계속의 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각 피고인이 당 공판정에서 한 각 관계부분에 관한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에 의해 명백하며, 범의 계속의

점은 모두 단기간 내에 동종(同種)의 행위를 반복, 누행한 사적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남궁태 · 이찬우 · 용환각 · 문세현 · 백흥기 · 조규석 · 배근석 · 이연호 · 신기철의 판시 소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전단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 남궁태 · 이찬우 · 용환각 · 조규석의 위 소위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에 따라 1죄로 하고, 피고인 전흥기 · 차주환의 소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함으로 이상의 각 피고인에 대한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두 범정(犯情)에 민량(憫諒)할 것이 있으므로 형법 제66조, 제71조, 제68조 제3호에 의해 작량(酌量), 경감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남궁태 · 이찬우 · 문세현 · 용환각 · 백흥기 · 조규석 · 배근석 · 조홍환 · 이연호 · 신기철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전흥기 · 차주환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동법 제21조에 의해 각 피고인에게 미결구류일수 중 각 180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전흥기, 차주환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에 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정상(情狀)에 있다고 인정하여 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 14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

## 20. 성태현

성태현(成泰鉉)은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基), 박민희(朴民喜), 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 명을 모아 분일리내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 후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경 신간회(新幹會)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19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여 우리의 민족혼 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21. 송병기

송병기(宋秉箕, 1891~1930)는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성태현(成泰鉉), 박민희(朴民喜), 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주민 70여명을 규합하여 분일리내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가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시 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 도둑 시위를 하다가 날이 샅 무렵에야 해산하였는데 그는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경 신간회(新幹會)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19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며 우리의 민족혼 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송병기 판결문(징역 10월형)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농업, 송병기, 28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성태현, 2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박민희, 41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유정근, 40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정헌, 26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두연, 3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이종우, 40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음식점업, 김옥봉, 4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 총독부 검사 천면영육(千綿榮六)이 간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 송병기(宋秉箕)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성태현(成泰鉉), 박민희(朴民喜)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유정근(柳定根)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 이정헌(李正憲), 이두연(李斗淵), 이종우(李鍾禹), 김옥봉(金玉鳳)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유]

피고 송병기, 성태현, 이정헌, 박민희는 대정(大正) 8년(1919년) 4월 12일 피고 송병기의 거주지인 동인(同人)의 중형 송병창(宋秉昌)의 집에서 회담(會談) 중 동인의 주장으로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는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등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역시 같은 운동을 하기로 기획하고 그날 밤 오후 9시경 주민 약 50명을 규합하여 동리 뒤

쪽의 이름 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고, 다시 이 산기슭에서 피고 유정근 등의 무리와 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며 동리(同里) 안을 횡행하고,

피고 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옥봉은 같은 날 밤, 피고 김옥봉의 집에서 잡담 중 위 판시(判示)와 같이 다수의 주민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친다는 것을 듣고는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피고 유정근의 발의로 이 산기슭에서 다수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등 피고들은 모두 정치에 관련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또 피고 성태현은 대정 4년(1915년) 1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이다.

#### 위 사실은

1. 당 공정에서 한 피고 송병기가 자기 종형의 주장에 의해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모인 것이 아니다. 단지 동인이 산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때문에 등산했던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 외에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당 공정에서 피고 성태현이 송병창 집에서 상담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 외 판시와 동일한 내용 및 피고 이정현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공술,
1. 검사의 피고 박민희·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옥봉의가 신문조서 중에서 각각 그 소위에 대해 각기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검사의 피고 송병기 신문조서 중에서 소집한 군중은 2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변명하는 것 외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공술기재,
1. 사법 경찰관의 피고 성태현 신문조서 중에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사법 경찰관의 피고 이정현 신문조서 중에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기재,

1. 사법 경찰관의 증인 이상설(李相設) 신문조서 중에서 대정 8년 4월 12일 밤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내의 향산(香山), 수동(水洞), 상촌(上村), 조항(鳥項)의 각 동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사실로부터 그날 밤 송병창 등은 자기 집 앞까지 와서 만세를 불렀는데 자신은 나가지 않았고, 정문을 부수려고 해서 둘째 아들 병두(炳斗)를 나가게 했는데 문을 부수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처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조항까지 따라가게 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이것들을 종합 참작하여 증빙이 충분하고 또 피고 성태현의 전과에 대해서는 동 피고가 당 공정에서 한 판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있음에 따라 명백하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률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 형법 시행법 제3조에 의해 신·구 양법을 대조하니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또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누범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56조, 제57조에 따라 범정의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할 자에 해당함으로써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에 따라 조선형사령 제42조로부터 형명을 변경하고 소정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형법 제56조, 제57조에 준하여 누범의 범정 가중을 하고 각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송병기의 공기기가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송병기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 농업, 송병기, 28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성태현, 29세

강원도 동군 동면 동리 거주, 이정현, 26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등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가 관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 송병기, 성태현, 이정현 등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내 각지에 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하고 대정 8년 4월 12일 원심 피고 박민희(朴民喜)와 함께 피고 송병기의 거촌에서 동인의 종형 송병창의 집에서 회담하고 그 촌에서도 이민(里民)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밤 9시경 이민 약 50명을 규합하여 동리 후방 무명 산 정상에 도착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계속하여 동 산기슭에서 원심 피고 유정근 등 한 무리와 합하여 전과 같은 모양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리 내를 횡행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 성태현은 대정 4년(1915) 1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절도죄로 인해 징역 4월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이다.

위 범죄 사실은 당 공정에서 각 피고 등이 자신 등은 대정 8년 3월 1일 이

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의 각 공술.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송병기가 자신은 본년 4월 12일 밤 송병창의 권유로 약 50명의 사람과 함께 분일리 뒷산에 올라 일동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치고 그 뒷산에서 내려와 유정근 무리와 합하여 만세를 외치고 마을을 계속 돌았다는 뜻, 피고 성태현의 본년 4월 12일 그 주민 약 50명과 함께 마을 내 뒷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산에서 내려와 유정근 무리와 합하여 100명이 분일리 안을 계속 돌았다는 뜻, 피고 이정현이 본년 4월 12일 밤 마을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거촌에서도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송병창의 주장에 찬동하여 뒷산에 올라 산기슭에서 유정근 등의 무리와 합해 마을 안을 계속해서 돌았다는 뜻, 각 공술 기재 검사의 피고 송병기에 대한 조서 중에 군중은 2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변명하는 것 외 판시 동 취지의 공술기재, 사법경찰 및 피고 성태현에 대한 조서 중 판시 동 취지, 피고 이정현에 대한 조서 중 판시 동 취지의 각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 성태현의 전과에 대해서는 당 법정에서 피고의 판시와 같은 처형을 받았다는 뜻의 공술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각 범죄 후의 법령으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는 연고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따라 신·구법의 형을 비조하여 가벼운 것으로 적용해야한다.

신법에 있어서는 각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에 관계됨으로 형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에 따라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형법 제10조, 제9조로부터 대조함에 각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고 또한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형법 제56조 제1항, 제57조를 적용하고, 피고 송병기와 이정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



택하고 각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송병기를 징역 10월, 피고 성태현을 징역 8월, 피고 이정현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와 동 취지에서 나온 원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 등의 공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2일

경성복심법원

## 22. 신재근

신재근(申在根, 1856~?)은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19년 3월 27일 횡성군 횡성면 횡성장날에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횡성 천도교회 봉훈(奉訓)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신재근은 교주 손병희(孫秉熙)의 조선독립선언과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3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회합을 갖고 장도훈(張道勳)에게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 구입 자금으로 3원을 주었다.

장도훈은 이것을 가지고 3월 11·12일경 경성에서 태극기 한 폭,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 및 독립선언서 40매를 구입하고 3월 26일 돌아왔다. 장도훈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입하여 고향에 돌아오자 신재근은 이것을 향리인 영영포리(永永浦里)를 비롯하여 횡성면 일대에 배포하였다. 또 강만형은 원주 소초면 지역에 안경춘(安敬春)과 김인경(金麟卿) 등은 정곡과 갑천(甲川)·둔내면(屯內面) 등지에 각각 배포하였다.

3월 27일 신재근과 장도훈은 횡성시장에서 윤태환(尹泰煥)에게 태극기를 주고, 이를 휘두르며 장꾼 300여 명에게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 경찰과 원주에서 파견된 기마병 7명에 의해 시위군중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신재근은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신재근의 공소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신재근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 농업, 64세, 신재근

동군 정곡면 상안흥리, 농업, 49세, 장도훈

동군 동면 동리, 농업, 20세, 안경춘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농업, 28세, 강만형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잡화상, 22세, 윤태환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 5명이 모두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의 간여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신재근(申在根)은 30년 전부터, 피고 장도훈(長道勳)은 10년 전부터 각 천도교도가 되어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1이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

의 선언을 한 이래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그 방법으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태극기를 휘둘러 펼럭이며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각 그 취지에 찬동하여 거주 마을에서도 이와 동일한 행동으로 조선독립의 기운을 양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동년 3월 10일경 신재근 집에서 두 사람이 회합, 모의한 끝에 피고 신재근은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장도훈에게 돈 3원을 교부하였다. 피고 장도훈은 이를 가지고 동월 11일, 12일경 경성에 올라 가 태극기 1폭(중 제1호) 5촌 가량의 조선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 및 독립선언서 40매를 구입하여 동월 26일 이를 가지고 돌아오자, 피고 두사람은 다음날 27일 황성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하였다. 그 당일 함께 같은 시장에 가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 윤태환(尹泰煥)에게 찬동을 구하고, 위의 태극기를 교부하여 이를 흔들고 펼럭이게 하고, 시장에 온 300여명의 군중에게 위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를 배부, 선동하여 위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안경춘(安敬春), 강만형(姜萬馨)은 천도교도로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1일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선언을 발표한 이래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각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계획하여, 동년 3월 27일 위의 황성시장에서 피고 신재근, 장도훈 등이 기도한 독립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위의 다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윤태환은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한 이래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그 방법으로 태극기를 휘둘러 펼럭이며 조선독립만세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대정 8년 3월 27일 위의 황성시장에 갔을 때 시장 입구에서 피

고 신재근에게 위의 동인들이 계획한 독립시위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따라 부르자는 권유를 받아 태극기 1폭을 교부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날 그곳에서 위 태극기의 기수가 되어 태극기를 휘둘러 펼럭이며 위의 다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따라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판정에서 한 피고 신재근, 장도훈, 안경춘, 강만형의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 피고 윤태환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 취지에 찬동한 점을 제외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각 자백, 사법경찰관의 피고 윤태환 신문 조서 중 대정 8년 3월 27일 오전 10시나 11시경 신재근은 자신에게 오늘 신(新) 시장 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므로 너도 함께 만세를 불러달라고 하고 또한 이를 휘날려 달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주저하자 “너는 청년인데 이 모양으로 기상이 없고 썩은 정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의무심인데 크게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받은 물건을 열어 보니 태극기기에 “이러한 것을 하면 헌병에게 체포된다”고 말하자, 동인은 또한 위와 같이 “기상이 없다. 의무심이 없다”고 말하였기에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신(新) 도로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였기에 자신도 시장으로 갔는데, 신재근과 장도훈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름으로 자신도 두루마기 아래 숨겨 가져온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공술기재, 압수된 증 제1호 태극기가 있음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들의 소위는 각 범죄 후에 법률에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따라야 한다. 구법에 의하면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의하여 형명(刑名)이 변경한 보안법 제7조에,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조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제9조를 대조하니 모두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여 각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

서 피고 신재근을 징역 2년에, 피고 장도훈을 징역 2년에, 피고 안경춘을 징역 10월에, 피고 강만형을 징역 8월에, 피고 윤태환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형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다.

그래서 위와 동일한 원판결은 타당하며 피고들의 공소는 각기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6일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 23. 안승훈

안승훈(安承勳, 1900~1975)은 강원도 횡성출신이며, 이명은 경춘(敬春)이다. 1919년 당시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安興面 上安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천도교인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일제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3월 1일 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횡성장터에서 신재근(申在根) 등 천도교인 다수와 주민을 규합하여 신재근과 장도훈(張道勳)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교부받아 장터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안승훈



그리하여 이해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24. 원후정

원후정(元厚貞, 1922~1995.7.29)은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38년 가을에 춘천중학교의 항일학생결사 상륙회가 일경에 발각되어 전회원이 검거된 후 춘천중학생들은 민족적인 서적을 구독하고 독후감 교환 및 토론을 통하여 항일의식을 제고하면서 민족의 진로를 찾고자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활동내용과 성격은 상륙회와 거의 같은 것이었으나 이들은 조직체의 이름을 내어걸고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미 상륙회가 발각되었으므로 다시 조



원후정

직체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활동에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형식은 없었지만 이들은 독서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심화시켜갔다.

그러던 중 1941년 3월에 심재진(沈在震), 고제훈(高濟勳), 김영근(金榮根), 박영한(朴泳漢), 권혁민(權赫民) 등과 함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춘천중학교 교정에서 일인 학생들과 무력 충돌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싸움의 규모가 컸으므로 일경이 개입하게 되었고 이때 한국학생들을 탄압했던 것은 물론이고 춘천중학생의 독서활동도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그도 일경에 피체 되었고 피체 후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2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단기1년 장기3년형을 언도 받았으며, 또 소위 '폭행죄'로는 징역 단기6월, 장기2년형을 언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25. 유정근

유정근(柳定根, 1882~1946)은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 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송병기, 성태현, 박민희, 이정현 등은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만세를 부르고 그는 이두연(李斗淵), 이종우(李鍾禹), 김옥봉(金玉鳳)과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군중과 함께 밤늦도록 만세를 부르고 참가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하고 문을 부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26. 윤동선

윤동선(尹東先)은 황성읍 영영포리에 살고 있었으며, 당시 25세로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3·1 운동기념비,제막식에서 최종완 강원도지사로부터 기념패를 받는 윤동선웅

## 27. 윤석환

윤석환(尹錫煥)은 횡성읍 읍하리에 살던 만세운동 당시 그는 배후에서 횡성의 3·1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지도하고 3월 27일 운동과 4월 1일 운동 등 횡성의 3·1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 28. 윤태환

윤태환(尹泰煥)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출신이다. 신재근(申在根), 장도훈(張道勳)이 계획하여 추진한 1919년 3월 27일의 횡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27일 횡성시장에서 신재근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자 승낙하였다.

그는 다른 주동인물들과 함께 시장 내의 모든 상점을 닫게 하고 사람들을 집합하여 300여 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체포되었다.

당시 상황을 딸 윤신자는 “아버지가 시위대에 나누어 주려고 장작을 땀고 만세운동을 할 때는 학도가 부르며 큰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어요. 아버지는 맨발인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는 용수가 씌워진 채 끌려가서 모



윤태환 초상화



윤태환 애국지사의 딸 윤신자 모습(1984)

진 고문을 받았어요”라고 하며 어릴 때의 쓰라린 기억을 상기하였다.

1919년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범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29. 위창래

위창래(魏昌來)는 당시 황성읍 영영포리 구장(區長)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친일 구장들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 있었던 3·1만세운동의 계획·추진의 비밀을 일본 헌병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며 만세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30. 이기순

이기순(李奇順, 18883~?)은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살고 있었으며, 황성의 3·1만세운동 때에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황성군에는 당시 천도교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만세운동도 천도교인이 주동했고 선봉에 섰다. 황성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3월 27일 장날이다. 그러나 경찰이 주동급 인물들을 검거함으로써 이날의 운동은 흐지부지 끝났다.

다음 장날 4월 1일에는 대규모의 치열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군중의 움직임은 천도교회의 운동범위를 벗어나 크게 확대되었다. 황성읍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이 주동급에 가담하였고, 감리교회의 정해경(鄭海景)이 역시 힘을 모았다. 시위는 4월 2일에도 계속되어, 주민들이 헌병분견소에 모여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황성군 내의 일제측 탄압은 심해졌고 그에 대항하는 주민의 애국적 항거도 곳곳에서 끊

이지 않았다.

4월 6일까지 황성읍내의 상점은 철폐하여 묵묵한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7일에 겨우 문을 열었다. 7일에는 읍내길 가에 태극기를 세워 놓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이 붙었다.

잡화상이었던 이기순은 4월 5일에 둔내면 자포곡리(自浦谷里) 천관여(千官汝)의 집에서, 천관여와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함으로써 체포되었다. 그는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31. 이동구

이동구(李東九)는 황성군 공근면 매곡리에 살던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며 공근면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면민들과 함께 1919년 4월 1일 황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 32. 이두연

이두연(李斗淵, 1881~1946)은 강원도 황성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송병창(宋秉昌) 집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주민 70여 명을 규합하여 봉화를 올리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서 피체되었다.

이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33. 이유태

이유태(李裕泰)는 공근면 하갈마곡리(下葛麻谷里, 지금의 오산리)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당시 황성의 3·1 만세운동을 맞아 만세를 선동한 혐의로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 34. 이정헌

이정헌(李定憲)은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 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 박민희, 성태현과 함께 송병창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 명을 모아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 후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35. 이종우

이종우(李鍾禹, 1880~1951)은 강원도 황성출신이다.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독립만세시위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주민 70여 명을 규합 봉화를 올린 후 만세를 부르자 그는 김옥봉의 집에 와 있던 유정근, 이두연과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그 후 그는 군중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참가하지 않은집에 대해서는 문을 부수기도하며 새벽 1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 시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36. 이채일/이동구

이채일(李采一)과 의사원이었던 이동구(李東求)는 황성 천도교출신으로 서울천도교본부에 근무하면서 황성의 3·1운동에 독립선언서 알선 등의 지원을 하였고 서울의 만세운동정보를 제공하였다.

### 37. 장도훈

장도훈(張道勳, 1870~1940)은 평남 성천(成川)출신이다. 1919년 3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신재근(申在根), 강만형(姜萬馨), 윤태환(尹泰煥), 안경춘(安敬春) 등과 함께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신재근으로부터 3원(圓)을 받아 3월 11·12일경 서울에 올라와 태극기 20매 및 독립선언서 40매 등을 구입하였다.

장날인 3월 27일 장터에 모인 장꾼들에게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고 이들과



|            |                    |    |      |
|------------|--------------------|----|------|
| 本籍         | 江原道 楊城郡 并谷 上安興 240 |    |      |
| 出生地        | 平安南道 咸川郡 三德 營峯     |    |      |
| 住所         | 江原道 楊城郡 并谷 上安興 240 |    |      |
| 身分         | 砲兵                 | 砲軍 | 運糧教師 |
| 姓名         | 張安法漢辰              |    |      |
| 別名別號       | 應政2年               |    |      |
| 宣渡年月日      | 大正3年 4月 6日         |    |      |
| 刑/始期       | 大正3年 7月 17日        |    |      |
| 宣渡裁判所      | 京城警備法院             |    |      |
| 執行監獄       | 西大門監獄              |    |      |
| 出獄年月日及其事由  | 大正3年 7月 16日 滿期     |    |      |
| 備考         |                    | 前科 |      |
| 籍住地本籍地兵男基乙 |                    | 初犯 |      |

장도훈의 모습과 수형기록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해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38. 전성수

전성수(全聖洙, 1886~1962)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횡성군은 당시 천도교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만세운동도 천도교인이 주동했다. 횡성에서 첫 번째 만세운동은 3월 27일 장날이다. 그러나 경찰이 주동급 인물들을 검거함으로써 이날의 운동은 호지부지 끝났다. 다음 장날 4월 1일에는 대규모의 치열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군중의 움직임은 천도교회의 운동범위를 벗어나 크게 확대되었다. 횡성읍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이 주동급에 가담하였고, 감리교회의 정해경(鄭海景)이 역시 힘을 모았다.

시위는 4월 2일에도 계속되어, 주민들이 헌병분견소에 모여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황성군 내의 일제측 탄압은 심해졌고 그에 대항하는 주민의 애국적 항거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4월 6일까지 황성읍내의 상점은 철폐하여 묵묵한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7일에 겨우 문을 열었다.

7일에는 읍내길 가에 태극기를 세워 놓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이 붙었다. 4월 1일 황성읍내 시장의 시위로 체포된 전성수는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39. 전한국

전한국(全漢國)은 황성읍 읍하리에 살고 있던 3·1운동 당시에 수로공부(水路工府)로 일하고 있었으며, 황성의 만세운동에 참가,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서 독립을 외치다가 일본헌병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 순국하였다.

### 40. 정두철

정두철(鄭斗澈)은 황성읍 읍하리에 살던 1919년 4월 1일 황성의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며 이 운동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 41. 정해경

정해경(鄭海璟)은 황성군 황성면 내지리 출신이다. 1919년 4월 1일 황성읍 장날

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감리교인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천 3백여 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 정해경 외 판결문(징역 1년 6월형 등)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무직, 정해경, 43세

주거 부정, 가업(稼業), 김성서, 68세

동군 정곡면 하산전리, 농업, 조상렬, 19세

인제군 (현 서화면) 천도리, 김윤신, 31세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수차업(水車業), 전성수, 34세

동군 갑천면 매일리, 농업, 김원배, 56세

동군 정곡면 가좌곡리, 농업, 김순서, 31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 정해경, 김성서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조상렬 · 김윤신 · 전성수 · 김원배 · 김순서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유]

피고 정해경(鄭海璟)은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피고 김성서(金聖西)는 천도교도로서 예전부터 일한병합을 심히 개탄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을 앞장서서 주장하자 크게 이에 찬동하여, 대정 8년 4월 1일 오



후 5시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내 시장에서 다수 민중과 함께 피고 정해경의 소리에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때 피고 조상렬(趙常烈), 김윤신(金允信), 전성수(全聖洙), 김원배(金元培), 김순서(金順瑞)는 이에 호응하여 함께 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정해경의 소리에 따랐다는 부분을 제외한 각 해당 피고의 당 공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자백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 정해경 신문조서 중, 동 피고의 소리에 따라 다수 민중이 이에 호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또 위 범행 이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여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해경의 공소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정해경 외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무직, 정해경, 43세

주거 부정, 가업(稼業), 김성서, 68세

동군 정곡면 하산전리, 농업, 조상렬, 19세

인제군 (현 서화면) 천도리, 김윤신, 31세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수차업(水車業), 전성수, 34세

동군 갑천면 매일리, 농업, 김원배(원문에서는 김원배로 나옴), 56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

한 각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6명으로부터 모두 공소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寺田恒太郎)의 간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6명은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발표한 이래 조선 내의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라 외치는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동년 4월 1일 오후 5시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내 시장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피고 정해경의 주창(主唱) 아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거행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판정에서 한 피고 정해경, 김윤신, 김성수의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 피고 조상렬, 김성서, 김원배의 각 자신은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불만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발표한 이래 조선 내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라 외치는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피고 김성서의 판시의 일시에 자신이 판시의 시장에 갔을 때, 수백 명의 군중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피고 김원배의 판시의 일시에 자신이 판시의 시장에 갔을 때, 시위운동을 하는 단체를 보았다는 내용, 피고 조상렬의 판시의 일시에 자신은 판시 시장에서 시위운동의 무리에 가입하여 함께 행진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각 자백,

원심 공판시말서 중 피고 김성서의 자신은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한 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그 취지에 찬성하여, 대정 8년 4월 1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내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동 김원배의 자신은 대정 8년 4월 1일 오후 5시경 판시의 횡성읍내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각 공술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조상렬 신문조서 중 자신은 대정 8년 4월 1일 오후 5시경 읍하리 시장 사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의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6명의 소위는 각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제6조에 따라 신규 두 법의 형을 비교하여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구법에 있어서는 조선형사령 제42조에서 형명(刑名)이 변경된 보안법 제7조에 각 해당하여, 형법 제10조·제9조에 의해 대조하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모두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여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정해경·김성서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조상렬·김운신·김성수·김원배를 각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원 판결은 타당하며 피고들의 공소는 각 그 이유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해경의 상고기가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정해경 외 판결문(상고기가)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무직, 정해경, 43세  
동군 정곡면 하산전리, 농업, 조상렬, 19세

주거 부정, 가업(稼業), 김성서, 68세

동군 갑천면 매일리, 농업, 김윤배(원문에서는 김원배로 나옴), 56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상고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초장임오랑(草場林五郎)의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본 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 4명의 상고취의는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正義), 인도(人道)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違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위는 원심이 적용한 법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타당하다.

논지는 자신의 사실이라는 바를 말하고, 또 피고 개인의 의견에 의하여 자신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 모두 상고의 이유가 없다.

위 설명과 같이 본 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9월 18일

고등법원형사부

## 42. 조상렬

조상렬(趙常烈)은 황성군 정곡면 하산전리(下山田里) 출신이다. 최종하, 정해경, 윤태환, 탁영재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황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황성읍장터에서 오후에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시위하다 헌병들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 43. 조흥열

조흥열(趙興烈)은 황성읍 읍하리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던 그는 1919년 4월 1일 황성 만세운동 때에 쌀가게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였던 석가래 등 목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탁영재, 정두철 등과 선봉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 44. 천선재

천선재(千善才)는 황성군 정곡면(지금의 안흥면) 안흥리 출신이다. 그는 일찍이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가 거주하던 영월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힘을 모으려고 하였다. 4월 11일 주천장날을 거사일로 계획하고 4월 8일에는 범흥리의 최춘일(崔春日)의 집에서 그리고 9일에는 양변면(兩變面) 신일리(新日里) 최성오(崔成五)의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선동하였다.

또 10일에는 수주면 무능리(武陵里)에서 현성준(玄聖俊)에게 만세운동을 권고



하며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천선재의 징역 1년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천선재 판결문(징역 1년)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안흥리, 농업, 천선재, 78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 시보 태재명(太宰明)이 간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유]

피고는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 일파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여 이에 찬동한 다수의 인민이 조선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크게 그 거사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써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여 범의를 계속해서, 동년 4월 8일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범흥리 최춘일(崔春日)의 집에서 동인에 게, 또 다음 날 9일 영월군 양변면 신일리 최성오(崔成五)의 집에서 동인에 게, 또 다음날 10일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부근 밭에서 그 마을 현성준(玄聖俊)에게 “근래 조선 각 지역에서 애국지사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조선독립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횡성군 읍내 시장에서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 수비대로부터 사격을 당하여 죽은 자

가 5명, 부상자가 8명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실로 매우 유감이다. 한국 국민인 사람은 마땅히 애국심을 떨쳐서 오는 주천리 장날을 기하여 그 시장에서 나를 시작으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하며 차례로 동인들을 선동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 판사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 제2항,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대조하여 구법인 보안법 제7의 형이 가벼우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천선재 공소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천선재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안흥리, 농업, 천선재, 78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 부 검사 삼곡유부가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는 20년 전부터 천도교도가 되어 예전부터 일한병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1일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한 이래 조선 내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행해지고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고 의사를 계속하여, 동년 4월 8일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최춘일 집에서 동인에게, 또 다음 9일 영월군 양변면 신일리 최성오 집에서 동인에게, 또 다음 10일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부근 화전에서 무릉리 현성준에게, 모두 근래 조선 각 지역에서 애국지사들이 서로 일어나 조선독립을 위하여 사력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번 강원도 횡성군 읍내 시장에서는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수비병으로부터 사격을 당하여 죽은 자가 5명, 다친 자가 8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독립만세를 외치는 자가 아무도 없음은 실로 매우 유감이다. 한 국민이라면 널리 애국심을 일으켜서 다가오는 주천리 장날을 기하여 동 시장에서 나와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운동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뜻의 불온한 언사로써 차례로 동인 등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정에서의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범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범죄 후 범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제6조에 따라 신구법의 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따라야 한다. 신법에 의하면 각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형법 제55조에, 구법에 의하면 조선형사령 제42조에서 형명이 변경된 보안법 제7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9조에 비추어 이를 대조하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 보안법을 적용하여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취지의 원 판결은 타당하며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정 8년 6월 9일 경성복심법원 -

## 45. 최양옥

### 1) 출생과 민족적 각성

최양옥(崔養玉, 1893. 1. 2. 5. ~ 1983. 5. 4)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1893년 음력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화전리(花田里)에서 법부(法部) 주사(主事)를 지낸 강릉최씨 재건(在建)과 진주강씨 석원(錫元)의 딸 사이에서 장자로 출생하였다. 호가 추강(秋岡)인 선생은 양반의 장자로 출생하여 어려서 귀동(貴童)이로 대우받고 호의호식하며 어릴 때부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발미 삼아 일제가 광무황제(光武皇帝)를 퇴위시키고 군대를



최양옥 지사

해산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선생은 14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 상황을 본 후 왜(倭)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15살 되던 1908년경에는 안씨와 결혼하여 순탄한 생활을 하였다. 선생은 20살이 되던 1913년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졸업한 후 1917년 서울의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월 1일 과고다공원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중퇴하였다. 4남 4녀의 장남이었던 선생은 이 무렵부터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게 되었던 것 같다.

3·1운동이 발생하였던 1919년 선생은 서울 입정정(笠井町)에 위치한 아버지 친구 신병선(申炳善)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선생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돌아온 신병선의 아들 신덕영을 만나게 되었다.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그의 말에 선생은 찬동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생은 3·1운동의 발발 직후 고향인 횡성에 내려가 4월 1일 횡성읍 장날에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신덕영

## 2) 대동단(大同團) 조선지부원(朝鮮支部員)으로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

3·1운동 후 횡성에 머무르던 선생은, 김가진이 총재로 있던 대동단의 조선지부 책임자 신덕영이 1919년 음력 11월 경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로 찾아오자, 대동단에 입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선생은 1920년 음력 4월 하순 상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집터(산 밑 부근)

경하라는 신덕영의 편지를 받고 음력 5월 3일 상경하여 신덕영의 집에 동거하였다. 선생은 1920년 여름 서울에서 신덕영, 자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병 중위라고 하는 박일봉(朴日鳳), 노형규(盧衡奎), 노석중(盧錫中) 등과 우선 전라남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들은 일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농림주식회사의 주식모집원으로 가장하기로 하였다.

1920년(27세) 음력 8월 신덕영은 자신의 첩인 정수현으로 하여금 모의권총 2정을 입수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광주에 있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음력 9월 21일에는 선생이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노석정과 함께 신대선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9월 22일 경에도 선생은 노석정과 함께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곡성군 겸면(兼面) 칠봉리(七峯里) 심상홍(沈相洪) 집에 가서 동인을 마을 앞의 작은 산으로 나오게 한 후 “우리는 광복단원인데 군자금 1,500원을 내라”고 요구하였다.

9월 26일 선생은 단독으로 전남 광주에 내려가 이춘수(李春秀)의 집에 투숙한 후 노석중(盧錫中)과 전치영(全稚英)을 소집하고 이들에게 신덕영 등의 남하계획을 통고하고 이들과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9월 28일 선생은 신덕영의 남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노석중과 전치영으로부터 10원씩을 받아 서울의 신덕영에게 송금하였다.

10월 1일 신덕영, 박일봉이 송정리에 도착하여 광주 금계리(錦溪里)의 조명석(趙明錫)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선생은 이들의 지휘를 받아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10월 7일 선생은 박일봉과 함께 조병열(曹秉烈)의 안내를 받아 화순군 도림면(道林面) 능정리(綾亭里)의 손동채(孫東採)·손영채(孫永採)와 그 숙부인 손영현(孫永鉉)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없어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선생은 10월 15일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의 이윤호(李允鎬)의 집에서 신덕영, 박일봉, 노기준(盧基準) 등과 협의할 때 권총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받았다. 선생은 다음날인 16일 상경하여 권총을 구하려 하였으나 권총을 쉽게 구



입할 수 없었다.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선생은 신덕영의 애인인 이경민(李敬敏, 여)이 입수한 장난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이경민과 함께 광주로 내려왔다.

총을 구입하지 못하여 거사의 추진을 망설이던 선생과 신덕영 등 대동단 조선지부원들은 1920년 10월 27일 광주군 노천면(老泉面) 양림리(揚林里) 유한선(劉漢先)의 집에 모여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해 반을 나누었다. 제1반은 화순군·나주군 방면으로서 박일봉·이윤호가 맡고, 만약 이변이 있을 경우 화순군 동북면의 오(吳)씨 집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제2반은 담양군·곡성군 방면으로서 선생과 신덕영·노기준이 맡으며, 이변이 있을 경우에는 곡성군(谷城郡) 옥과면(玉果面) 합강리(合江里)의 고인식(高仁植)의 집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반에 편성된 선생은 장난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신덕영·노기준과 함께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선생은 첫째 11월 2일 곡성군 제면(第面) 칠보리(七寶里)의 심운택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 1,500원을 요구하고 1,000원은 11월 10일, 500원은 11월 15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11월 2일 곡성군 화면(火面) 조양(朝陽)의 신대선(辛大善)의 집에 가서 1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11월 10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11월 3일 곡성군 삼기면(三岐面) 월경리(月境里)의 정호억(鄭鎬億) 집에 들어가 100원을 요구하여 11월 16일 임곡역(林谷驛)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넷째 11월 3일 월경리의 정호필(鄭鎬弼)의 집에 가서 200원을 요구하여 100원을 수령하였다. 다섯째 11월 4일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유곡리(維谷里)의 박종호(朴宗鎬)의 집에 가서 집안사람을 전부 묶고 장난감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여 1,000원을 요구하여 40원을 모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모금활동을 경찰이 알게 되었고 경찰은 선생 일행을 수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알게 된 연락반원 노석중은 급히 노상영(盧庠永)을 선생과 신덕영, 노기준에게 보내 경찰의 수사사실을 알렸다. 다행히 신덕영은 수집한 자금을

갖고 도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선생은 11월 5일 자동차로 전남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체포되었다.

선생이 체포된 후 신덕영과 다른 대동단 조선지부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었다. 이들은 3·4개월의 조사 후 기소되었고, 공판이 1921년 3월 8일에서 3월 17일로, 다시 변호인의 요청으로 4월 26일로 연기되며 신중히 다루어졌다. 공판에서 선생과 신덕영 등의 대동단 조선지부의 단원들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밝혔다. 선생은 1921년 5월 31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항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13일에 개최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 결국 선생은 대구형무소에서 수년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 3)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 조직과 송금차량 탈취 의거

선생은 수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6년 11월 15일 7년형을 받았지만 1924년의 은사로 대구형무소에서 나왔다. 선생은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에서 1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즈음에 아내 안씨와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기가 큰 뜻을 품고 해외로 건너가 활동할 때에 자기 장래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928년 4월 서울에 올라와 신덕영의 처 오씨를 만났다. 오씨는 선생의 출옥 사실을 하북성(河北省)의 석가장(石家莊)에 있는 신덕영에게 알렸고, 신덕영은 선생에게 연락하여 곧 중국으로 오라고 하였다. 선생은 1928년 음력 4월 신덕영의 처 오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발한 후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에서 신덕영을 만났다.

이후 선생은 태원부(太原府) 해자변(海子邊) 문패(門牌) 3호에서 신덕영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선생과 신덕영은 비행기조종사로 활동하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일본에 대한 민족적 분개를 느껴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태원에서 염석산(閔錫山)의 비행기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던 안창남(安昌男)을 알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한인들은 1926년 북경(北京)에서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를 조직한 후 1927년 9월까지 관내(關內)의 상해(上海)·광둥(廣東)·무한(武漢)·남경(南京) 등지에서 유일독립당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만주(滿洲)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선생은 1928년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 태원에서 신덕영, 안창남 등과 함께 '함께 소리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하였다.

대한독립공명단은 단장, 부단장 외에 재정부, 정치부, 군사부를 두고 있었다. 단장은 안혁명(安革命)이었고, 부단장은 신덕영이었으며, 재정부장은 이영(李英)이었다. 선생은 재정부 부원이었다.

대한독립공명단은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염석산(閔錫山) 등에게 원조를 받고, 일본의 편산잠(片山潛) 등의 후원을 받으며, 국내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15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의 남경(南京), 섬서(陝西), 포두(包頭)의 세 곳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청년장교를 교육시켜 5개 사단 75,000여명의 병사를 양성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군인이 양성되면 40,000명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침입시키고, 35,000여명의 병력을 평안북도 방향으로 침입시켜 일본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독립군이 중·소지역으로 도피하여 일본군이 추격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소련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침입에 호응하여 국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명단은 이 거대한 독립운동론을 실현하는 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라도 계속 수행하기로 다짐하였다.



안창남



대한공명단원 김정련

선생은 공명단의 독립운동론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단원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선생은 1928년 음력 9월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정련(金正連, 1894년생)을 석가장에서 만나 공명단에 가입시켰다. 또 김정련으로 하여금 신의주부청에서 활동하던 이선구(李善九)를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선생은, 공명단이 중국 산서성(山西省)의 독군(督軍)인 염석산(閻錫山), 북경시장 하기공(何基鞏)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얻으려던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1928년 음력 9월 경춘가도의 우편차량을 탈취하여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을 선생 자신과 김정련이 추진하도록 명령을 받고, 안창남으로부터 콜트식 권총 1자루와 탄환 14발, 모젤 권총 1자루와 탄환 10발을 수령하였다(김정련은 로얄 자동권총 1자루와 탄환 12발을 수령).

선생은 1928년 말, 다음해인 1929년 5월 서울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리므로 서울에 들어가 일본의 고관과 관헌을 살해하고 아울러 송금차량을 탈취하여 공명단의 존재를 알리고 한꺼번에 다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작정하였다. 선생은 1928년 음력 10월 산서성 태원에 있던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은 후 1928년 음력 12월 15일 신덕영과 작별하고 김정련과 함께 입국하기 위해 석가장(石家莊)에 갔다. 그곳에서 김정련이 천진(天津)에서 일본총영사관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신덕영은 먼저 북경(北京)의 순지문(順智門) 밖에 거주하던 김정환(金政煥)에게 충을 맡기고 천진으로 갔다.

그런데 선생은 천진에서 김정련이 일본총영사관에서 풀려나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생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당고(塘沽)를 거쳐 1929년 2월 18일 대련(大連)에 도착하였다가 갖고 있던 돈이 문제가 되었던지 수상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선생은 천진의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월 25일 석방되었다.

선생은 북경으로 가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세 자루를 수취한 후 3월 6일 경 북경을 출발하였다. 선생은 봉천(奉天)으로 가면서 신의주 외곽 중지도(中之島) 머

무르던 김정련에게 입국계획을 알리고, 봉천에서는 김정련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3월 7일 단동역에 도착할 것임을 알렸다. 그리하여 선생은 3월 7일 밤 8시 경 단동역에서 김정련을 만나게 되었다.

선생은 김정련과 단동역 근처의 송관여관(松坂旅館)에서 이틀간 묵고 동월 9일 해동여관(海東旅館)에 옮겨 투숙하면서 김정련으로 하여금 이선구의 공명단 가입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3월 13·4일 경 이선구의 공명단 가입을 승낙받았다. 최양옥은 해동여관에서 김정련과 이선구를 자주 만나 경춘가도의 송금차량 탈취의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을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선생은 국내에서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29년 4월 4일 김정련과 함께 평북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봉덕리(鳳德里) 43번지에 위치한 김정련의 17촌 조카인 김인옥(金仁玉)의 집에 찾아가 강도로 위장하고 160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4월 7일 해동여관에 모여 숙박비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40원을 여비로 삼아 서울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선생은 4월 8일 오후 2시 경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신의주에 들어온 이들은 이선구의 집으로 찾아가 출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선생은 1929년 4월 9일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7시 5분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선생은 10일 오전 7시경에 서울에 도착한 김정련, 11일 오전 10시경에 서울에 도착한 이선구와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사가 지체되었다. 그러다가 4월 16일 선생과 김정련이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인 4월 17일 오전 11시 경 선생 일행은 서울역 황금정(黃金町) 2정목(丁目)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63번지 잡화상에서 삼숫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楊州郡) 구리면(九里面) 교문리(橋門里)에서 내려 양주군 미금면(湊金面) 평내리(坪內里)의 안칠성(安七

星)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도착하여 1박하였다. 이곳에서 선생은 이선구에게 모질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넘겨주고 사격술을 교수하였다.

다음날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선생 일행은 양주군 미금면과 화도면(和道面)의 경계인 마석(麻石, 마치)고개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춘천방면으로부터 오는 차량을 감시하기에 용이한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 다음과 같이 실행과 도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편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실행방법과 도주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실행방법

- (가) 우편자동차가 오면 이선구는 자동차를 향해 우측에 정지하여 손을 들어 이를 세울 것.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한 후 정차시키고 운전대에 올라 운전을 한다.
- (나) 최양옥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고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총으로 협박, 정차시키고 즉시 운전사를 소지한 삼숫줄로 포박한다.
- (다) 김정련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고 양옥 등보다 금곡(金谷)으로 향해 2·3정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여 경성(京城)방면에서 오는 자동차, 기타 통행인의 경계를 하고 만일 우편자동차가 정차하지 않을 때는 권총으로 협박하여 정지시킬 것.
- (라) 그리하여 우편물간 안으로 들어가 빨간 행낭을 찢고 현금을 탈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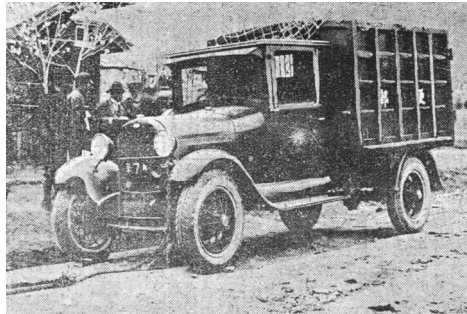
### 도주방법

- (가) 실행 후 제1안으로서는 범행 후 양주군 의정부를 거쳐 장단군 고랑포로 나와서 황해도로 들어가 점차로 국경으로 도주하여 안동현(현 단동시)에 도착하여 후사를 도모할 것.
- (나) 제2안으로서는 즉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성에 잠입하여 기회를 보아 철도로 안동현으로 도주하고 후사를 도모할 것.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의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 경 고갯마루 아래의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계획에 따라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 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정차시켰다. 우편차량이 정차하자 선생과 이선구는 즉시 차에 뛰어올라 선생은 운전자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숫줄로 그를 묶어 조수석에 앉힌 후 이선구가 운전을 하여 금곡(金谷)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 때 마석고개 내리막길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던 오성(五星)자동차 소속의 447호 자동차와 만나자, 선생 일행은 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발화장치를 파괴한 뒤 운전사와 승객을 그 차의 상자 안에 감금하였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4·5인도 제지하여 그 차의



당시 경성우편국 제7호 피해차량  
(『동아일보』 1929.4.18)

상자에 감금하였다. 이 사이 선생은 김정련과 우편차량의 뒷 칸에 실은 우편행낭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생은 김정련과 차량에 감금한 승객으로부터 33원을 획득한 후 오성자동차의 운전자 백남성(白南星), 승객인 이규면(李圭冕)에게 ‘대한독립공명단 만세’를 세 차례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였다.

선생 일행은 미금면 평내리 입구에서 도피하려던 때에 마침 춘천발 서울행 선일자동차(鮮一自動車)가 오자 이를 세워 운전할 수 없게 만든 후 승객으로부터 현금 20여원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선생 일행은 우편송금차량의 운전자 김영배와 선일자동차의 운전자 이기선(李起善)을 데리고 천마산으로 도피 중 평내리 뒷산에서 운전사들을 돌려보내고 오후 2시 30분 경 천마산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선생 등은 천마산 정상에서 만일을 위하여 자금을 분배하고, 경계가 엄중하므로 배로 뚝섬(蘆島)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계획하였다. 선생 등은 19일 새벽 양주군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의 임희종(任熙宗)의 집에 도착한 후 인근의 암굴에 은거하면서 그로부터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저녁에 한강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려고 오후 8시경 임희종의 집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받게 되었다.

도피 중 일행에서 떨어진 김정련은 20일 오전 0시 20분 그곳 인근의 독립가옥에서 체포되었지만, 선생은 이선구와 20일 오전 6시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덕소리(德沼里) 동쪽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이후 선생과 이선구는 20일 오전 9시 30분 경 망우리 고개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 경(京) 제408호를 정지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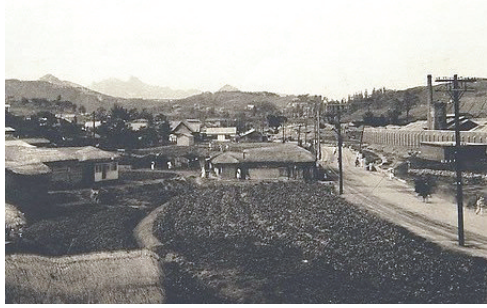
서울의 황금정(黃金町) 5정목(丁目)에 도착한 선생과 이선구는 본정통(本町通) 4정목 경성암(京城庵)에서 닭고기계란밥과 맥주를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오전 10시 경 감옥에서 알게 된 정국민(鄭國敏)이 있던 적선동 북일여관(北一旅館) 앞에 내려 이선구는 북일여관에 은거하고, 선생은 체부동(體弗) 118번지에 거주하던 친척 최상하(崔相夏)의 집에 은거하였다.



이선구가 은거하였던 북일여관  
(『동아일보』 1929.4.22)

그렇지만 선생은, 이선구가 4월 20일 오후 11시 경 황금정 1정목의 친구 이명구(李命求) 집에서 체포되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탓에, 4월 21일 오전 5시 30분 최상하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다. 선생은 체포될 때, 일본경관이 들이닥쳐 자신을 붙잡고 총을 찾으려고 허둥대자 “총은 이불 속에 들어있다”고 하며 총 있는 곳을 가리킬 정도로 태연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체포된 선생 일행은 경기도경찰부로 넘겨져 조사받은 뒤 1929년 5월 10일 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10여 일간 조사받고 5월 20일 경 기소되었다.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예심에 부칠 필요 없이 즉시 재판에 회부되었다.

9월 6일 열린 재판장에서 선생 등 세 명의 동지는 굳은 악수로써 인사를 나누는 당당함을 보임으로써 민족의 기개를 드러내어 보였다. 선생은 1929년 12월 13일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최양옥 선생이 옥고를 치른 마포 경성형무소 앞

1939년 12월 13일 만기출옥한 선생은 서울 사촌의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냈다. 광복 후 1948년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의 서무과장으로 6개월 근무하다가 1949년 인천소년형무소장으로 승진되어 인천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그만두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선생은 1962년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수여받고 이후 훈장체계 변경 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훈격이 변경되었다. 선생은 만년을 동지들과 기념사업에 참석하거나 옛 동지인 이선구의 묘소를 찾는 등의 활동을 하며 보내다가 1980~1982년에는 선산이 있는 황성군 갑천면 전천리로 내려와 선친의 묘소를 오가며 마지막 효성을 다하고 1983년 음력 5월 4일 영면하였다.

선생은 국립묘지보다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전천리 산 164번지에 묻히기를 희망하였다. 지금 선생은 전천리의 낮은 야산 남향의 양지바른 묘소에 안장되어 조국의 발전된 앞날을 기원하고 있다.



최양옥 지사의 묘역

선생의 묘비는 1984년 4월 15일에 세웠으며, 아들 돈용(墩用), 돈수(墩壽), 돈진(墩辰) 삼형제가 세웠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애국지사강릉최공양옥지묘



최양옥 선생이 살던 집(1980년 초)과 집터에서 본 앞으막한 선산(선생과 부친이 잠들어 있는 곳)

지사(志士)는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시어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시어 1917년 동교(同校)를 졸업하였고 동년(同年) 3월에 서울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하시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民族精神)과 항일사상(抗日思想)이 투철한 지사는 독립투쟁(獨立鬪爭)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시어 동지(同志)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天道敎人)들과 합세(合勢)하여 동월 11일 횡성읍 장날에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셨다. 그 후 지사는 일경(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갖은 고생을 겪다가 상경(上京)한 후 만주(滿洲)에서 이동녕(李東寧)·박은식(朴殷植)으로부터 군사금모집(軍資金募集)의 지령(指令)을 받고 서울



애국지사강릉최공양옥지묘

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창립하던 신덕영(申德永)을 만나 1920년 7월 서울 소격동(昭格洞) 신덕영의 집에서 신덕영·노형규(盧衡奎) 등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하였고 지사는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募集員)으로 가장하고 전남(全南) 각지(各地)에서 많은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로 보내었다. 지사는 다시 신덕영(申德永), 노기준(盧基準)과 같이 전남 담양군(潭陽郡) 및 곡성군(谷城郡)에서 군자금 모금에 진력(進力)하던 중 동년 11월 5일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光州)로 가던 도중에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 출감(出監)하였다. 출감 후 귀향(歸鄉)하여 부친은 4개월 전에 별세(別世)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형편은 말할 수 없었으나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몸을 바친 지사는 불고가사하고 고국(故國)을 떠나 만주(滿洲)로 망명하여 중국(中國) 산서성(山西城)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南)·이용화(李容華)·김정연(金正連) 등 여러 동지(同志)와 더불어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한 후 단장(團長)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신덕영·김정연 등과 북만(北滿)에서 독립군(獨立軍) 비행사(飛行士)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飛行學校)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모집과 서울에 공명단지부(共鳴團支部)를 설치(設置)하고자 김정연(金正連)·이선구(李善九) 등과 같이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여 첫 번째 행동으로 동월 20일 지사는 김정연·이선구와 함께 서울교외 망우리(忘憂里)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가는 일우편물수송차(日郵便物輸送車)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그리고 지사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日人)의 우편물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동포(同胞)의 우편물만 남겨 두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차를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열좌시키니 70여 명이였다. 이같이 산 밖



으로 정보(情報)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이어) 이 급보(急報)를 받은 일경(日警)은 경기·황해·강원·충북·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군(日軍) 제19사단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양주를 포위함에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일주야(一晝夜)를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으나 단환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 세궁력진하여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지사는 징역 10년의 언도를 받고 김정련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病死)하고 지사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만기(滿期)출옥하였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에 승진(昇進)되어 근무하였다. 서기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을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받았다.

서기 1893년 음력 12월 5일생  
 서기 1983년 음력 5월 4일졸  
 아들[자] 돈용(燾用) 돈수(燾壽) 돈진(燾辰)  
 서기 1984년 4월 15일 건립

1992년 11월에 세운 공적비도 있는데,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박한설 교수가 글을 짓고 황성군민이 정성을 모아 세운 비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

선생의 자는 길준이요 호는 추강이니 본관은 강릉이다. 1893년 음력 12월 5일에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부친 최재건공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17년 2월에 강원(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에 서울의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청년들을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함께 황성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왜경들의 발포로 사상자가 나고 검거가 시작되므로 선생은 이를 피하여 상경한 후 본격적인 독립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1920년 7월에 선생은 서울 소격동에서 신덕영, 노형규 등과 부한청년회를 조직한 후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전남의 담양 곡성 등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냈는데 이해 11월 5일에 동지 노기준 등과 함께 왜경에게 체포되어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

다음해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에 출감하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이용필 등과 공명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는데 1927년에 북만주에 독립군비행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기금 모집과 공명단 지부 설치를 목적으로 1929년 4월에 서울에 잠입하였다. 선생은 동지 김정련 이선구와 함께 동월 20일 서울근교 망우리에서 춘천으로 왕래하는 일제 우편수송차 등을 권총으로 습격하여 왜인의 우편물을 소각하고 많은 금품을 압수한 후 천마산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 급보를 받은 일제는 경기 강원 황해 충북 충남 5도의 경찰과 왜군 19사단병력을 동원하여 천마산을 포위하니 선생일행은 이들을 상대로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며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이 떨어지고 기진맥진하여 왜경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거쳐 9월 20일 선생은 10년, 김정련은 8년, 이선구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는데,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하고 선생은 만기출옥하였다. 광복 후 선생은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인천형무소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1983년 음력 5월 4일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구국 활동에 대하여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 수여하였고 1967년 2월 28 일에는 건국훈장국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승격하여 선생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이제 황성군민일동은 선생의 애국정신과 구국활동을 만세에 기리고 국민의 사표로 삼고자하여 이 비를 세운다.

단기 4325년 임신 11월 20일 문학박사 박한설 지음  
황성군민일동 세움

## 46. 최종하

최종하(崔宗河, 1877~1922)는 강원도 원성군(原城郡, 지금의 원주시)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천도교(天道敎)에 몸담아 1919년 3월 27일의 횡성읍(橫城邑)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거사 직전 천도교 횡성읍 대교구장 신분으로 서울에 가서 손병희(孫秉熙)를 만나 독립선언서 10매를 가지고 돌아온 뒤 김인경(金麟卿) 등 4명과 함께 거사를 계획 추진하였다.

이들은 동지들과 함께 60여 매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해 거사 당일인 3월 27일, 장터에 모여든 300여 명의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독립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 최종하 판결문(징역 6월형)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내리 거주, 동면 영영포리 농업, 최종하, 43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山澤佐一郎)이 간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0일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 읍내에서 손병희가 작성한 조선민족은 자유민으로서 일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립선언서 12매를 교부반자 정치에 관한 불온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취지에 찬성하여, 3월 13일경 횡성군 군내면 영영포리의 신재근 집에서 횡성군 정곡면 상안리 김인경에게 위 선언서 전부를 그 취지를 말하고 교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 검사의 참고 증인 신재근에 대한 신문조서 중 올해 음력 2월 13일 피고가 자신의 집에서 김인경에게 판시 선언서 약 10매 정도를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서라고 말하고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최종하의 공소기가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최종하 판결문(공소기각)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내리 거주, 동면 영영포리 농업, 최종하, 43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소의 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이 관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 [주 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피고 최종하는 대정 8년 3월 10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내리에서 군내면 영영포리로 가는 도중 노상에서 이름을 모르는 자로부터 손병희 외 32명의 작성에 의해 ‘조선민족은 자유롭게 일본의 압박에서 이탈하여 독립되어야만 한다는 취지가 기록된 독립선언서’ 12장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정치에 관한 불온 서면인 것을 알면서 그 취지에 찬동하여 3월 13일 밤 횡성군 군내면 영영포리 신재근 집에서 횡성군 정곡면 상안리 김인경에게 그 선언서 전부의 취지를 알리고 교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정에서 피고가 대정 8년 3월 10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군내면 읍내리에서 횡성면 영영포리로 가는 길에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손병희 외 32명이 작성한 ‘조선민족은 자유로이 일본의 압제에서 이탈하여 독립해야만 한다는 뜻이 기재된 독립선언서’ 12장의 교부 받고, 동 선언서가 정치에 관한 불온 문서라는 것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동월 13일

이를 신재근 집에서 김인경에게 교부했다는 뜻의 공술, 검사의 참고인 김인경에 대한 조서 중 자신은 올해 음력 2월 13일(양력 3월 13일) 밤 신재근 집에서 피고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 11, 12통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는 특별히 이를 다른 곳에 배부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자신에게 이를 교부한 의도는 타인에게 배부하라는 의도였다는 뜻, 검사의 참고인 중 신재근에 대한 조서 중 피고는 올해 음력 2월 13일 밤 자신의 집에서 김인경에게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서라고 칭하여 그 선언서 10장 정도를 교부했다는 뜻 및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가 대정 8년 음력 2월 13일경 신재근 집에서 김인경에게 조선독립선언서를 교부한 자신은 선언서 내용을 승낙한 후 조선독립 취지에 찬동한 결과 인경에게 배부한 것이라고 여겨져도 할 수 없다는 뜻의 각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 판결은 위 판시 취지에 적합하고 정당하므로 피고의 공소는 이 유가 없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정 8년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 -

### 최종하의 판결문(상고기각)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내리 거주, 동면 영영포리 농업, 최종하, 43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상고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

독부 검사 초장임오랑의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본 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 취의는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 판결에 기재된 원심인정의 사실은 원심적용의 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며 원심이 피고의 소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타당하다. 논지는 자신의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 개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그 소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함에 지나지 않으며 정당함이 있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다.

위 설명과 같이 본 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8월 14일  
고등법원 형사부

## 47. 추병륜

추병륜(秋秉倫)은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출신으로, 당시 45세로 황성 천도교교인으로 황성의 3·1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연락책임자로 활약하다가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48. 탁영의

탁영의(卓英儀, 1922~2009)는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운엽(雲燁)이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1943년 10월 일제에게 강제로 징집당하여 중국 남경지구(南京地區) 주둔 일본군부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중국 중경(重慶)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光復軍)이 있다는 정보를 일본군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여 1944년 5월 일본군을 탈출한 후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탁영의 애국지사

1945년 4월 중국 중경에 도착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호부대인 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警衛隊)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동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49. 탁영재

탁영재(卓英才, 1919;53세~1941)는 강원도 횡성 출신이다. 그는 1919년 3월 27일 강원도 횡성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애국단이라 불렸다. 대

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이 설치된 것은 1919년 8월 중순경으로, 처음에는 철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강원도단은 양양·강릉·평창 등지에 군단을 설치하며 강원도의 각처에 조직을 발달시켜 갔다. 이러한 철원애국단은 임시정부의 국내조직인 연통부(聯通府)의 체계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 및 군자금 모집 등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통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철원애국단에서는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하하는 만세시위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면, 단원을 임시정부에 파견하면서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은 1920년 초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하였는데, 탁영재는 이 일로 일정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탁영재의 조카 탁연복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4.19혁명은 기미년 3·1운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 투쟁이었다. 또한 5.16군사독재정권 당시의 6.3학생운동도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투쟁인 동시에 민족정신운동이며, 민주화투쟁이었다. 보잘 것 없는 나 하나의 희생정신으로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자 나는 이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탁영재의 조카 탁연복

나는 어릴 적부터 선친께서 당신의 지난날 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민족정신을 뿌리 깊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큰아버지 탁영재 장로께서는 기미년 3·1운동 때 강원도 횡성에서 감리교회 교인을 주축으로 시위를 주도하셨고 그 후 철원애국단에 가담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시다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투사요 독립운동가였다.

선친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큰아버지가 권총을 휴대하고 상해임시정부로 잠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왜경들이 큰아버지댁에 들이닥쳐 천장과 벽장 등을 샅샅이 뒤져 권총을 찾으려 했으나(그 당시 뒤뜰 석류나무 밑에 묻어 두었다고 함) 권총을 발견 못한 채 왜경은 그냥 철수하였다고 한다.

5촌되시는 탁영의(탁천복) 아저씨는 장준하 선생과 같이 김구 선생 밑에서 광복군으로 활약하셨고(건국훈장 수혜), 선친께서도 강원도 횡성읍내 장날인 시장 통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큰아버지를 따라 관공서와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가하셨다.

나의 어머니 박성준은 평안남도 박촌 출신으로 경기도 양평군 용머리에 이사와 살면서 나이 어린 19세 권씨와 함께 동네마을 뒷동산의 상여 보관하는 곳집을 모이는 장소로 하고 곳집에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권씨는 왜경 총에 맞아 시위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용머리 주동인물)하였고 어머니는 도망치다가 왜경에게 붙잡혀 미루나무에 거꾸로 매달리어 못매를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난 나는 뼈 속 깊이 민족정신을 새기게 되었고 주위의 이러한 영향으로 운동권에 뛰어들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50. 하영현

하영현(河永賢, ?~1919)는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27일 횡성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강만형 애국지사가 일본헌병에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둔둔리 주민들을 인솔해 같은 해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을 벌이던 중 순국했다. 그의 묘소가 횡성읍 모평리에 소재해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제 3 장

## 독립운동

### 관련 자료

부록 1 3·1운동참여자 판결문

부록 2 애국지사 강성순 재조명

부록 3 횡성 3·1 운동기념비 기사

부록 4 강원의 인물

    횡성 독립운동가 최양옥

부록 5 2017 횡성 관내 향토시발굴

    자료조사

부록 6 신문기사로 본 횡성의병과

    독립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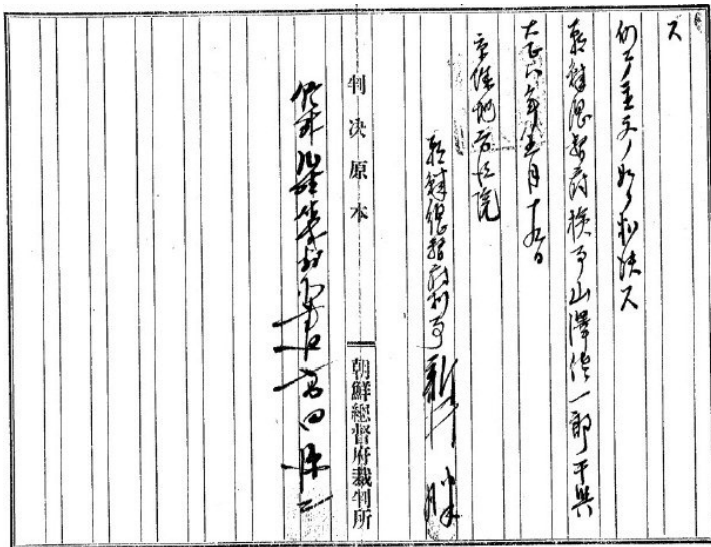
부록 7 횡성향일민족운동 연표

부록 8 춘천 중학생의 독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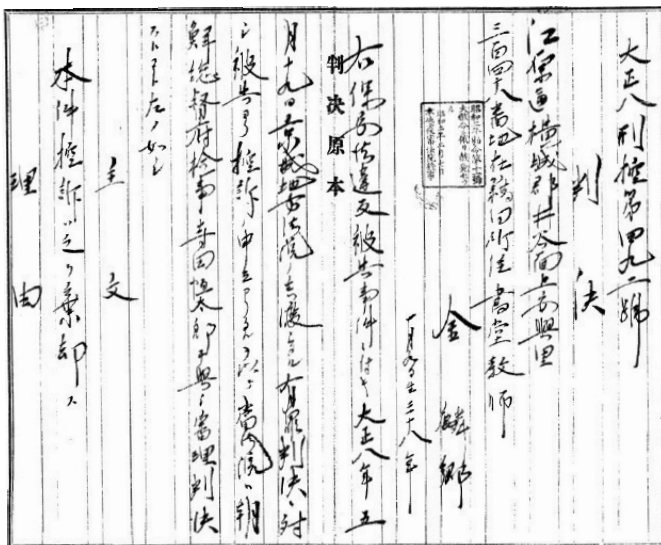








2. 김인경의 판결문(공소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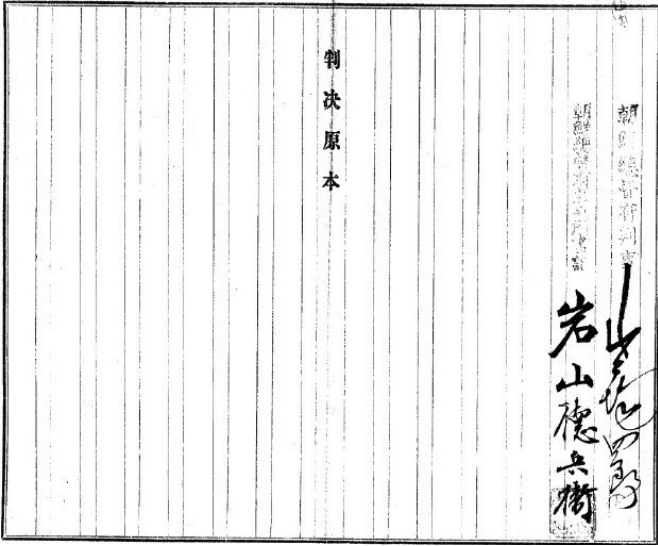


被告八年前より天道教徒として在  
 在處大正八年正月十日(大正九年正月十日)江原  
 道横城郡横城面水之浦里天道教止回  
 教師由在被告は、横城大教區長生  
 宗河より原告書し題に天道教主孫家  
 親外三十一名を義う以て、朝鮮、韓立を定言し  
 自一若後、一刻、裁後、又、至二三奮闘  
 判決原本

以上、被告、當公進、能く被告、判示し  
 口一被告、自供、敵に之を認是又  
 法律に照し、被告、所為、保身防身  
 七條朝鮮刑罰令第四十二條、該當する以上  
 之罪二重以下、懲役刑、選擇し、其  
 中、第一、能く被告、懲役八月、處す  
 判決原本

被告一、京判決、初審より被告、控  
 訴、理由として、刑罰訴訟法第六十二條一  
 條を以て、刑罰訴訟法第六十二條一  
 條を以て、是文、如く判決す  
 大正八年六月十日  
 京城覆審法院判事、爲す

朝鮮總督府判事  
 大正九年六月十日  
 大正九年六月十日



3. 김인경의 판결문(상고기각)

大正八年刑上第 四三三號  
 判決書  
 江原道橫城郡升谷面上安興  
 里二百四十八番地書堂教師  
 被告人 金 麟 鄉  
 大正八年

高等法院  
 右保安法堂及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六月  
 十一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  
 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  
 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  
 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 由  
 上告趣意ハ自己ノ行為ハ朝鮮民族トシ  
 テ正義人道ニ害ク意思發動ニシテ犯罪

高等法院  
 ニテラス然ルニ第一審及第二審ニ於テ受ケ  
 タル刑罰ノ判決ハ不當ニシテ服從スル能ハ  
 サル違法ノモノナリ依テ上告スト謂フニ在レト  
 モ原告判決ニ記載スル如ク原告審認定事  
 實ハ原告審適用ノ法條ニ該當スル犯罪ヲ  
 構成スルコト明白ナレハ原告審カ被告ノ所為  
 ニ對シ同法條ヲ適用ハ斷シタルハ相當ニシ  
 テ論旨ハ自己ノ意見ニ基キ其所為犯罪  
 トナラサルコトヲ論述スルニ過キヤルヲ以テ採  
 用スルニ足ラス











初告人 兩宮瑞、同季煥南、同文世敏、同龍煥孫、同白興基、同智圭東、  
同興根、同曹興泰、同李和地、同張珪濬ヲ 啓役二年六月ニ各退ス  
被告人 金洪基、同軍桂環ヲ 啓役一年六月ニ各退ス  
各請告人等ノ末次幼留日數中百八十日ヲ石各本刑ニ 算入ス  
被告人 金洪基、同軍桂環ニ對シテ 傳聞石刑ノ執行ヲ 發露ス

761  
被  
告  
人  
由  
一 某告人 兩宮瑞ハ 春川公立普通學校ヲ 昭和八年四月公立春川高等普通  
學校ニ 現春川中學校以下 春川高等ト 略稱ス。ニ入學シ 昭和十三年三月三日  
校卒業同年四月京城ニ 府府長前赴 警政監官 教育確學校ニ入學 同年十月同校ヲ  
退學シタルモナルカ 石春川論著人 李煥ヨリ 民族主義者亡 兩宮感ノ 感化ヲ

762  
被  
告  
人  
由  
一 某告人 兩宮瑞ハ 春川公立普通學校ヲ 昭和八年四月公立春川高等普通  
學校ニ 現春川中學校以下 春川高等ト 略稱ス。ニ入學シ 昭和十三年三月三日  
校卒業同年四月京城ニ 府府長前赴 警政監官 教育確學校ニ入學 同年十月同校ヲ  
退學シタルモナルカ 石春川論著人 李煥ヨリ 民族主義者亡 兩宮感ノ 感化ヲ

被  
告  
人  
由  
一 某告人 兩宮瑞ハ 春川公立普通學校ヲ 昭和八年四月公立春川高等普通  
學校ニ 現春川中學校以下 春川高等ト 略稱ス。ニ入學シ 昭和十三年三月三日  
校卒業同年四月京城ニ 府府長前赴 警政監官 教育確學校ニ入學 同年十月同校ヲ  
退學シタルモナルカ 石春川論著人 李煥ヨリ 民族主義者亡 兩宮感ノ 感化ヲ

被  
告  
人  
由  
一 某告人 兩宮瑞ハ 春川公立普通學校ヲ 昭和八年四月公立春川高等普通  
學校ニ 現春川中學校以下 春川高等ト 略稱ス。ニ入學シ 昭和十三年三月三日  
校卒業同年四月京城ニ 府府長前赴 警政監官 教育確學校ニ入學 同年十月同校ヲ  
退學シタルモナルカ 石春川論著人 李煥ヨリ 民族主義者亡 兩宮感ノ 感化ヲ

被  
告  
人  
由  
一 某告人 兩宮瑞ハ 春川公立普通學校ヲ 昭和八年四月公立春川高等普通  
學校ニ 現春川中學校以下 春川高等ト 略稱ス。ニ入學シ 昭和十三年三月三日  
校卒業同年四月京城ニ 府府長前赴 警政監官 教育確學校ニ入學 同年十月同校ヲ  
退學シタルモナルカ 石春川論著人 李煥ヨリ 民族主義者亡 兩宮感ノ 感化ヲ











点ニテ  
及テ

備上被告人南宮邦ハ派下期シ明感ノ現狀ハ日本ノ威權ニ兩シ居ルヲ以テ此ノ庭觀者ト抗爭セサルヘカナル旨演説シ被告人熊煥珪ハ死ト斷シ曹國ハ死シテ後世ニ其ノ名ヲ遺スヘク朝鮮獨立運動ニ邁進セサルヘカナル旨ノ演説ヲ爲シ

(四)被告人南宮邦、同李耀南、同文世鉉、同鄭煥珪、同白興基、同曹李興六名ハ昭和十三年二月五日午後七時頃ヨリ春川邑昭陽通二丁目被告人熊煥珪五方ニ於テ被告人金洪基、同車柱源並會員李登榮、李炳柱ト會合シ其ノ席上被告人南宮邦ハ各自卒業後ノ活動方針ニ付所感ヲ述ヘテ會員ヲ激勵シ被告人李耀南、同白興基兩名ハ卒業後漢南ノ豫定ナルモ何レノ地ニ赴クトモ朝鮮民族ノ爲メ活動スヘキ旨所觸テ連ヘ引續キ前被告人六名ハ

十二

過去一年間ニ於ケル同志獲得其ノ他會ノ爲メ活動シタル狀況ヲ報告シ、(四)被告人南宮邦ハ常務會引繼進催トシテ昭和十三年二月頃被告人李潤福ト協議シ上會員獲得ヲ企圖シ其ノ引被告人李潤福ヲシテ春川高香校庭ニ於テ被告人申治源及同族生崔相基、朴泰輝三名ヲ勸誘セシメテ之ヲ常務會ニ加入セシメ

(四)被告人南宮邦、同李耀南、同鄭煥珪三名ハ同年三月一日午後七時頃ヨリ被告人南宮邦方ニ於テ被告人金洪基、同李潤福、同申治源並會員李登榮、李炳柱、崔相基等ト會合シ常務會引繼進催シ其ノ席上被告人南宮邦ハ過去一年間常務會幹部トシテノ所感ヲ述ヘ會員ノ慰勞ヲ見タルハ幹部ノ手続ニ缺タル處アルト同時に會員ノ熱意不足ニ起因スル處ナルヲ以テ

点ニテ  
及テ

後議員ニ對テハ會ノ精神ヲ把握シ會ノ目的達成ニ努力セラレ度キ旨ノ演説ヲ爲シ常務會ノ番頭十數擧ヲ被告人李潤福ニ引繼キ散會後被告人南宮邦、同李耀南、同鄭煥珪三名ハ被告人李潤福、同申治源兩名ヲ居殘ラシメ右兩名ニ別シ常務會引繼進催ノ注意トシテ會員ノ連絡ハ彼ノ方針ヲ堅持シ演ノ連絡ヲ禁止スルコト、會員等證據トナルヘキ書類ハ絕對作成セサルコトヲ指示シ

(四)被告人南宮邦ハ同年七月二十四日午後七時頃ヨリ春川邑昭陽通二丁目申好必方ニ被告人李潤福並會員朴泰輝、崔相基、李耀南、李萬雨、李源均等ヲ集合セシメ最近農村ノ經濟狀況ヲ時局ノ爲メ高率税金ヲ賦課セラレ又ハ府金ヲ強取セラレテ農民ノ不平其ノ極ニ達シ居リ之等農民ヲ救済

十二

スルハ吾等青年ノ責務ナル旨ノ演説ヲ爲シ民族主義思想ヲ鼓吹シ以テ夫々奮起勸進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

第三、(四)被告人金洪基ハ富裕ナル家庭ニ育チ鄭風平康公立普通學校卒業後昭和八年四月春川高香ニ入學シ昭和十三年三月三日同校卒業同年四月八日京城府所在私立「セブランス」醫學專門學校ニ入學シタルモノナルカ春川高香三年生ノ頃同校同族勸諭ノ朝鮮人ヲ侮辱シタル暴言ニ對答セラレテ擧日果烈ヲ抱懷スルニ至リ爾來宗室東其ノ非ノ民族主義的文獻ヲ覽スルニ及ヒ民族主義思想ヲ研索シ朝鮮ノ獨立ヲ希望スルニ至リタルモノナル處昭和十二年四月頃被告人李潤福ノ勸誘ニヨリ演習會方我國體ヲ崇拜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組織セラレタル組織ナルコトヲ知り乍ラ之ニ

加入シ

(1) 被告人南宮均外七名ニ對スル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一回月例会ニ出席シ其ノ席上「警察官吏」ノ體裁悉トシテ始末六忠臣ノ意氣ト熱トハ吾々會員ノ學ヲヘキ處ニシテ二度決定シタル目的ハ如何ナル困難ニ遭遇スルモ斷乎トシテ之ヲ實行スベキモノナル旨強調シ其他同上記載ノ如ク會會ノ變更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協議シ

(2)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三回月例会ニ出席シ同上記載ノ如ク常務委員廿ニ就任シ其ノ使命ヲ活動方針ニ付協議シ

(3) 前同犯罪事實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ケル常務委員ノ會合ニ出席シ過去一年間ノ活動狀況ニ付報告ヲ爲シ

(4)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常務委員召集會ニ出席シ

以テ前記結社ノ目的遂行ノ爲メニスル行爲ヲ爲シ

(5) 被告人草津屋ハ富嶺ナル家庭ニ育チ春川公立普通學校卒業後昭和八年四月春川高書ニ入學シ昭和十三年三月同校ヲ卒業シタルモノナルカ同校五年生ノ頃被告人李福南、同所宣傳兩名ノ指導感化ニヨリ民族主義思想ヲ抱懷スルニ至リタルモノナル處昭和十二年四月頃被告人南宮均ノ勸誘ニヨリ論議會ガ我國體ヲ榮光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組織セラレタル結社ナルコトヲ知り年々之ニ加入シ

(1) 被告人南宮均外七名ニ對スル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一回月例会ニ出席シ其ノ席上「ハルビン鐵頭ノ銳撃」ノ體裁悉トシテ安東軍カ伊藤博文ヲ暗殺スルニ當リ安東軍ヲ敬慕シタル朝鮮獨立黨員ガ安東軍ノミニソンヲ實ヲ至ハシメタル無責任ノ行爲ヲ非難シ會員ハ新ハ朝鮮人ノ「靈魂」ヲ打醒セサルヘカカラサル旨ノ演說ヲ爲シ其ノ趣旨同上記載ノ如ク會會ノ變更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協議シ

(2)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二回月例会ニ出席シ同上記載ノ如ク種々協議ノ上役目ヲ決定シ

(3)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三回月例会ニ出席シ其ノ席上古今英雄豪傑ハ如何ナル試験ニモ堪ヘ其ノ人格ヲ完成シタルモノナルコトヲ思ヒ會員ハ朝鮮人ノ立場ヲ認識シ當務委員ノ目的達成ノ爲メ努力スベキモノナル旨ノ演說ヲ爲シ

(4)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四回月例会ニ出席シ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協議シ

(5)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ケル常務委員ノ會合ニ出席シ過去一年間ノ活動狀況ニ付報告ヲ爲シ

以テ右結社ノ目的遂行ノ爲メニスル行爲ヲ爲シ

(6) 被告人李福南ハ貧困ナル家庭ニ育チ春川公立普通學校卒業後昭和九年四月春川高書ニ入學シ昭和十四年一月頃退學シタルモノナルカ同校一年生

加入シ

(1) 被告人南宮均外七名ニ對スル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一回月例会ニ出席シ其ノ席上「ハルビン鐵頭ノ銳撃」ノ體裁悉トシテ安東軍カ伊藤博文ヲ暗殺スルニ當リ安東軍ヲ敬慕シタル朝鮮獨立黨員ガ安東軍ノミニソンヲ實ヲ至ハシメタル無責任ノ行爲ヲ非難シ會員ハ新ハ朝鮮人ノ「靈魂」ヲ打醒セサルヘカカラサル旨ノ演說ヲ爲シ其ノ趣旨同上記載ノ如ク會會ノ變更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協議シ

(2)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二回月例会ニ出席シ同上記載ノ如ク種々協議ノ上役目ヲ決定シ

(3)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三回月例会ニ出席シ其ノ席上古今英雄豪傑ハ如何ナル試験ニモ堪ヘ其ノ人格ヲ完成シタルモノナルコトヲ思ヒ會員ハ朝鮮人ノ立場ヲ認識シ當務委員ノ目的達成ノ爲メ努力スベキモノナル旨ノ演說ヲ爲シ

(4)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催シタル第四回月例会ニ出席シ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協議シ

(5) 前同犯罪事實第二ノ(四)記載日時場所ニ於ケル常務委員ノ會合ニ出席シ過去一年間ノ活動狀況ニ付報告ヲ爲シ

以テ右結社ノ目的遂行ノ爲メニスル行爲ヲ爲シ

(6) 被告人李福南ハ貧困ナル家庭ニ育チ春川公立普通學校卒業後昭和九年四月春川高書ニ入學シ昭和十四年一月頃退學シタルモノナルカ同校一年生

ノ頃當時同校五年生李鴻采、申瑛濬兩名ヨリ民族主義思想ヲ注入セラレ  
爾來「勳鮮」ノ現在ト將來「其ノ他多數ノ民族主義的文獻ヲ耽讀スルニ及  
ヒ濃厚ナル民族主義思想ヲ抱懷スルニ至リ勳鮮ノ獨立ヲ希望シテ」  
ルモノナル處

昭和十二年九月頃被告人李宮珩ノ勳鮮ニヨリ常務會カ勳鮮ヲシテ日本帝  
國ノ編縣ヨリ離脱獨立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組織セラレタル結社ナ  
ルノ情ヲ知り乍ラ之ニ加入シ  
(1)昭和十二年九月頃被告人李宮珩ノ勳鮮ニヨリ春川高學校屬ニ於テ同級生  
崔基洪、金鍊煥、鄭仁鉉、朴逸煥等ヲ夫々勳鮮シテ常務會ニ加入セシ  
メ

被告人李宮珩外七名並製スル犯罪事實第二ノ(7)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  
催シタル第五回例會ニ出席シ其ノ席上勳鮮獨立ノ爲メ一生ヲ獻ケム  
ト志ス者ハ日本國ノ使用ハ金銀禁止スベキモノナル旨強調シテ

(8)前同犯罪事實第二ノ(7)記載日時場所ニ於テ同上勳鮮ノ如ク被告人申瑛  
濬及崔相基、朴泰株三名ヲ勳鮮シテ之ヲ常務會ニ加入セシメ  
(9)昭和十三年二月二十五日午後四時頃ヨリ春川區昭陽路第二丁目朴泰株方  
ニ於テ被告人申瑛濬並會員朴泰株、崔相基、崔基洪、朴逸煥等ト會合  
シ常務會引續準備ノ爲メ引續會ニ於ケル役員ノ選定ヲ爲シ

會 長 被告人李宮珩  
副會長 同 崔相基

書翰係 被告人申瑛濬  
會 計 朴逸煥  
ト決定シ

(5)被告人李宮珩外七名並製スル犯罪事實第二ノ(7)記載日時場所ニ於テ開  
催シタル常務會引續會ニ出席シ同上記載ノ如ク之レカ引續ヲ受ケ  
(6)右常務會引續後副會長崔基洪及會計朴泰株兩名ハ常務會ヨリ脫會シタ  
ヨルヲ以テ同年三月中旬頃前記朴泰株方ニ於テ被告人申瑛濬並會員朴泰  
株、崔相基等ト會合シ種々協議ノ上副會長ハ之ヲ廢止シ會計ハ朴泰株  
兼任スルコト會費ハ月額三十錢トナスコト等ヲ決定シ  
(7)同年五月末頃春川中學校(昭和十三年四月一日改名元春川高書)校庭

ニ於テ被告人申瑛濬ト共同シテ同級生金鼎濬及李慶均兩名ヲ又其ノ頃  
前同所ニ於テ春川中學校三年生金寶瓚ヲ夫々勳鮮シテ常務會ニ加入セ  
シメ

(8)同年六月上旬頃春川區昭陽路第二丁目自宅ニ於テ被告人申瑛濬並會員  
崔相基、朴泰株、金寶瓚等ト會合シ内地修學旅行感想談話會ヲ開催シ  
其ノ席上互ニ現在ノ朝鮮人ノ無自覺ヲ脫キ以テ民族意識ヲ昂揚シ  
(9)同年六月上旬頃被告人申瑛濬方ニ於テ金寶瓚、李慶均、李昌南、南在  
元等ヲ集合セシメ勳鮮廢止ニ對スル感想談話會ヲ開催シ其ノ席上日  
本國ハ一學問ヲシテ修得ノ要アルモ會員同志間志願ヲ於テハ必ス朝鮮語ヲ  
常用スベキ旨導ヘテ民族主義思想ヲ昂揚シ

四同年九月上旬頃會員募集ハ既會ヲ表明シタルヨリ華川中學校々廳ニ於テ被告人申辯會ト會合シ種々協議ノ上役員ヲ推挙シ行ヒ...

會長兼書記 被告人申辯會 會長 李漢均 書記 李漢均

副會長 李漢均 書記 李漢均

評議員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評定委員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李漢均

四同年九月上旬頃華川中學校々廳々廳ニ於テ同校四年生申辯會曰李漢均同校三年生李鳳采ヲ次々勸誘シテ常總會ニ加入セシメ...

四同年九月中旬頃李漢均、申辯會等ヲ勸誘獨立ノ目的トスル「グループ」組織シテ「グループ」ヲ知り右兩名ニ對シテ常總會員ヲ勸誘行依願シ同月二十四日午後一時頃ヨリ春川郡新北面牛頭山上ニ會員李漢均、崔相基、

金寅發、李漢均、南敏元六名ヲ集合セシメ右李漢均、申辯會兩名及其ノ同志タル朴尚弘、李漢均等カ世界ノ情勢、朝鮮ノ現狀等ニツキ激シタル句讀ニテ民族主義思想昂揚ヲ爲メ演說シタルヲ前記會員ニ聽講セ...

四同年十月上旬頃前記基督敎福音堂ニ於テ被告人申辯會員崔相基、李漢均、李漢均、申敏俊、尹漢模、李鳳采、南敏元、金寅發等ト會合シ其ノ席上官界並教育界ニ於ケル内華人差別待遇及異邦問題ニ付當局ノ施設ヲ論議シ其ノ他會ノ活動方針ニ付種々解釋シ...

以テ前記結社ノ目的遂行ノ爲メニスル行爲ヲ爲シ...

如被告人申辯會ハ元江原道警部現司法書士申九餘ノ四男トシテ生レ春川公

立書通事校卒業後昭和九年四月春川萬世ニ入學シ昭和十四年四月頃退學シタルモノナルカ同校三年生ノ崔長兒申辯會ヨリ民族主義思想ヲ注入セラレ且三兄弟申辯會所有ノ民族主義的文獻ヲ傳授スルニ及ヒ民族主義思想ヲ抱懷シ朝鮮ノ獨立ヲ希冀スルニ至リタルモノナルニ...

昭和十三年二月頃被告人李鳳采ヨリ常總會カ勸誘ヲテ日本帝國ノ編譯ヨリ紅龍獨立セルルコトヲ目的トシテ組織セラレタル組織ナルノ情ヲ知り年々之ニ加入シ

(1)被告人李鳳采犯罪事實(前記)日時場所ニ於テ同項記載ノ如ク役員ノ選定ヲ爲シ書記兼任シ

(2)被告人南宮外七名ニ對スル犯罪事實第二ノ項記載日時場所ニ於テ同項記載ノ如ク書記兼任シ

(3)被告人李鳳采犯罪事實(前記)日時場所ニ於テ同項記載ノ如ク役員變更並會費等ニツキ論議シ

(4)同年五月頃華川中學校々廳ニ於テ被告人李漢均ト共同シテ同校生金鳳采及李漢均兩名ヲ勸誘シテ常總會ニ加入セシメ

(5)被告人李鳳采犯罪事實(前記)日時場所ニ於テ同項記載ノ如ク内地修學旅行懇話會ヲ組織シ其ノ席上慶州ノ右翼黨ノ俳優ヲ勸誘シ吾人モ熱誠タニ了マハ何事ヲモナシ得ルモノニシテ朝鮮ヲ往時ノ慶祝ニ復スルハ吾人ノ責務ナル旨ヲ演說ヲ爲シ

(6)被告人李鳳采犯罪事實(前記)日時場所ニ於テ同項記載ノ如ク役員變更





6. 성태현 판결문(상고기각)

大正六年刑上第六四二號

判決書

江原道橫城郡吉院面合一里二百四十七番地居住 合上主 籍農

被告人 成 泰 鉉

二十九年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右 保 安 法 違反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七月二日京 城 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 由

上告趣意ハ自也ノ行為ハ朝鮮民被トシテ王義人遺ニ基ク意思終動ニシテ犯罪ニアラス然ルニ第一審及上告ニ審ニ於テ更ケタル有罪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判決ハ不當ニシテ服從スル能ハサル違反法ノモノナリ依テ上告スト云フニ在リ

然レトモ原判決ニ判示セル被告ノ行為ハ原判決ニ適用セル法條ニ該當スル治安妨害ノ罪ニ構



成スルモノナルヲ以テ原審ヲ其  
 適用セル法條ニ同擬シテ夏罰ニ  
 タルハ正當ナリ被告ニ於テ被告  
 ノ行為ハ罪トナルハヤモノニ非サル  
 旨殊辯ニテ原判決ヲ非議スル  
 ハ採用スルニ足ラサシテ依テ本論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旨ハ其理由ナシ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  
 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六月二十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朝鮮總督府判事 石川 正

朝鮮總督府判事 横田 俊

朝鮮總督府判事 水野 定次

朝鮮總督府判事 早川 正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桑池 徳次郎

岩本 以明

7. 송병기, 성태현, 박민희, 유정근, 이정현, 이두연, 이종우, 김옥봉 판결문

|   |  |  |   |                               |                                       |                                |
|---|--|--|---|-------------------------------|---------------------------------------|--------------------------------|
| <p>判 決</p> <p>本籍地 江寧道 羅城 鄧岩院 西舍 一里 二百五十五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本籍地 江寧道 羅城 鄧岩院 西舍 一里 二百五十五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判 決 原 本</p> <p>朝鮮總督府裁判所</p> <p>四月二十日 二十八年</p> | <p>本籍地 同通 同郡 同邑 同里 二百四十一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成 泰 鉉</p> <p>十月五日 二十九年</p> | <p>本籍地 右同不</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朴 氏 喜</p> <p>九月二十日 四十二年</p> |
|---|--|--|---|-------------------------------|---------------------------------------|--------------------------------|

|  |   |   |   |                               |   |                               |
|--|---|---|---|-------------------------------|---|-------------------------------|
| <p>判 決</p> <p>本籍地 同通 同郡 同邑 同里 二百五十九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本籍地 同通 同郡 同邑 同里 四百九十二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判 決 原 本</p> <p>朝鮮總督府裁判所</p> <p>四月五日 二十六年</p> | <p>本籍地 同通 同郡 同邑 同里 四百九十九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李 斗 錫</p> <p>十月四日 二十九年</p> | <p>本籍地 同通 同郡 同邑 同里 四百九十九畝地</p> <p>現任 右同不 農業 (守宗教)</p> | <p>柳 定 根</p> <p>七月三日 四十二年</p> |
|--|---|---|---|-------------------------------|---|-------------------------------|

李鍾禹

六月廿四日

本居地同通同鄕同而同里百十九家地

現存右何不農家飲食店等

金玉風

一月十八日

右等、對人保安法違反被告事件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付朝鮮總督府附屬市干綿宗六十

共審理判決人々如レ

主文

被告宗東、無テ懲没十月、又

被告成泰錫、朴氏吉、各懲没八月

、又

被告柳宅根、懲没七月、又

被告李正憲、李斗淵、李鍾禹

金玉風、各懲没六月、又

理由

被告宗東、成泰錫、李正憲、朴

氏吉、大正八年四月十二日、府官ニ被

告宗東、居村ニ同人崔元宗、宗昌

方、會談中人、冒稱、朝鮮各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地、於ケル朝鮮獨立運動、贊同レ改

治憲法、目的、以テ被告等居村、於テ

ニ共同運動、爲カント會、同夜午後九

時頃、里氏約五十名、糾合レ同里後方

、世名山頂、到リ朝鮮獨立義隊ヲ

唱和シ、又、同山麓、於テ被告柳宅根

等、一團ト會シ朝鮮獨立義隊ヲ呼、





測 李舜禹 令王國、各訊問胡書  
中、夫、夫、夫、不為、付各別示同旨、自  
白記載

一 控布、被告宋象榮訊問胡書中、  
原告トシテ 鄭象、二十五石 許、トセリ  
カレ旨 辯解ス、外別示同旨、供述記  
載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一 司法警察官、被告成泰銘訊問胡書  
中、別示同旨、自供記載

一 司法警察官、被告李正憲訊問胡書  
中、別示同旨、自供記載

一 司法警察官、被告人李永誠訊問胡書  
中、大正八年四月十二日夜 横城 鄭 忠 院  
而合一室內、赤山水洞上村 島 垣、各 洞

、於テ 朝鮮獨立 等 處、ト 唱ヘ、ト 申 賣、

同 夜 宋 象 榮 等、自 合 石 宅 等 處 迄 來、ト 号  
載、ト 唱ヘ、ト 自 合、ト 示、ト 感 表 明、ト  
打 破、ト 稱、ト 音、ト ヒ、ト 以、ト 二 男 獨 申、ト 出、ト  
實 明、ト 破、ト リ、ト 申、ト 告、ト 知、ト 者、ト 使、ト  
後、ト 成、ト 分、ト ス、ト コ、ト ト、ト ン、ト 申、ト レ、ト 故、ト 二 男  
ト 島 垣 迄、ト 付、ト ケ、ト 達、ト ン、ト 旨、ト 供 述 記 載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主、ト 号、ト 餘 合、ト 尺、ト 酌、ト 證 憑、ト 申、ト 分、ト 二、ト 内  
被告成泰銘、名神、其、ト、ト 被告、ト 告  
ト 延、ト 所、ト ケ、ト 別 示 同 旨、自 供、ト、ト 證、ト 明  
カ、ト 行、ト ス

法律、照、ス、

本件ニ於テ、罪後、法律、ト、リ、刑、ト 重、ト 是、ト  
アリ、ト、ト 以、ト 刑、ト 法、ト 第、ト 六、ト 條、ト 第、ト 八、ト 條、ト 第、ト 十

條刑法施行法第三條、依テ、新舊兩  
 法ヲ比照スル、新法、於テ、大正八年  
 制令第一號第一條ニ該シテ、被告  
 成泰鎰、於テ、累犯、保ルヲ以テ、刑法  
 第五十六條第五十七條、從ヒ、法定、如  
 上ニテ、爲シ、刑罰ニ範圍内、於テ、處斷  
 スベキモノニシテ、舊法、於テ、保身法第一  
 條、朝鮮刑令第四十二條、該シレ、爲  
 被告成泰鎰、於テ、累犯、保ルヲ以テ、刑  
 法第五十六條第五十七條、從ヒ、法定、如  
 上ニテ、各刑罰範圍内、於テ、處斷スベキ  
 事、被告又因テ舊法、刑輕キヲ以テ、保  
 身法第一條、從ヒ、朝鮮刑令第四十二  
 條、ヨリ、刑名ヲ變更シ、本定刑中、懲役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刑ヲ選擇シ、被告成泰鎰、於テ、刑  
 法第五十六條第五十七條、別シ、累犯、法  
 生知セリ、爲シ、各刑罰、範圍内、於テ、處  
 斷スベキ事、大正八年五月十五日  
 何リ、本定、如シ、刑罰又  
 大正八年五月十五日  
 刑罰總督府刑令 今川 徳 大  
 朝鮮總督府裁判所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甲田 吉 治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8. 송병기, 성태현, 이정헌, 판결문(공소기각)

大正八年刑控第五五號

判決

江東區橫城郡古院區舍一里 庄位  
同上 庄籍 農

宋 集 雲  
四月三十日 三十八年

同道同郡同邑同里三三三三七番地 庄位  
同上 庄籍 農

成 泰 鉉  
十二月三十日 三十九年

同道同郡同邑同里四四九十二番地 庄位  
同上 庄籍 農

李 正 憲

四月三十日 三十八年

右保身法違反被告事件 大正八年  
五月十五日 裁判地方法院ノ言渡シタル  
有罪ノ判決ニ對シ被告等ヲ控訴ノ申  
立アリタルヲ以テ本院ハ朝鮮總督府  
控訴事務官有年干其審理判決スル  
コト尤ノ如シ

主文

右件控訴ハ各之ヲ棄却ス

理由

被告等ハ大正八年三月一日以降 舞由各地  
ニ於テ朝鮮舞踏立一分隊ト高唱シ朝鮮舞立  
ノ示威運動行ハレ居レシトノ如ク其舞立  
ニ參與シ之ト同 行秘ヲ執ラントシテ

大正八年四月十二日原告被告村民言下共  
 二原告被告宋某等ノ在村ノ内人ノ從  
 兄宋某等方ニ會合シテ後村ニ於テ毛里  
 氏ヲ糾合シテ朝鮮獨立ノ萬案ノ高唱シ  
 テ朝鮮獨立ノ示威運動ヲ爲サレトシ  
 同夜九時頃里民約五十名ノ糾合シ  
 同里一分一里後方ノ無名山頂ニ到リ朝  
 鮮獨立ノ示威運動方法トシテ朝鮮獨立  
 一萬案ノ高唱シテ更ニ川續中同山麓ニ  
 於テ原告被告等柳走根等一團ト合  
 シ前同村自的ヲ以テ朝鮮獨立萬案ヲ  
 高唱シテ同里由テ程リシ因テ後山ノ  
 好宴シタルモノナリ  
 而被告宋某等ハ大正四年三月十七日宋

城地方法院永正文廳ニ於テ市警廳員  
 依リ恒役四日ニ處スル其執リテ終ク夕  
 ルモノナリ  
 右取證手續ハ市法院ニ於テ原告被告  
 等ノ自白等ハ大正八年三月十日降於鮮  
 考地ニ於テ朝鮮獨立萬案ト高唱シ朝  
 鮮獨立ノ示威運動ヲ爲シ虎シトナリ  
 知レル者ノ供述  
 原告公對被告中被告宋某等ノ  
 自白ハ七年四月十二夜(大正八年四月)宋  
 某等ニ誘ハレ約五十名ノ者ト共ニ一分一里  
 後山ニ登リ林民等々聲ヲ以テ大  
 朝鮮獨立萬案ト唱(其後山ノ下リ柳  
 走根一隊ト合シ)萬案ヲ唱(テ)同里由テ

判決原本

縛り廻りタル旨。被告茂素銚ノ申由  
 月十二日辰里民約五十名ト共ニ里由夜山  
 ニテ大群獨立万軍ト叫ビ其山ノ下ノ  
 柳定根等ノ一隊ト令ヒテ百餘名トテ  
 外一里由ク縛り廻りタル旨。被告李亞憲  
 ノ申由曰ク「昨夜他村ニ於テ行ハルル如  
 ノ辰村ニ於テ心算約獨立万軍ト叫ビ  
 ント」宋集呂ノ主詔ニ賛、同レ夜山ニ上  
 リタル旨。夜山麓ニ於テ柳定根等ノ一  
 隊ト令ヒ里由ク縛り廻りタル旨。各供述記載  
 於申ノ被告宋集呂等ニ對シテ「洞書中  
 ニ稱衆ハ二十五名許リニ過キサリ」と旨  
 辯解スル外、申同趣旨ノ供述記載  
 司法録ニ於テ、被告茂素銚ニ對スル洞

朝鮮總督府裁判所

書中、申同趣旨。被告李亞憲ニ對シテ  
 洞書中、申同趣旨ノ各供述記載ノ綜  
 合シ其証憑十分ナリ  
 高被告茂素銚、前科ニ付テハ、申法廷ニ  
 於テ、被告ノ為テ、如キ處刑ノ受テ、夕  
 七名ノ供述ニヨリ之ヲ認ム  
 法律ニ照スニ被告等、計為ハ右條  
 故ノ法令ニヨリ刑ノ變更アリタルカ故ニ刑  
 法才八條才六條ニ則テ折辱法ノ刑ヲ  
 比照シ輕キモノヲ適用スヘク、計法ニテ、  
 才ハ、大正八年制令才七號才一條才一  
 項ニ該章ニ被告茂素銚ハ、恒役刑ノ  
 選擇ノ累犯ニ係ルル以テ刑才五十五  
 六條才一項才五十七條才十四條ニ從ヒ法





被告が敬奉する懲役十月、傷又  
 被告が養育者たる懲役八月、傷又  
 被告が春候に懲役六月、傷又  
 抑收物件に之より没收ス

理由

被告申在根張通勤ハ孰レモ又通  
 教巡廻教師トシテ日韓併合當時之レ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と對レ不平ノ念ヲ懷キ豫テ朝鮮獨立  
 リ希望シ居ル者ナル處 何教々主孫  
 宗思等ハ朝鮮ノ獨立を宣言スルモノヲ  
 發表セラル以來 朝鮮各地ニ於テ朝鮮  
 獨立を喊進動ノ勳數セラル知ルヤ互  
 一之レ賛同シ、咬古等ノ居村ニ於テ  
 之亦朝鮮獨立ノ旗號ヲ懷成ヒト企

圖シ人〇八年三月二日、原告セシ被告申  
 在根居宅ニ於テ兩名を會シ謀議ノ  
 未被告張通勤ハ先ツ京城ニ去テ又  
 極詰一航(第一號)五寸角銃ヲ朝  
 鮮紙製大梅旗二十枚、獨立宣言書  
 四十枚ヲ買取ルセリ、同月二十六日被告  
 申在根方ニ去歸リ翌日、楊城申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場ノ市日ヲ期シ希テ學ヲコト、ナレ即  
 翌二十七日被告兩名を携ヘテ同市場  
 ニ到リ同場入口ニ於テ會シテ被告  
 甲若煥、前示大梅旗(第一號)ヲ  
 交付シ之レヲ振翳サレテ同市場ニ  
 集シテ三百餘名ノ群衆中ニ投シ、  
 揚朝鮮紙製大梅旗及獨立宣言書

事リ配付煽動シ率先シテ衆ト共ニ  
 朝鮮獨立萬歳ヲ絶叫シ  
 改告亦敬春ニ天道教信徒ニシテ豫  
 テ朝鮮獨立ノ希望ヲ懐キ居ル者ヲ  
 示威勅發セリ知ルヤ之ニ賛同シ同  
 日同示威運動ヲ為サレト欲シ同市場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到リ居リタル處ニ改告申在根等ガ前  
 頭ノ如ク同運動ヲ開始シタル日ヨリ之ニ  
 レニ賛同シ共ニ朝鮮獨立萬歳ヲ高唱  
 シ  
 改告等ヲ警署ハ日神會合ニ對シ既  
 一不平ノ念ヲ懷キ尔來ニ朝鮮獨立ヲ  
 希望シ居ル者ナル處ニ同日同市場ニ

不用アリ掛キタルニ對シ、如ク朝鮮獨立  
 ノ示威運動開始セリテ同日ヨリ之ニ  
 賛同シ共ニ朝鮮獨立萬歳ヲ呼號シ  
 改告等奉燒ハ前判示ノ如ク改告中  
 在根ヨリ大橋旗ヲ交付セリヤ之ヲ根  
 翳シ共ニ朝鮮獨立萬歳ヲ唱和シ  
 タルモノニシテ改告等ニ執レモ改治ノ豪華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目的トシテ不穩ノ言動ヲ為レ同ヲ治安  
 ヲ妨害シタルモノトス  
 右事實ハ  
 一 各改告、當公廷ニ於ケル各判示不  
 為、付表吏ニ對シ同旨、自白  
 一 憲兵上等兵福留彦左衛門、大正六年  
 三月二十七日附檣城憲兵分遣所長宛、報



告書中、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移紙、  
 場十字踏附近、於テ被告等ハ又韓  
 獨主等處リ高唱シ示威運動ヲ為シ  
 レトシテハ以テ取押、引致シタルニテ旨  
 ノ記載  
 アルト取收、保ハ又檢發ノ現存スル等ニ  
 徴シ證據十分ナリ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法ニ照ス  
 本件ハ犯罪後、法令ニヨリ刑ノ變更  
 アルヲ以テ刑法第六條第八條第十  
 條、ヨリ新舊兩法ヲ比照スル、舊法ニ  
 於テハ保安法第七條 朝鮮刑事令  
 第四十二條ニ依當レテ法、於テハ大正  
 八年四月十五日割令第七條第一條

故當不同、舊法、刑輕キヲ以テ保  
 安法第七條 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  
 リ適用レ不坐刑中懲役刑ヲ選擇レ  
 具、範圍内、於テ各處於ス、有收  
 物件ハ犯罪ニ供用シタル 被告以外ノ  
 者ト屬セザルモテハ以テ刑法第十九條  
 ニ依リ沒收スベキモノトス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仍テ主文、如ク判決ス  
 大正八年五月一日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刑事令ハ施行ス  
 朝鮮總督府刑事令ハ施行ス

10. 신재근, 장도훈, 안경훈, 강만형, 윤택환 판결문(공소기각)

大正八利控第三三二號

判決

江原道橫城郡橫城面水之南里當  
早基地在籍口所住 農業系

申 在根

一 月廿五廿六年

判決 原 水

口道河郎井谷岡上高里三白甲

南江左籍口所住 農業系

張 道勳

一 月廿五廿四年

口道河郎口道河郎高十當地在籍

口所住 農業系

申 敬春

一 月廿五廿二年

口道原州郡丹阜面七台里高十當地在籍

口所住 農業系

姜 萬鎔

一 月廿五廿八年

判決 原 水

口道橫城郡橫城面山下里六當地在籍

口所住 雜貨商

甲 朱煥

一 月廿五廿二年

右張高十達及被告等於大正八年五月  
一 日京畿地方法院三度三三三各有所判決對  
被告等之執口控訴申口所住高十當  
地朝鮮總督府檢察官法安有享于與高  
地等上判決口所住高十當

申 文



群衆ト共、朝鮮獨立運動、方法ニシテ  
 朝鮮獨立萬歳ヲ詠フ、以テ治安ヲ妨害  
 不  
 報告高教省、美高警、天道教徒  
 ニテ、警、曰韓、併合、對、不平、念、懷  
 朝鮮、獨立、希望、有、行、概、大  
 正八年三月一日、教主孫東照、善、朝  
 判決原本

朝鮮獨立宣言、發表、兩東、鮮、内、各  
 地、朝鮮獨立運動、行、其、市、場、上  
 朝鮮獨立萬歳、詠、呼、聲、由、同  
 知、各、其、報告、警、國、之、一、日、一  
 行動、執、行、合、同、年、三月、二十、七、日、前  
 示、橫、城、市場、之、一、報告、申、呈、根、據、後  
 運動等、企圖、係、獨立運動

前掲多衆ト共、朝鮮獨立示  
 威運動、方法トシテ、朝鮮獨立萬歳、高  
 唱、以テ治安ヲ妨害シ  
 報告尹泰煥、大正八年三月一日、天道  
 教主孫東照、朝鮮獨立宣言、及後  
 表、兩東、鮮、内、各地、朝鮮獨立運動、振、起、行、  
 動、行、其、方法トシテ、大、極、端、振、起、行、  
 判決原本

朝鮮獨立萬歳、唱、和、聲、由、同  
 知、各、其、行、概、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前  
 示、橫、城、市場、之、一、報告、申、呈、根、據、後  
 報告申呈根、前掲口人等、企圖、  
 係、獨立運動、之、一、大、極、端、  
 振、起、行、其、方法トシテ、大、極、端、  
 報告、申、呈、根、據、後、  
 運動等、企圖、係、獨立運動



文付とてしるす之う承法と曰曰行  
 於テ大極體、極子トありテ曰極ノ振  
 動ト示示衆ト共ニ朝鮮極ト未成運動  
 ノ方性トシテ朝鮮極ト動動ノ唱和以  
 ヲ極子ト好喜トあり  
 以上、事慶ニ處公述ニ於テん彼告申立  
 根、後運動、安致春、安高聲、史ニ々  
 判決原本

判示ト曰一執者、彼告尹景燧、朝鮮極  
 之未成運動ノ執者、替トシテん於、除々  
 判示ト曰一執者、各自供司性極ト事西臣  
 一彼告尹景燧行向詞言中大正八年  
 二月二十七日午前十時ノ上時中在根、  
 自分ニ對シ今日新市場、方ニ極上運動  
 ノ為ニ及ル一極、別義、皆々具レ且ッ

三、辭レ共トト曰自分、踏踏スルヤ何ハ  
 青年ナリヤ々様、意氣心ヲ爲了精  
 神トシテ好喜ニヤ國民、義務心ヲ大、望  
 成トシヘカミト申シテ自分ハ度取ルル  
 物ヲ用キ又又ニ大極體トシテ依、時々  
 ノ如クテハ何人當ルヲ逮捕ラレト申  
 シルルハ人ハ亦亦口稱意及地ナトカ義務  
 判決原本

心ナレトカあつ、然ルテ有根ニ致スレト  
 決意シテハ其約一誓ヲ悔新道路、方、  
 澤山ノ人集令レ知レシテ、自分ト申場  
 一信々之也申在根、洗運動一、大韓獨  
 立不棄、申レシハ自分ニ因テ、下、送  
 一持テハ大極體ノ振、動ト大韓獨立  
 一義ト平々々々、皆亦一或、極





11. 신재근, 장도훈, 안경태, 강만형 판결문(상고기각)

大正八年刑上茅四。五號  
 判決書  
 江原道橫城郡橫城南永永浦里  
 四百四十一番地 農  
 被告人 申在根  
 六十四年  
 高等法院  
 刑事判決原本  
 同道同郡并谷面上安興里  
 二百四十番地 農  
 曰 張道勳  
 四十九年  
 同道同郡同面同里  
 六百四十一番地 農

曰 安敬春  
 二十年  
 同道原州郡所羊面叱叱里  
 二百二十三番地 農  
 曰 姜萬馨  
 二十八年  
 高等法院  
 刑事判決原本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六月六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  
 タル判決ニ對シ被告等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  
 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  
 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主 張

本件上告ハ何レモ之ヲ棄却ス

理 由

被告四名ノ各上告趣意ハ自己ノ行  
為ハ朝鮮民族トシテ正義人道、

基ノ意思發動、シテ犯罪：アラス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然ル、第一審及第二審、於テ受

ケタル有罪ノ判決ハ不當ニシテ

服従スル能ハサル違法ノモノナリ

依テ上告スト云フ、在リ

然レトモ原判決、記載スル如ク

原審認定ノ事實ハ原審適用

668

ノ法條、該當スル犯罪ヲ構成ス

ルコト明白ナレハ原審ク同法條

ヲ適用處断シタルハ相當ニシ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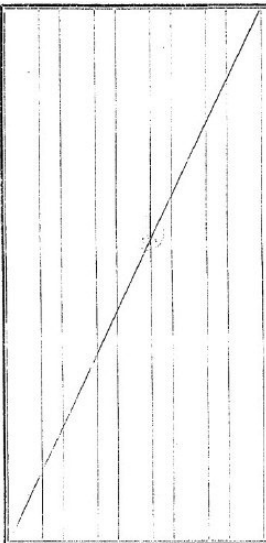
各論旨ハ自己ノ事實意見ニ基キ

其ノ所為ノ罪トナラサルコトヲ

論述スル、外ナラザルヲ以テ何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レモ採用スル、足ラス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七月十七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石川 正

刑事判決原本

朝鮮總督府判事 柳 亨 龍

朝鮮總督府判事 永 沼 直 才

朝鮮總督府判事 横 田 謙 一

朝鮮總督府判事 島 亨 次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美 池 徳 次 郎

12. 정해경, 조상렬, 이성서, 김윤배, 김순서 판결문 (징역 1년 6개월~징역8월)

判決原本

江平邑橋樑部 橋樑面 李三聖 告 職 鄭 海 環 去平三年

合道合部 井 峯 面 下 田 里 農 諸 幸 烈 去平九年

任 不 定 日 檢 査 臺 聖 西

合道合部 瑞 環 面 天 桃 里 不 物 竹 高 臺 允 信 去平九年

合道橋樑部 橋樑面 上 里 水 李 幸 烈 人 全 聖 珠 去平四年

合道合部 甲 川 面 梅 山 里 農 臺 允 培 去平三年

合道合部 井 峯 面 桂 峯 里 農 臺 允 培 去平三年

全順瑞

左傳有廷意及被各事件、付切快云  
所由

王文

新正鄭海環在聖西ノ右總領一年六月、新正結帝親在允儀全聖降在允儀在順瑞ノ右總領八月、又久

判決原本

理由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判決原本

新正鄭海環ハキリ下ノ教授新正在聖西ノ天正親後シテ豫テ多ク日韓降在ノ際ノ悔歎シ居リん所物付ノ種糸也等々新結ノ揚立ノ唱道云々六、三、賛合シ大正八年四月、今在在江東區横濱市ノ橋本邑内市橋ニ於テ多











紀載 月日等並是、被告人納管以  
 江口納管中自〇八〇八〇年四月一  
 日後五時限以下至市場、十時以上之  
 獨立部等、中〇八〇八〇年、法廷紀載  
 、被告之之、認是  
 法律、照之、被告之、所為、各仁  
 罪、被告、能之、變更、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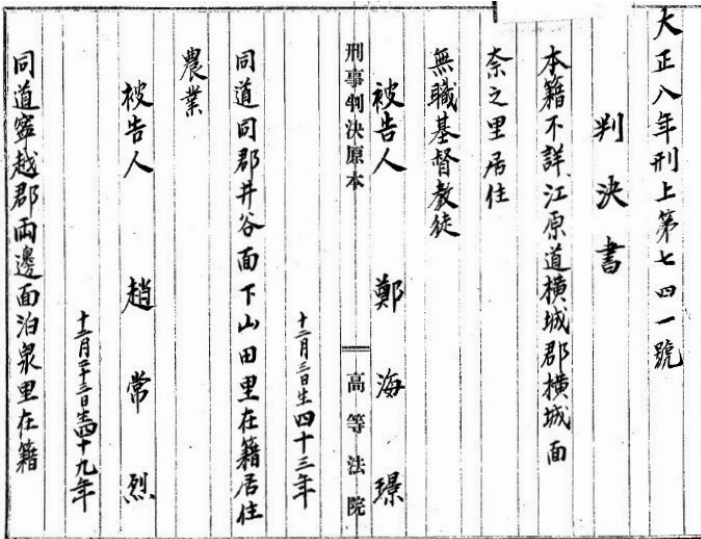
刑罰第八條第六條之則、新舊法之利、  
 比較、輕之、適用、  
 大正八年制令第七號、刑罰第八條、  
 法廷之、刑罰制令第四十二條、  
 利、變更、  
 統制之、刑罰第十條第九條、  
 被告、刑罰、  
 被告、刑罰、

法廷、自、  
 選擇、各、  
 海環、全、  
 被告、  
 培、  
 然、  
 南、  
 判決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刑罰第八條第六條之則、  
 主文、  
 大正八年七月十日  
 朝鮮總督府裁判所  
 被告、  
 被告、  
 被告、



14. 정해경, 조상렬, 김성서, 김윤배 판결문(상고기각)



|      |         |     |       |          |                               |    |        |      |     |       |          |
|------|---------|-----|-------|----------|-------------------------------|----|--------|------|-----|-------|----------|
| 住所不定 | 日稼業天道教徒 | 被告人 | 金 聖 西 | 九月九日六十八年 | 同道前郡 <sup>梅城</sup> 甲川面梅日里在籍居住 | 農業 |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 被告人 | 金 元 培 | 八月十日五十六年 |
|------|---------|-----|-------|----------|-------------------------------|----|--------|------|-----|-------|----------|

|        |      |   |     |
|--------|------|---|-----|
|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七月十一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等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 主 文 |
|--------|------|---|-----|

本件上告ハ共ニ之ヲ棄却ス

理由

被告<sup>○</sup>名上告趣意ハ自己ノ行為ハ朝鮮民族トシテ正義人道ニ基ク意思發動ニシテ犯罪ニアラス然ルニ第一審

及第二審ニ於テ爰タル有罪ノ判決ハ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不當ニシテ服従スル能ハサル違法ノ

モノナリ依テ上告スト去フニ在レト

モ

原審認定ノ事實ニ依レハ被告ノ所爲

ハ原審適用ノ法條ニ該當スル犯罪ヲ

構成スルコト明ナレハ原審カ該法條

ヲ適用シテ處断シタルハ相當ナリ論

旨ハ自己ノ事實トスル所ヲ述ヘ且被

告一個ノ意見ニ依リ自己ノ所爲ハ罪

トナラスト主張スル者ニ外ナラサレ

ハ共ニ上告ノ理由ナシ

刑事判決原本  
—— 高等法院





志、糾合シ、務立ニ威運シ、勅ヲ方サシ  
 々々合テ、花名、遊歴シ、同手四月  
 八日、以テ是等、越部、同、阿、佐、與、里  
 官、奉、り、方、於、テ、同、人、是、シ、又、聖、九、  
 同、部、為、四、五、形、り、五、官、奉、り、五、方、於、テ、  
 同、人、之、部、之、為、聖、十、同、部、之、同、武、後  
 王、聖、也、如、地、於、テ、同、王、玄、聖、後、之、勅  
 之、近、來、輕、怒、方、他、於、テ、愛、國、志  
 士、交、々、立、テ、輕、怒、務、立、方、死、力、之、  
 之、テ、汝、勅、之、ツ、アリ、殊、也、如、般、控、持、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是、内、市、物、於、テ、輝、聚、力、輕、怒、務、立  
 業、業、々、高、唱、之、也、方、守、衛、方、  
 射、擊、セ、リ、死、者、五、人、傷、者、八、名、之、也、  
 之、者、之、物、之、方、於、テ、之、務、立、業、  
 業、々、叫、テ、者、一、人、之、中、八、名、之、遺、憾、極  
 ナ、リ、林、心、民、も、其、金、之、リ、愛、心、之、振  
 起、シ、奉、リ、所、泉、里、市、々、刑、之、同、市、場  
 之、於、テ、今、亦、々、故、々、解、聚、上、世、之、輕、怒、務、  
 立、業、業、々、高、唱、之、方、之、勅、メ、テ、及  
 及、同、人、亦、之、煽、動、シ、之、々、安、守、機、序

々、妨、害、之、也、モ、ト、人  
 以上、奉、吏、之、林、共、之、前、後、連、於、テ、ル、市  
 井、同、趣、方、之、徒、迹、之、也、之、之、退、金、之、  
 徒、之、如、之、林、共、之、方、之、保、衛、方、七、条  
 之、輕、怒、務、立、令、和、平、二、条、之、注、意、之、  
 一、可、右、於、前、後、之、者、存、之、條、之、大、公、子  
 四、月、十、日、奉、判、令、和、七、号、之、條、同、判、令、  
 和、一、条、和、二、條、和、三、條、和、五、十五、条、之、注、意、  
 之、之、以、之、取、後、分、之、一、条、和、八、条、和、十、条  
 之、之、之、形、之、方、之、輕、怒、之、比、如、之、也、之、四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之、之、保、衛、方、和、七、条、之、刑、輕、之、之、以、之、  
 同、注、意、之、之、同、之、之、全、取、後、是、之、刑  
 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  
 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  
 大、公、子、五、月、二、日  
 奉、判、令、和、七、号、之、條、同、判、令、  
 和、一、条、和、二、條、和、三、條、和、五、十五、条、之、注、意、  
 之、之、以、之、取、後、分、之、一、条、和、八、条、和、十、条  
 之、之、之、形、之、方、之、輕、怒、之、比、如、之、也、之、四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高田中三

16. 천선재 판결문(상고기각)

金八保判第百三七號  
 判決

江原道橫城郡井谷面安興里  
 二百四十六番地  
 農業家  
 被告人 千善在

七十八年  
 高等法院

刑事判決原本  
 右係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六月九日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上告趣意ハ自己ノ行為ハ朝鮮民族トシテ正義人道ニ基ク意思發動ニシテ犯罪ニアラス然ルニ第一審及第二審ニ於テ受タル有罪ノ判決ハ不當ニシテ服從スル能ハサル違法ノモノナリ依テ上告ストムフニ在リ然レトモ原判決ニ判示セル被告ノ行為ハ原判決ニ適用セル法條ニ該當スル治安妨害ノ罪ヲ構成スルモノナラズ依テ原審ヲ某適用セル附屬レラ處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罰シタルハ正當ナリ本論旨ハ被告ノ  
 行為ハ犯罪トナラザル旨ヲ陳辯シテ  
 原判決ヲ非難スルニ過キザルヲ以テ  
 採用スルニ足ラス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  
 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七月十七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石川 正  
 朝鮮總督府判事 楠本 市  
 朝鮮總督府判事 永沼 真  
 朝鮮總督府判事 横田 辰  
 朝鮮總督府判事 岸 亨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菜地 徳太郎



17. 최종하 판결문(공소기각)

大正八年刑種第六六號  
 判決  
 江原道橫峰郡橫峰面邑白里三百字七番地  
 番地店位  
 同道河郡同面永八浦里在籍  
 農業  
 山佳 宗 河  
 右係違法違反被告事件三府大正八年六月九日  
 日高嶺地方法院ノ言渡シテ有罪判決ニ對シ  
 被告ヨリ控訴ノ申立アリタルヲ以テ本院  
 ニ於テ解 鏡簿付於申立控訴功干無者  
 理判決スルニ付九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ニ之ヲ棄却ス  
 理由

被告二十年前より天道教徒トシテ豫メ  
 日韓、併合、對シ不滿、念、懷キテ之  
 折柄大正八年三月一日教主孫免阻等ノ  
 朝鮮獨立、宣告、爲シ爾來鮮内各地、  
 於テ朝鮮獨立示威運動行ハ其方俗ト  
 シテ朝鮮獨立萬歳、高唱シタル由、  
 屬知キ其趣旨、贊同、シト曰一行動  
 判決原本  
 大正八年四月八日  
 江原道寧越郡水田面法興里在籍日  
 方、於テ日人、對シ、又翌九日同郡西邊面  
 新日里在籍日方、於テ日人、對シ、高聲  
 古口郡水田面武校里附近、如地、於テ  
 同里去聖後、對シ何ニ、近來朝鮮各  
 地、於テ愛國、志士交、起テ、朝鮮獨立



為死力盡之活動ニシテ、湯、過般仁  
 原通、横城郡、忠西市場、於群衆、朝鮮  
 獨立萬歲、高唱ニシテ、身、傷、兵、射  
 擊、ヒシ、死者、五、傷者、八、出、(五、)  
 然レ、物、ニ、當、方、於、獨、立、萬、歲、ヲ、叫  
 者、皆、無、事、レ、實、遣、送、極、(極、) 韓、國  
 吏、タル、者、恒、ニ、愛、國、心、ヲ、振、起、シ、未、滿、泉  
 判決原本

法律、經、被、告、行、為、之、罪、後、情  
 狀、於、刑、度、更、(更、) 改、刑、法、第、一、條  
 第六、條、則、新、舊、二、條、刑、比、照、其、輕  
 者、從、之、新、舊、二、條、大、正、八、年、制、令、第、七、號  
 第一、項、第、一、項、刑、法、第、五、十、五、條、爲、  
 法、之、三、八、朝鮮、刑、令、第、四、十、條、以、列、名、  
 更、更、(更、) 保、身、法、第、七、條、刑、法、第、五、十、五  
 條、該、條、刑、法、第、十、條、第、九、條、據、  
 之、對、照、之、舊、條、刑、法、以、前、未  
 保、身、法、爲、用、以、定、二、年、以、下、懲、役、刑  
 選擇、其、範圍、由、於、被、告、懲、役  
 一、年、處、ス、キ、ト、ス  
 然、レ、本、條、一、經、告、原、判、決、相、當、  
 之、被、告、控、訴、一、理、由、ヲ、依、リ、刑、事、新

判決  
 大正六年六月九日  
 京城發審法院判決  
 朝鮮總督府裁判所  
 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原本  
 岩山德兵衛

18. 최종하 판결문(징역 6월)

判決  
 崔宗河  
 大正六年六月九日  
 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原本  
 主文  
 被告崔宗河六月九日  
 判決  
 被告崔宗河三月十日  
 判決

爲民族ニ自任シテ日本ノ歴史ヲ  
 辨明シテ精進セテハカクナル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ルヤ以テ之ヲ以テ早稲ノ文ノ也ト云  
 ノナカド千趣旨ニ登同シ四月十三日  
 同部内西表ノ陸王申互根方ニ於テ  
 同部井表ノ上皇王皇孫御ノ御ノ後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至聖至金部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大正十二年ノ神告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同部内西表ノ陸王申互根方ニ於テ  
 同部井表ノ上皇王皇孫御ノ御ノ後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至聖至金部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大正十二年ノ神告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同部内西表ノ陸王申互根方ニ於テ  
 同部井表ノ上皇王皇孫御ノ御ノ後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至聖至金部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大正十二年ノ神告ノ旨ヲ以テ之ヲ以テ  
 少シ精進シテ至聖十二教ノ旨ヲ以テ  
 同部内西表ノ陸王申互根方ニ於テ  
 同部井表ノ上皇王皇孫御ノ御ノ後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被告ハ大正八年三月十日江名道横峰郡  
 横峰面邑由里ヲ開面永々浦里ニ至ル途  
 中路上ニ於テ氏名不詳ノ者ヲ孫東照  
 外等ニ名ノ作成ニ係ル朝鮮民族ハ自由ニ  
 シテ口承ノ歴制ヲ離脱シテ獨立セサルハ  
 カラサル旨記載セル獨立宣言書十二枚ノ交  
 付ヲ受クルヤ政略ニ関スル不穩ノ書面ナル  
 側決原本

コトヲ知ル旨ヲ其趣旨ニ對同シ同月十三  
 日横峰郡長由面永々浦里申在根方  
 ニ於テ同郡井若面上英里堂解卿ニ  
 對シ該宣言書全部ヲ其趣旨ヲ告ケ  
 テ交付シ以テ依テ妨害シタルモノナリ  
 以上事實ハ事結廷ニ於ケル被告ノ大正  
 八年三月十日江名道横峰郡横峰面邑由

里ヲ横峰面永々浦里ニ至ル途上ニ於  
 テ氏名不詳ノ者ヲ孫東照外等三ニ名  
 ノ作成ニ係ル朝鮮民族ハ自由ニシテ口承ノ  
 歴制ヲ離脱シテ獨立セサルハ力ヲ用  
 シ記載セル獨立宣言書十二枚ノ交付ヲ  
 受テ同宣言書ノ政略ニ関スル不穩ノ文  
 書ナルコトヲ知ル旨其趣旨ニ對同シ同月十三  
 日之ヲ申在根方ニ於テ堂解卿ニ交付  
 シタル旨ノ供述於中ノ參考人全解卿  
 對シ同書中 証人ハ本報該言書十二枚大正八  
 年三月十三日夜申在根方ニ於テ被告ヲ對  
 解卿立宣言書十二通ノ交付ヲ受ケテ  
 其際被告ハ特ニ之ヲ他ニ配付セヨトハ言ハサ  
 リシ也被告ハ自白ニ之ヲ交付シタル意思ハ他人



二配付セヨトノ意思ナリト云。然レテノ考案  
 人中ニ在ルニ對スル調書中ニ被告ハ本年  
 陰二月十三日夜<sup>前</sup>犯人方ニ於テ坐解<sup>前</sup>紳ニ對  
 シ孫業忠子ノ獨立宣言書ナリト稱シ該  
 宣言書十枚位ヲ交付シタル旨並ニ原告公  
 判後若書申被苦ノ大正八年陰二月十三日  
 以申在根方ニ於テ全解紳ニ對解贈  
 立宣言書ヲ交付シタル<sup>自分</sup>史<sup>自分</sup>據<sup>自分</sup>宣言書ノ由  
 容<sup>自分</sup>ノ<sup>自分</sup>承<sup>自分</sup>知<sup>自分</sup>シタル上<sup>自分</sup>解紳<sup>自分</sup>ニ配付シタル云  
 ノト見交ケタル云致方ナキ旨ノ考案違  
 犯<sup>自分</sup>載<sup>自分</sup>ノ<sup>自分</sup>結<sup>自分</sup>合<sup>自分</sup>シテ之ヲ認ム  
 法ニ照スニ被告ノ状ハ何處法也七条  
 朝鮮刑事令中甲十二條ニ該事スルヲ以テ  
 其<sup>自分</sup>罪<sup>自分</sup>是<sup>自分</sup>刑<sup>自分</sup>中<sup>自分</sup>懲<sup>自分</sup>役<sup>自分</sup>刑<sup>自分</sup>ヲ選擇シ其<sup>自分</sup>刑<sup>自分</sup>期

範圍内ニ於テ被告ノ懲役六月ニ處スル  
 云ノトス  
 然レハ平判候ノ右判示趣旨ニ適合シ正  
 事<sup>自分</sup>志<sup>自分</sup>ヲ以テ被告ノ控訴ノ理由ナキ事  
 卜<sup>自分</sup>刑<sup>自分</sup>懲<sup>自分</sup>役<sup>自分</sup>刑<sup>自分</sup>法<sup>自分</sup>身<sup>自分</sup>ニ百六十一條第一項ニ  
 別<sup>自分</sup>ノ<sup>自分</sup>法<sup>自分</sup>判<sup>自分</sup>候<sup>自分</sup>ス  
 大正八年六月三日  
 京城覆審法院刑事第一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松原存存  
 朝鮮總督府判事 山崎  
 朝鮮總督府判事 土井  
 朝鮮總督府判事 岩山  
 朝鮮總督府判事 岩山



19. 최종하 판결문(상고기각)

大正八年刑上第五八八號  
 判決書  
 江原道橫城郡橫城面邑内里三  
 百八十七番地農  
 被告人 崔宗河  
 四十二年  
 高等法院  
 刑事判決原本  
 右 保安法違反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六月廿五日京城 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  
 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  
 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  
 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上告趣旨ハ自己ノ行為ハ朝鮮民族ト  
 シテ正義人道ニ基ク意思發動ニシテ  
 犯罪ニアラス然ルニ第一審及第二審  
 ニ於テ浸ケタル有罪ノ判決ハ不當ニ  
 シテ服從スル能ハサル違法ノモノナ  
 リ依テ上告スト云フニ在リ  
 然レトモ原判決ニ記載セル原審認定  
 ノ事實ハ原審適用ノ法條ニ該當スル  
 犯罪ヲ構成スルコト明ナレハ原審カ  
 被告ノ所為ニ對シ同法條ヲ適用處斷

レタルハ相當ニシテ論旨ハ自己ノ事  
実ヲ主張シ被告一個ノ意見ニ基キ其  
所爲ノ罪トナラサルコトヲ論述スル  
ニ過キスレテ正當ニアラサルヲ以テ  
理由ナシ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右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  
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八月十四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若本以明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朝鮮總督府判事石川 正

朝鮮總督府判事 松岡 正

朝鮮總督府判事 水野 正

朝鮮總督府判事 岸 正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三浦 正

## 부록 2 | 애국지사 강성순 재조명

황성문화 통권 제25(2010)

박순업 | 황성군 조곡리 前황성초등학교장

### 1) 시작하며

서울에서 발발했던 기미년 3·1운동은 당시 열악한 교통·통신의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1개월 후인 4월 1일을 전후하여 거세게 전개되었다. 황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3월 27일, 4월 1일, 2일 황성장터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황성장날 4월 1일은 강원도장관이 1,300명의 만세 군중이 참여하였다고 보고했듯이 강원도에서 가장 대규모로 열기가 뜨거웠으며, 희생 또한 컸다.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이 날 현장에서 하영현, 강달회, 전한국, 강성순의사가, 강만형의사는 옥중에서 순국하였으며(3·1운동기념비문에서 인용) 38명이 체포되어 고문과 형을 받았다. 만세를 불렀다는 죄 아닌 죄로 본인 뿐 아니라 가정도 고난에 처해졌다. 그 중에 강성순(일명 사운) 애국지사를 중심으로 자신과 가정의 희생, 자손에게까지 부과되었던 고통스러운 대물림과 가정의 수난사를 살펴보았으며, 함께 활동했던 애국지사들의 경우도 간략히 예를 들어 보았다. 이 모든 고난을 초월, 독립운동을 하게 된 대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유족과 애국지사의 면담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 2) 애국지사 강성순

황성군 우천면 범주리에서 갑자년에 부친 호원과 해주오씨 사이에 독자로 진주강씨 가문의 대를 이어갈 기둥으로서 잘 자라, 청주한씨와 결혼 아들 인구를 낳고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그러나 총명함과 조국애, 정의감이 강한 그는 빼앗긴 나라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평범하게 살기에는 민족적 억눌린 슬픔과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소명 의식 탓에 용납되지 않았다.

황성 장터에서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만세를 군중들은 해가 질 무렵 헌병 본거지가 있는 군청 옆 느티나무 부근으로 모여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만세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여러 명이 쓰러졌으며 신음하는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그는 결국 고뇌 끝에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로 하고 결국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황성장날을 기해 3·1운동(서울에서 발발한 3·1운동은 1개월 후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졌다. 따라서 황성에서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개된 만세운동도 3·1운동의 연장이다) 전개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마을과 인근 동네를 찾다니며 동참할 동지를 규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오랜 망설임 끝

에 합류를 결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색을 표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어떤 친구는 “자네는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지만 나는 총각으로 후사가 없으니 안 되겠네”라며 거절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장수하여 나중에 독립운동유공자 선정 시 결정적 증언(법주리 유가전씨 · 유흥문씨 · 강영옥씨 모두 작고)을 함으로써 그의 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만세운동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강성순 지사는 황성읍내와 가까운 원주 소초면 둔둔리(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황성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며 생활권이었다.) 강달회, 강만형 등 지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최양옥, 최종하, 윤탤희, 탁영재, 전성수, 최동수 등 우국지사와 함께 김순이 여사가 운영하는 한치고개 주막에서 자주 비밀회합을 갖고 군중 동원 등 제반 사항을 계획 점검하였다. 김순이 여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소 제공뿐 아니라 가난하게 살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선뜻 내 놓았다.

황성 장터에서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만세를 부르던 군중들은 해가 질 무렵 헌병 본거지가 있는 군청 옆 느티나무 부근으로 모여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만세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여러 명이 쓰러졌으며, 신음하는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쏟아지는 총탄 속에 만세군중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거 열풍이 몰아치고 강성순 지사는 여러 명의 동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이미 순국하였다.

밤이 깊어 현장에 있던 친구에 의하여 비참했던 현장의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비통에 잠겨 운구 되었다. “저녁 무렵 ‘여기서 만세 부르면 총에 맞는다.’며 등밀이 하는 친구에 의하여 향곳말까지 집을 향해 가다가



‘총이 겁나 만세 못 부르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고 울부짖으며 되돌아가 앉았다. 총에 맞았다고 훗날 지인은 증언(정암리 김용제씨 작고)하였다. 서슬 퍼런 일본 헌병의 감시 속에 서러운 울음을 삼키면서 정암리 잣나무골에 장례를 치렀지만 살길이 막막하였다. 노부모, 처, 일곱 살 아이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가벼웠으니 그의 나이 스물일곱 살이었다. 어려운 삶을 버티다 젊은 부인은 원주 정지뜰 순흥안씨에게로 재가하게 되니 지사의 어린 아들은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그도 성장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게 되었으나 힘든 세파를 헤쳐 나오느라 골병이 든 탓인지 젊은 부인과 어린 2남 2녀를 남겨둔 채 서른두 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일제말기 어려운 시절, 없는 살림에 고통스러워 그의 부인 한양조씨도 막내아들 병춘(법주리 거주 71세,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만 데리고 우천면 두곡리 권씨문중으로 재가하게 되었다.

그러니 고아가 된 남은 자식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딸 병례와 병연은 서울 남의 집으로 보내졌고 여덟살 큰 아들 병철은 학교 문턱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으로 전전하며 열한 살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하였다. 세상에 홀로 던져져 시련을 겪으며 철이 일찍 든 탓인지 거친 세파를 잘 헤쳐 나갔다. 비록 남의 머슴살이를 하지만 성실한 그는 스무 살에 열일곱 살의 청송심씨 옥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꾀꾀하게 살아온 그는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결과 살림살이도 나아졌다. 자식도 6녀 1남을 낳아 녀석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자신의 어릴 적 부모 없이 불행했던 삶을 돌아보며 자기와는 달리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잘 키우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모두 잘키워 출가시켰지만 녀

덕하지 못한 살림으로 남들처럼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것이 늘 미안했다. 그는 이제 암흑기 같던 어려운 시절을 흘러보내고 자수성가하여 옛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노력 끝에 조부의 애국 행적도 인정받게 되었으나 무식한 탓일까? 70년대 초 애국지사 조사할 때 손자 병철씨는 얼떨결에 증조할아버지 자(字) '승문'(족보에는 聖文)을 뒀다. (증조 할아버지는 호원이며 字는 성문이었다. 실제 순국하신 분은 그 분이 아니라 할아버지 성순(자는 사윤)이었는데 모든 공식 기록이 뒤바뀌어 대통령 표창장도 증조 할아버지 승문으로 나왔다.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순국한 분들은 훗날 건국훈장으로 바뀌었으나 그 때의 오류로 지금까지 대통령표창장으로 머물러 있으며, 보훈처에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횡성 3·1공원의「3·1 운동기념비」와 「횡성군민 만세운동기념비」도 수정되지 않았다. 손자 병철씨는 자신에게 지독한 시련과 가정사의 불행 원인을 제공한 분이지만 그래도 애국지사 조부에 대한 자



순국열사 강성순 묘소

부심이 강했다. 조상에 대한 그의 연모는 보훈처와 횡성군의 도움을 받아 선대의 고향 정암리 잣나무골에 있던 조부 묘소를 집근처인 우천면 범주리 바라골로 1989년 11월 1일 이장을 하였다. 이때 원주 정지뜰로 재가했던 그의 할머니 유골을 할아버지의 곁으로 모셨다. 한 때 원망스럽

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 올리며 우천면 두곡리로 재가  
했던 어머니 유골도 2005년 집 근처 바라골로 모셨다.



황성군 우천면 법주리 바라골 강성순 묘역 주변

그러나 그도 힘든 세상  
을 혼자 힘으로 헤쳐  
나오느라 쇠진하여 2006  
년 11월 4일 일흔다섯을  
일기로 세상을 떴으며 부  
인 청송심씨(74)도 어려  
웠던 시절 힘든 농사일과  
다친 허리로 걷기도 불편



대를 이어 살아온 집터

한 상태다. 애국지사로의 삶은 손자대까지 크나큰 시련을 주었으나 고  
조부 때부터 지금까지 자손들이 대를 이어 그 터를 지키며 살고 있다.

### 3) 강성순 애국지사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들(예)

다른 애국지사가 고초를 겪은 경우도 강성순 지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몇 분의 예를 들어 보겠다. 한상렬 의병장은 문암리 사람으로 일본군이 숨어 지내던 처자를 인질로 잡고 항복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 황성 주둔 일본군 본거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패함으로 결국 처자는 죽음으로 내몰렸고 홀로 이국땅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평생을 몸바쳤다(한상렬의사 추모비 비문에서 인용). 우천면 법주리 최인순 의병장 부인은 일본군의 행패로 밤마다 잠자리를 옮겨야 했으며 아버지의 비참한 전사(강릉 배다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 시신은 바다에 버려짐) 소식에 아들은 산발로 두문불출 하다 일찍 세상을 하직하였다(1982, 손자 최봉수씨 증언). 그러니 손자에게도 고난은 필연이었으며 의병장 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손자는 만년까지 석공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 강성순 지사와 황성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둔둔리 강만형 지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29세에 순국, 그의 막내 삼촌 강달회 지사는 만세 도중 현장에 총에 맞아 순국하였으며, 이에 앞서 11년 전, 아버지인 강도영 의병장은 청일 춘당고개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하니 나라를 위해 한 가정이 희생으로 나라에 이바지 하였다.

죽음, 가정 파멸이 수반되는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이지만 나라를 되찾는 일에 대의를 앞세워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

든 것을 바쳐 일제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자신과 가정보다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에 더 큰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소신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 비밀회의의 장소, 자금 제공 등 애국지사를 도왔으며 당일에는 만세운동에 선두 지휘하며 앞장섰던 김순이 여사, 그 후 질시, 감시 그리고 궁핍 속에 자손은 절손되고 외롭게 살다 6·25 때 구방리 공동묘지에 묻혔었다(1990년 4월 27일 한치고개 밑에 이장, 애국지사 묘로 단장됨). 최양옥 지사는 황성만세운동 후 압송 도중 탈출에 성공, 국내외에서 두 번에 걸쳐 17년 간 옥살이를 하며 자신과 가정 모든 것을 희생(회동 딸도 지사에 대한 잠복 수사 과정에서 일경에 의해 죽음. 1982, 최양옥씨 회고)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몸 바쳤다. 작고하신 후생약방 박가희 할머니는 남편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양동에서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기절 하였었다(1982, 박가희씨 회고 작고).

이렇듯 애국지사의 독립운동은 자신과 가정, 가문에 엄청난 파탄과 희생을 가져왔다. 그들은 그러한 혹독한 결과를 예측하였지만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가치 기준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험난한 그 길을 택했다. 일제의 앞잡이, 친일파 대부분이 호의호식하며 가정의 평화가 보장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적어도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어도 가정의 파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강성순 지사 역시 다시 돌아



가 만세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던들 총탄에 순국하지는 않고 가정도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 4)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의의

죽음, 가정 파멸이 수반되는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이지만 나라를 되찾는 일에 대의를 앞세워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 일제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자식과 가정보다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에 더 큰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소신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독립운동에 같은 민족의 이웃이나 동포들이 존경하고 감싸주어야 함에도 그렇지만은 않았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일본의 압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고 무지한 동포의 밀고와 손가락질이 더 큰 고통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그들의 선전, 홍보, 행정망, 앞잡이들을 이용하여 애국자를 폭도, 불량배, 폭민 등으로 매도하여 이들을 신고하도록 협박, 회유하였다. 이에 몰지각한 일부 이웃과 동포들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애국지사들이 활동하는데 더욱 힘들게 하였다. 최양옥 지사는 황성만세 운동 후 압송 도중 탈출에 성공 친구 아버지한테 숨겨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니 숨겨 줄 수 없네. 내가 다치네'하며 거절하였다고 회고(1982년)하였다. 이때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애국지사들은 만세운동이 끝난 후에도 큰 죄인처럼 발붙일 곳이 없이 점방이 또는 화전민으로 숨어 살아야 했으며 세계까지 막막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고 황성군민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강성순 애국지사 같은 분들은 자신과 가정의 행복보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신념, 나라를 우선으로 했고 이러한 대의가 앞섰기 때문에 자신과 가정을 버리면서 순국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애국의고장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이 고장 후세들이 3·1정신을 이어 받아야 할 명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 5) 맺으며

강원일보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말 도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 생존자가 2명이라고 하였다. 1980년에는 황성군에만도 최양욱 지사 등 5명의 애국지사, 자녀, 만세운동 목격자(반곡리 박순기씨 등)도 여러분이 생존하여 필자가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처절했던 당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들이 다 세상을 떴으며, 위에 쓴 글 중에는 그분들이 생전에 회고한 것을 인용기도 하였다.

애국지사들은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 항일에 몰두하느라 그들이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으므로 근거 자료도 불충분하니 당시 애국지사 서훈을 휘하여 조사된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자손이 절손되거나 자손이 있더라도 무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조사되지 않거나 증인이 없어 누락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립운동은 자랑스러

운 일이 아니었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알려지면 일제에 의하여 많은 제제와 이로 인한 고난이 따랐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숨기고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없애야만 했다. 조동걸 교수는 그의 저서 『횡성과 3·1운동』 96쪽에 “이 날 피살자 중 4명은 직사했고 1명은 집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중상을 입고도 잡힐까봐 도망가야 했으며 기어가 집에서 죽어도 모두 쉬쉬하며 숨어서 장사를 치러 공식기록이 없어 보훈 대상에 들지 못하였으며, 동 저서 98쪽에는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일본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고, 모두 다른 곳으로 몰래 떠났기 때문에 그 후손을 찾지 못하였다. 상하가리에 살던 김연의 같은 인물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더불어 만주로 가 독립운동에 남은 삶을 바쳤으나 아무도 그 후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 증인도 세상을 떴고 그 참상들은 잊혀져 버렸다. 하지만 이 땅에 묻혀 있는 자료를 더 찾아 기존에 발굴된 것과 함께 선양,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장과 나라를 위하여 살다 가신 애국지사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참고문헌]

조동걸, 『횡성과 3·1운동』(1972.8.15, 현대인쇄문화사)

강대덕 외 공저, 『횡성 민족운동사』(2003.12.30, 횡성문화원)33

부록 3 | 횡성 3·1 운동기념비 기사

1) 횡성 「3·1 운동기념비」 제막  
김사장 시위참가 운동 등에게 기념패

동아일보 1972.8.16.기사

동아일보사와 강원도  
횡성군민이 공동으로 건  
립한 「3·1 운동기념비」  
제막식이 15일 오후 2시  
김상만(金相萬) 동아일  
보사장, 최종완(崔鍾洵)  
강원도지사 및 3·1운동  
횡성군유공자유족을 비  
롯 1천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횡성 「3·1 운동기념비」 제막식(맨 좌측 최종완 강원도지사, 한 사람  
건너 김상만 사장)

이 기념비 제막식에서 김상만 사장은 “우리민족정기를 민중의 토대 위  
에 꽃피게 한 기미운동의 정신으로 우리세대에 조국통일이 이룩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또한 당시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던 생존자 윤  
동선(尹東先)옹과 17명의 유족들에게 기념패를, 조호일(趙鎬逸) 횡성협  
찬회장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주었으며, 최종완 강원도지사로부터 「3·1



횡성 「3·1 운동기념비」제막에 관한 기사  
(동아일보 1972.8.16)

운동 정신의 선양에 앞장 선 공헌』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4m 높이의 흰 황동색에 검은 오석의 비문과 햇불을 든 구리조각의 이 장엄한 기념비는 동아일보사와 황성군민의 협찬회가 공동으로 부담한 250만원의 경비를 들여 만든 것으로 비문은 이희승(李熙昇) 박사가 짓고 서희환(徐喜煥)씨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중(金泳仲)씨가 조각을 맡았다.

이 기념비가 선 황성공원은 옛날 일본헌병대가 있던 자리로 김상만 사장이 제의, 즉석에서 「3·1 공원」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결정했으며, 황성군민들은 이 제막식 후 협찬회가 마련한 씨름, 그네 등 각종 민속경연행사로 축제기분에 들떠 있었다.



황성 「3·1 운동기념비」제막에 관한 기사  
(동아일보 1972.8.16)

## 2) 본사 유적 보존 사업 세 번째 결실

항일(抗日)의 얼 기린 3·1운동비(運動碑)

동아일보 1972.8.17기사

전국(全國)서 17곳 골라 자주정신(自主精神) 심어

이리·영동 이어 황성에... 그 자리를 「3·1 공원」으로

주민들 성금(誠金)에 본사(本舍)서 반액지원(半額支援)



15일 광복27주년을 맞아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진 「3·1 운동기념비」는 동아일보가 현지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전개한 3·1 운동유적보존운동의 세 번째 결실. 작년 광복절에 이리시 역전 광장에 세운 것이 그 처음이고 지난 3월 4일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53주년이 되는 그날 제막된 충북 영동의 두 번째 기념비에 이어 반년만에 건립된 것이다.

이번 기념비가 선 횡성은 1919년 3월 27일 천도교계의 면밀한 계획으로 수백 군민이 만세시위를 벌이고 잇따라 기독교인과 유림(儒林)의 참여를 받으며, 인근 면에 과상적으로 확대, 4월 12일까지 수천 명이 맨주먹의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강달회(姜達會), 하영현(河永賢), 전한국(全漢國), 강승문(姜勝文, 실체는 강성순임) 등 4명은 시위현장에서 왜경의 총칼에 쓰러지고 강만형(姜萬馨)씨는 옥사(獄死)했으며, 25명이 옥고를 치르고 수십 명이 부상한 3·1운동의 격전지. 김상만(金相萬) 동아일보사장의 제의해 의해 새로 「3·1 공원」으로 개명된 읍하리 언덕의 「3·1 운동기념비」는 이 같은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길이 기리게 된 것이다.

횡성군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앙양하려는 동아일보의 「3·1 유적지보존운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 자신의 향토적 명예를 선양(宣揚)한 모범적 케이스. 동아일보사가 횡성을 기념비건립 대상지로 선정하자 68년 10월 조호일(趙鎬逸, 농협 횡성군조합장), 전찬일(全燦一, 동



항일의 열거린 3·1운동비 신문기사  
(동아일보 1972.8.17기사)

아일보(황성지국장)를 중심으로 3·1운동기념비(황성협찬회)를 조직했다. 이 협찬회는 3·1운동의 황성지방사를 조동걸(趙東杰) 교수(춘천교육대)에 집필의뢰하는 한편, 내무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얻어 거금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약 700명의 군민이 각출한 성금은 125만원, 동아일보사가 내놓은 125만의 경비를 들인 장엄한 기념비를 완공하게 된 것이다. 비문은 다른 기념비와 마찬가지로 이희승(李熙昇) 박사가 짓고 국전 대통령상 수상 서예가인 서희환(徐喜煥)씨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중(金泳仲)씨가 햇불을 든 구리조각을 제작했다. 황성군은 이 기념비제막에 즈음, 조동걸 교수가 집필한 『황성과 3·1운동』을 출판(국판 208면·비매품)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3·1운동의 지방지(地方誌). 황성의 역사와 함께 기미년 당시 황성군민이 일으킨 격렬한 독립운동 활동사를 상세히 고증, 기록했다.

자기고장의 혁혁한 독립운동을 길이 기념하려는 현지민의 열성은 황성보다 앞서 이미 이리(裡里)와 충북 영동에서 먼저 결실했다. 작년 8월 15일 교통도시 이리의 역전 광장에 건립된 최초의 「3·1운동기념비」는 기미년 4월 4일 수만 명이 쫓겨,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문용기(文鏞琪)·박영문(朴泳文)·장경춘(張京春)·박도현(朴道鉉)·서정만(徐廷萬) 등 6명이 순국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백남산(白南山)씨를 대표로한 이리 및 익산군민 52명과 3개 단체로 구성된 이리협찬회(裡里協贊會)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3월 4일 영동을 중심지인 로터리광장에 제막된 두 번째 「3·1운동기념비」는 역시 서울의 만세시위에 바로 이어 1919년 3월 4일 수

만 명의 군민이 읍내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고 장태호(張泰浩)·정돈영(鄭墩永)·이낙연(李落然) 들 3명을 희생시킨 이 지방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기념하기 위해 43명의 군민과 군내 초중고생 등의 뜨거운 성원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한 독지가는 20만원을 쾌히 내놓았다. 두 개의 비문 역시 이회승·서희



충북 영동 「3·1 운동기념비」모습

환·김영중씨가 각각 글, 글씨 조각을 맡았는데, 동아일보는 항상 기념비제작 총경비와 50%를 담당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지원해 왔다.

동아일보사가 3·1운동의 중요유적지에 기념비를 세워 그 거룩한 정신을 만대의 후세까지 길이 받들어 드높이려 한(이회승 박사의 비문) 것은 1965년 4월로 창간 45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의 하나이다.

1920년 3·1운동의 정신적 소산으로 창간, 민족지(民族紙)로 자부하면서 민족의 운명과 함께 걸어 온 동아일보는 이미 1969년 국내외 학자 80여 명을 동원, 단일주제로서는 유례없는 규모로 학문적 결산을 이룬 『3·1운동50주년기념논집』을 간행하였다. 이 기념논집출판사업과 함께 유적기념비건립의 장기적인 방대한 작업을 지속사업으로 설정, 추진해 온 것이다.

기념비건립대상지는 국사편찬위에 의뢰, 신중한 조사 끝에 제시된 42개처를 김영상(金永上) 동아일보수석정책위원 천관우(千寬宇)씨(당시 동아일보 주필) 국사학자가 직접 현지를 답사, 각도 2개처(서울 제외),

제주도는 1개처 총 17개처를 최종 선정했다. 동아일보사는 이미 건립된 3개 기념비에 이어 매년 두 군데씩 연차적으로 「3·1운동기념비」를 세울 예정인데, 후보지는 경기의 수원(제암리)·안성, 충북의 괴산, 강원 의 철원, 충남의 천원(병천)·공주, 경북의 대구·안동(예안면), 경남의 부산진(합천), 전북의 남원, 전남의 광주·승주(낙안면), 제주도의 조천면 등이다.

3·1운동이 근래 국학계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 단순히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자결권(民族自決權)의 요구 시위였다는 평면적인 해석을 넘어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시민권행사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주체성(主體性)에 대한 재확인 과 민족경제의 성숙, 문화정신사적으로는 근대의식의 수용과 학문문예의 근대적 형성을 이룬 한국사의 귀중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1919년 한국근대사의 실질적인 기점으로 포착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3·1운동기념비」의 건립은 일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부터 소원(疏遠)해지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교훈을 받드는 한편 한국민족사의 발전에 한 정점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려는 국민적 열의(熱意)의 소산이다. 그것은 또한 유적에 대한 기념물을 거의 갖지 못한 우리 국민에 특이한 명소로 등장, 역사를 자신의 의식 속에 수용하려는 새로운 문화유산을 축적하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 부록 4 | 강원도의 인물 황성 독립운동가 최양옥

강원일보 2003.7.1

최양옥 지사는 구한말나라의 안팎이 어수선하여 국운이 기울던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부친 최재건, 모친 진주강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유년시절 화전리에서 자란 그는 신학문에 눈을 뜬 부친의 교육열에 힘입어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 1917년 졸업하였으며 청운의 뜻을 품고 그 해 3월 서울 중등중학교에 진학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그는 학생의 신분으로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 후 학교를 중퇴, 고향인 횡성에서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횡성 4·1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30여 년간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운명적 계기가 되었다.

땅거미가 깔려도 대한독립만세의 합성은 그칠 줄을 모르고 열기가 더해 갈 때 일본 헌병은 만세운동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횡성장날 수천 명 군중이 참여했던 만세운동으로 다섯 명이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순국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 체포되어 현장에서, 또는 감옥에서 고문 등 고초를 겪은 인사가 적지 않았다.

괴범벽의 이수라장이 된 가운데 최 지사도 현 횡성군청 옆 느티나무 밑에 죽은 척 쓰러져 있다가 어둠을 이용, 안흥면 상안리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잠복한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되던 중 횡성읍 추동리에서 수갑을 찬 채 탈출에 성공하여 일경의 추격을 피했으며 갖은 고생을 겪다 상경하게 되었다.

그 후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이동녕,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였다. 표면상 민주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던 신덕영을 1920년 7월 서울에서 만나 신덕영, 노형규 등과 부한청년단을 조직했다. 대동단원 전협과 연락하면서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해 전남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위급할 때 일경에 대항하기 위해 권총을 휴대하고 신덕영, 노기준과 함께 전남 담양군, 곡성군에서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다 동년 11월 5일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일경에 체포됐다. 갖은 고문 끝에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26년 출옥하였다.

출감 후 집에 오니 부친은 4개월 전 별세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정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가족을 돌보며 한달 여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잘 먹고 살게 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일경의 회유와 “이제는 독립운동 할 만큼 했으니 가정 좀 돌보라”는 가족의 간곡한 청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다시 만주에서 기별이 왔다. 동지가 할 일이 많으니 빨리 오라는 전갈이었다. 번뇌 끝에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기로 굳은 결심을 한 최지사는 가족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시 만주로 발길을 향하였다.

최지사는 중국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신덕영, 이용화, 김정련 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독립운동단체인 공명단을 조직,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비행사), 신덕영, 김정련(교사), 이선구(자동차 운전자) 등과 북만주에서 독립군비행사학교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기금 모집과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고자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였다.

여기에 딸의 죽음에 얽힌 슬픈 일화가 있다. 일경은 최 지사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중 양동에 갓 시집간 최 지사의 딸집에 잠복하였다. 딸은 집안에 들어오려는 일경을 제지하다 높은 뜰아래 밀쳐져 척추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 1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숨을 거두었다. 옥 중에서 딸의 비보를 접한 최 지사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술회하였다. 독립운동의 길은 이처럼 험난하였으나 최 지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에 잠입한 최 지사는 일제가 주최하는 만국박람회장소를 폭파하려다 경비가 삼엄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신출귀몰하게 일제를 괴롭히다 같은 달 20일 김정련, 이선구와 함께 서울 교외 망우리에서 천천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수송차를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최지사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물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본인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 버리고 동족의 우편물만 남겨 두었다. 이 때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두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 쪽으로 끌고 가서 앉혀놓았는데 그 수가 70명에 달했다.

이같이 산 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그 뒤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군 제19사단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을 포위했다. 최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

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1주야를 악전고투했으나 탄환이 떨어지고 지쳐 결국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최 지사 일행이 압송되는 장면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과감한 행동으로 일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체포될 때의 광경을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동 의거에 주동적 역할을 한 단장 최양옥의 체포에 대하여 백여 경관 포위하고 작일 미명에 돌입 포박 최후까지 대담한 최양옥”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 후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친 최 지사는 1929년 9월 20일 징역 10년, 김정련은 9년, 이선구는 6년을 선도 받아 최지사는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김정련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만기출옥하였다. 최 지사는 “이선구는 일제가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며 고문 후유증이 겹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고 회고했다.

애국동지, 천도교인과 규합하여 횡성 4·1만세운동을 주도한 최 지사는 1982년 8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의 광복된 훗날 매년 만세 합성이 울려 퍼졌던 횡성 3·1공원 느티나무 밑을 찾아 순국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였다”고 밝혔다.

독립운동 당시의 그 지긋지긋한 형무소! 하지만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광복 후에는 서대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였고 승진하여 인천형무소장을 역임하다



지팡이를 짚고 선천이 묻힌 선산을 오르내리던 생전의 선생 모습(1982년, 박순업 횡성문화원장 제공)

정년 퇴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하였다. 최 지사는 말년에 황성군 갑천면 전촌리에서 독립운동으로 생전에 못한 효를 실천하며 조상의 묘소를 돌봤다. 때로는 전촌 저수지에 낚시를 드리우며 노후를 보내다 1983년 5월 3일 91세를 일기로 격동의 생애를 마쳤다. 독립운동할 당시에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제와 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최 지사에게는 후세에 남기기 위한 기록이나 자료가 별로 없다. 그것은 오직 항일 그 자체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 지사는 국내 또는 이역 민주에서 독립운동으로 17년간의 옥살이를 증명하듯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살다 간 애국지사이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일제의 잔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에 몸 바친 최 지사의 행적을 조명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을 빛내는 것은 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박순업

(황성초등학교 교장, 지금의 황성문화원장)

## 부록 5 | 2017 황성 관내 향토사발굴 자료조사

- 황성의 의병 및 애국지사 강성순의 발자취를 찾아서

2017년 4월 10일, 봄이 기지개를 펴자 삼라만상이 온통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달래가 전령사인냥 곳곳에서 방긋 미소지으며 손짓을 한다. 따스한 햇살 또한 겨우내 혹한을 이겨낸 우리들과 자연에게 눈부신 아름다움을 준다.

오전 10시 황성문화원에 제2차 이사(임원)회의와 향토사료 발굴 조사를 위해 문화원 사랑방에 이사가들이 모였다. 1시간 남짓 회의를 하고 이어 박순업 문화원장의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관한 안내와 설명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관한 안내와 설명하는 박순업 황성문화원 원장

이 있었다. PPT에 담겨져 있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당신이 만난 그 인물들과 유적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애국의 고장 황성'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문화원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윤태환 애국지사 초상화였다. 그는 1919년 3·27만세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황성시장에서 30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는 큰 태극기를 들고 군중들 앞에 섰다가 독립선언서를 읽으려하던 신재근과 함께 제일 먼저 체포됐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 만세시위를 벌이려고 했던 군중들은 일본헌병들의 신

속한 지도자 검거와 군중해산으로 제대로 만세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지도자들만 체포되었다. 그날 신재근(당시 64세) · 장도훈(당시 49세) · 안경춘(당시 20세) · 강만형(당시 28세) · 윤태환(당시 22세)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의 판사는 신재근과 장도훈에게 각각 징역 2년, 최양옥의 처



윤태환 초상화

남이었던 안경춘에게 징역 10개월을, 강만형에게 징역 8개월을, 윤태환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경춘은 황성청년회 회원으로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황성감리교회에서 야학을 하였다. 당시 감리교회 성도는 몇 십 명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4·1만세운동 때에는 황성감리교회 성도였던 정해경, 탁영재 등도 참여하게 되는데, 정해경은 목사 대행으로 교회를 이끌었고 탁영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하여 훗날 철원 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애국단'이라 불렸다. 철원애국단은 1920년 초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하였는데, 탁영재는 이 일로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다음 사진은 윤태환 애국지사 딸 윤신자이다. 박 원장이 직접 1984년에 만났다. 부산에 사는데 오빠의 아들인 조카를 통하여 횡성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시위대에 나누어 주려고 장작을 쪼개



윤태환 애국지사의 딸 윤신자 모습(1984)

만세운동을 할 때는 학도가를 부르며 큰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어요. 아버지는 맨발인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는 용수가 씌워진 채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라고 하며 어릴 때의 쓰라린 기억을 말했다고 하였다.

이 사진은 3·1운동기념비이다. 횡성의 3·1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로 1972년 8월 15일에 제막하였다. 동아일보사가 창간 60주년 기념으로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웠으며,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邑下里) 3·1공원 내에 있다.



1972년 8월 15일 3·1운동기념비 제막식 광경과 현대의 3·1운동기념비 모습

이후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1984년 3·1운동기념비 옆에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황성에서의 만세운동이 도내에서 가장 치열했고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아 황성군수가 주관이 되어 건립한 즉 정부가 공인하는 3·1운동유적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분은 박순기 어르신이고 반곡리 사람이다. 당시 4·1만세운동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당시 황성면사무소 서기였다.

1982년 당시 독립운동가 최양옥과 동갑내기로 89세였다. 당시 “군수가 총소리나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며 중요문서는 다 반출하였다”고 하였다. 그



황성4·1만세운동 목격자 박윤기  
(1982년 당시 89세)

는 또 “당시 면사무소 앞에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는데 찾아간 시신도 있었고 찾아가지 않은 시신도 있었다. 방치된 시신은 자신이 주동이 되어 시장에 가서 광목을 끊어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상 입은 시체 자리에는 한 날 깊이까지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인물이 독립운동가 최양옥이다. 1982년 당시 만났을 때 부인이 제재를 했다고 한다. 기침이 심해서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허리도 심하게 꼬부라져 있었다. 나에게 “선생님(당시 황성초교 교사)이니까 일본 놈이 앞으로 다시 탄 짓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해요. 그것이 교육자 책무예요”라고 하였다. 그가 1982년 당시 황성에 와서 지역유지들을 만

나 4·1독립만세운동을 설명하였으나 모두들 거짓말로 여기며 사기로 치부하였다. 그는 “나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했겠나? 오직



황성4·1만세운동 참여한 최양옥  
(1982년 당시 89세)

독립을 위해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그는 4·1만세운동 하던 그날 저녁 한참 만세를 부르다가 상안흥리 처가로 도피했다가 일경들에게 잡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서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쇠고랑을 찬 채로 도망하여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그는 오직 독립운동의 길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걷다가 90세(1983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세한 것은 작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한 『황성인 최양옥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사진은 애국열사 강성순의 묘와 묘비이다. 강성순은 농사꾼 외아들이다. 4·1만세운동 당시 저녁 무렵 “여기서 만세 부르면 총에 맞는다”며 등을 떠밀던 친구에 의하여 향교맡까지 집을 향해 가다가 “총이 겁나 만세를 못 부르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냐”며 울부짖으며 되돌아가 앞장섰다가 총에 맞았다. 그의 나이 2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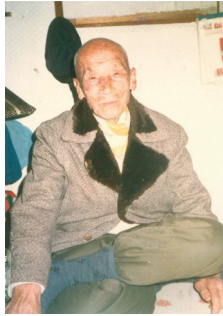


애국열사 강성순 묘

였고 노부모, 처, 7살 아들 인구를 남겨둔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인구는 장성하여 2남 2녀를 두었고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막내 병춘을 데리고 재가하였고 만이 병철이 머슴살이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탓에 훗날 공적조사를 할 때 할아버지 이름을 ‘강승문’이라 하여 모든 자료와 안내문에 ‘강성순’ 대신 ‘강승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유영근이란 사람이다. 1984년 만난 당시에 89세였다. 그는

강성순과 친구였고 최인순과 이웃이었으며, 한상열은 처삼촌이었다. 그는 “최인순이 순직하자 아들은 실성하여 죽고 손자 최봉수는 석공일을 하였다”고 하였



유영근(좌)과 최인순 손자 최봉수(우)

다. 또 “한상열 가정은 부자였고 강성순과 친구였으며, 누가 더 독립운동 치열하게 격분케 했느냐”하기도 하며 자웅을 겨루었다고 한다.

우측 사진은 최인순 의병장 손자 최봉수이다. 최봉수는 “늘 감시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 더욱이 할아버지 최인순의 시신이 없어 가묘



최봉수 팔자수염

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강릉 배다리전투에서 순직했을 때,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경포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할아버지 시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봉수는 팔자수염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최인순 의병장의 수염이 팔자수염이었기에 나도 한평생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

11시 40분에 박순업 원장의 향토사료발굴 자료 조사 안내 및 설명이 끝났다. 아주 상세하게 35년 전후의 관련자들과의 만남들을 상기하면서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곧장 황성보양식전문점으로

향했다.

중식은 11:50~12:40까지 황성보양식에서 하였다. 메뉴는 오리한방능이백숙을 먹었다.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황성군청의 한성현 담당 계장 등 21명이 참석하여 맛있게 먹었다. 모두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이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면서 푸는듯했다. 오후 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음주는 하지 않았고 오순도순 앉아서 막 피어오르는 봄의 향연을 이야기했다.

식사를 한 우리 일행은 12시 50분에 의병들의 거점이었던 봉복사를 향해 출발을 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있고 도로 주변이나 가정집의 담벼락 등등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으며, 가로수인 빛나

무에도 벚꽃이 피어있어 완연한 봄 정취를 맛볼 수 있었다. 약 30분 남짓 천천히 달리자 연등이 달려있는 도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니 「덕고산봉복사(德高山鳳腹寺)」라 쓰여진 표지석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약 200m 남짓 가니 봉복사가 있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쉽게 들어왔지만 1907~8년 당시에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도로에서 사찰로 들어오기 전에 왼쪽 언덕을 보면 삼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저 언덕 위 삼층석탑 자리가 사찰의 원래 터라고 한다. 1907년 말 일경이 의병의 주거지를 없애기 위해 사찰을 불태웠던 것이다. 그 후 더 깊숙이 들어와서 지은 것이 지금의 봉복사이다.

봉복사에 도착하여 사찰 입구에서 자신이 봉복사 안내문 앞에 서서 봉복사에 대한 연혁을 간략히 이사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특히 “사찰 이름이 봉복사(鳳腹寺) 즉 봉황의



봉복사를 배경으로 기념하는 황성문화원 이사들

배에 해당되는데, 봉황의 머리를 의미하는 설악산 봉정사에서 시작해 이곳 황성 봉복사로, 그리고 봉황의 꼬리에 해당하는 여주 봉미산 신록사로 이어진다”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말하였다. 그리고 “이곳 봉복사 및 주변에서 민궁호, 이강년 등 당시 가장 많은 활약을 펼친 의병장들이 거점으로 삼고 활약하였다. 1907년 9월 23일 민궁호 의병장이 35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한 관계로 사찰이 전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봉복사를 배경으로 입구에서 단



체 사진을 찍었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봉복사(鳳福寺)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번지에 있는 봉복사(전통사찰 제14호)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로서, 덕고산(현재 태기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에 있는 현존사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647년(신라 선덕여왕 16)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창건하고 삼상(三像)을 조성하여 봉안한 뒤에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봉복사(鳳腹寺)라 하였다. 652년(진덕여왕 6)에 낙수대(落水臺), 천진암(天真庵) 등의 암자를 지었고 669년(문무왕 9)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671년(문무왕 11)에 원효조사(元曉祖師)가 중건(重建)하고 이때 사찰의 이름은 봉복사(奉福寺)였다. 1034년(고려 덕종 3)에는 도솔암(兜率庵), 낙수암(洛水庵)

#### 봉복사(鳳腹寺)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번지에 있는 봉복사(전통사찰 제14호)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로서, 덕고산(현재 태기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에 있는 현존 사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647년(신라 선덕여왕 16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창건하고 삼상(三像)을 조성하여 봉안한 뒤에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봉복사(鳳腹寺)라 하였다. 652년(진덕여왕 6년)에 낙수대(落水臺), 천진암(天真庵) 등의 암자를 지었고, 669년(문무왕 9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671년(문무왕 11년)에 원효조사(元曉祖師)가 중건(重建)하고, 이때 사찰의 이름은 봉복사(奉福寺)였다. 1034년(고려 덕종 3년)에는 도솔암(兜率庵), 낙수암(洛水庵)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1747년(조선 영조 23년)에 서곡선사(錫谷禪師)가 중건하였다. 산내에 암자만 9개가 있었고 한때는 승려가 100명이 넘었으며 구한말에는 의병장이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하다. 1901년 화재로 다시금 손상된 것을 1907년 위훈(尉勳)이 중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꾸었고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불이 탄 것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복사 사찰명세 대하여 기록한 기록은 있으나, 처음에는 봉복사(奉福寺)로 불려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건물로는 인법당과 삼성각, 국사당,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자방이 세운 삼층석탑이 있으며, 이 탑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사찰 입구의 부도군에는 7기의 부도와 비석 1기가 놓여 있는데, 모두 조선 후기의 부도이다.

#### 봉복사 안내문

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1747년(조선 영조 23)에 서곡선사(瑞谷禪師)가 중건하였다.

산내에 암자만 9개가 있었고 한 때는 승려가 100명이 넘었으며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하다. 1901년 다시금 손실된 것을 1907년 취운(翠雲)이 증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뀌었고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불에 탄 것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복사 사찰명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처음에는 봉복사(奉福寺)로 불리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건물로는 인법당과 삼성각, 국사당,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자장이 세운 삼층석탑이 있으며, 이 탑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사찰입구의 부도군에는 7기의 부도와 비석 1기가 놓여 있는데 모두 조선 후기의 부도이다.

위의 안내문에서는 “1901년 다시금 손실된 것을 1907년 취운(翠雲)이 증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뀌었고”로 되어있는데, 원래 봉복사는 지금의 사찰에서 약 700m 떨어진 삼층석탑이 소재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봉복사(鳳腹寺)의 사찰명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범우고(梵宇攷)』에는 ‘奉福寺在德高山’으로, 『횡성읍지(橫城邑誌)』와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奉福寺在縣北七十里五房’으로, 『관동지(關東誌)』와 『관동읍지(關東邑誌)』에서는 ‘鳳腹寺在縣北七十

里五房今爲單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봉복사(奉福寺)로 불리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주변에는 맷돌 등 석조물과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다. 외편은 수지문(樹枝文)과 기하학적 문양의 평외편(平瓦片)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찰 입구의 부도군(浮屠群)에는 부도 7기와 비석 1기가 있는데, 모두 조선후기의 부도이다

우리 일행은 사찰 경내를 돌아보았다. 새로 지어진 사찰 자체의 의미보다 700m 앞 쪽의 원래 사찰터와 이곳 사찰터에서 의병들의 은거지, 훈련장소, 격전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원래 사찰터 보다는 이곳 현존하고 있는 이 사찰터가 의병들이 주둔하여 훈련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되었다. 수백 명씩 또는 수십 명씩 이곳저곳 등지에서 훈련을 하고 전투하던 모습도 생각해 보았다.



신대리 삼층석탑이 있는 원래 사찰터와 700m 깊숙이 자리잡은 지금의 사찰 모습

지금의 사찰 주변을 둘러보며 의병들의 활동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일행은 최인순 의병장 집터를 향해 출발했다. 봉복사에서 2시 5분에 출발하여 천천히 봄내음을 맡으며 달렸다. 산에는 진달래

가 피어있고 도로변에도 가로수에 노란 꽃들이 피어있었다. 우천면을 향해 5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우회전하여 우천초등학교를 지나 하수교를 건너 법주로를 따라(국도에서 이



우천면 법주리 최인순 의병장 집터

곳까지 2.5km) 35분 만에 도착한 곳이 최인순 의병장의 집터이다. 도로에서 160m 떨어진 곳에는 황성야생화 분재원(황성군 우천면 법주로 129번지)도 있다. 당시 최인순 의병장의 처는 일본 관헌들이 거꾸로 나무에 매다는 등 박해가 심해 숨어 다니느라고 이곳의 집에는 거의 살지 못했다고 하였다.

박 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최인순은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원주진위대에서 이참령(李斬領) 대대의 소모대장(召募隊長)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원주를 침입하려고 하자 이참령이 8백여 명의 군대를 해산하고 도피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해산 직전의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무장시키는 한편, 의병을 모집하여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적군과 교전하였다. 같은 해 7월 이후 황성·강림·평창·대화 등지에서 교전하였고, 진부에서 교전 후 강릉 배다리에서 전사하였다. 시신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경포바다에 넣었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강성순 묘소를 찾았다. 학곡저수지(구룡뉴시터)에서 우회전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나온다. 저 멀리 언덕위

에 아담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먼저 묘비를 살펴보았다.

강성순 묘비는 198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이수((碑座螭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수에는 앞뒤로 구렁이두 마리가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투고 있는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2단으로 이뤄진 대



애국지사 강성순 묘소 앞에서 문화원 이사와 손자 며느리

석에는 무궁화가 새겨져있다.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비의 마모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자경은 앞면 10cm, 뒷면 2cm다. 부인청주한씨(淸州韓氏)를 합장하였으며, 봉분은 사각돌레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석과 향로석, 혼유석이 있고, 묘소 좌측으로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이 1기씩 놓여 있다.

### 순국열사(殉國烈士) 진주강공성순지묘(晉州姜公聲順之墓)

공의 휘(諱)는 성순(聲順)이요 자(字)는 사운(士允)이니 본관은 진주요 성은 강씨이다. 시조는 고구려 명장이신 원수공(元帥公) 휘 이식(以式)이시며 원세손(遠世孫) 박사공(博士公)

휘 계옹(啓庸)의 7세손 통정공(通政公) 휘 회백(淮伯)으로 1자가 장령공(掌令公) 휘 종덕(宗德)이라 이분의 1자이신 군수공(郡守公) 휘 자신(子愼)의 12세손 휘 유(瑜) 호(號) 상곡(商谷)은 이 조판서 대제학을 지내셨으니 공은 13세손으로 갑오년에 부친 휘 호원(浩遠)과 모친 해주오씨(海州吳氏)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 인생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殉國烈士)이시다. 공의 조고(祖考) 휘는 대완(大完) 신해년 7월 13일 졸하시고 조비(祖妣) 영월신씨(寧月辛氏)는 정해 7월 2일 졸하시니 묘는 정암지통곡(正菴紙筒谷)에 계시다. 고(考) 휘는 호원(浩遠)이시니 무진생 계유 3월 10일에 졸하시고 비(妣) 해주오씨는 계미 12월 24일에 졸하셨으니 묘는 범주리 유좌(酉坐)에 안장하셨다. 배(配)는 청주한씨(靑州韓氏)로 1950년 6월 16일에 졸하셨다.

공은 시대적(時代的)으로 좁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自由)마저 빼앗긴 일제통치하(日帝統治下)의 억압된 세파(世波)속에서 나라 잃은 설음을 금할 길 없는 세상을 살으셨다.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순국열사 강성순의 묘비 전후면



전개되고 있었을 때 공이 살고 계신 황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차로 기미년(己未年) 2월 27일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2차로 3월 1일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이 있기까지 공은 동분서주(東奔西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 잡으며 사랑하는 조국(祖國)의 자유독립(自由獨立)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시다. 더구나 황성의 3.1운동은 천도교회(天道教會)에 의해 추진(推進)되었던 바 공도 천도교인이셨던 것이다. 공은 최종하 윤태환 탁영재 전성수 최두수 등 십수명과 함께 추진 그 활약이 다대한 것으로 황성과 3.1운동이란 책에 수록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이 서거(逝去)하신 3월 1일 만세운동은 1,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의기(義氣)는 대단하였을 것이라. 나라 잃은 백성들은 일본군의 군화발과 말굽에 밟힌 지 수십 년 동안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아왔던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운동(運動)이야말로 조국 없는 백성은 없고 백성없는 나라는 없다는 말과 같이 정용에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함이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한맺힌 투쟁이었다.

대한독립(大韓獨立)만세! 조선독립(朝鮮獨立)만세! 공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後孫)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이렇게 서광(瑞光)하지 않은가? 길이 후손에 물려줄 기상(氣像)이요 영원(永遠)한 빛이요 만만대(萬萬代)에 별이 되시리라! 고이 평안하옵소서.

공의 묘(墓)는 백자동(栢子洞)에서 서기 1989년 11월 1일 바

## 리골로 이장(移葬) 건좌(乾坐)

서기 1989년 11월 1일 세움[暨]

사자(嗣子) 인구(仁求)

장손(長孫) 병철(秉哲) 병춘(秉春)

증손(曾孫) 영묵(榮默) 도엽(到燦)

현손(玄孫) 교식(教植)

이 때 한 할머니가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애국지사 강성순의 손자 며느리였다. 우리 일행을 위해 박카스 두 박스를 사 왔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의 내력과 얼마나 고된 삶을 영위했는지도 이사를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할아버지(강성순)가 27세 총탄에 맞고 돌아가셨을 때 노부모, 처, 7살 아들 인구만 남았었다. 그 후 처는 아들을 남겨두고 원주의 순흥안씨에게로 재가를 하였다. 아들 인구는 어렵게 살면서 성장하여 2남 2녀를 두었지만 32살에 처와 아이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강인구)는 어렵게 살면서 성장하여 2남 2녀를 두었지만 32살에 처와 아이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



애국지사 강성순 손자 며느리

에 처는 막내 병춘을 데리고 우천면 권씨에게 재가하였고 딸 병례와 병연은 서울 남의 집으로 보내졌으며, 8살 병철은 학교도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하다가 11살부터 머슴살이를 하였다. 늘 성실했던 그는 17살에 청송심씨 옥지와 결혼하여 6녀 1남을 낳아서 남들처럼 공부는 제대로 못시켰지만 모두 잘 키워 출가시켰다. 훗날 강병철은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 옆에 묘를 썼다고 한다.

이곳에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 3.5km를 달려 문암리 버스 승강장에 도착, 뒷길로 30m 정도 들어가자 추모비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상열 의사 추모비 안내문

1876년 4월 2일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 공과 모친 연일정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청소년 시절에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상실과 1895년의 을미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품게 되었다.



한상열 의사 추모비 안내문

1907년(광무 11년)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자, 원주진위대 군사가 특무정교 민공호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왜병과 전투를 벌인 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선생은 32세의 청년으로 의병 200여 명을 모아 지평, 홍천, 원주, 평창, 영월 등 지역에서 다수의 왜병을 죽이고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큰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8년 2월에는 홍천에서 왜군 부대와 크게 접전을 벌여 이를 격퇴시키니, 이에 분노한 일제는 4월 2일에 황성의 일본수비대를 파견하여 홍천군 월운리 서북후동(西北後洞)에 은거하던 선생의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다하였으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 20일에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의 황성 본거지를 습격하여 왜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일제의 계획적인 대진압작전으로 의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미의병은 점차로 해산하게 되었다.

경술국치 후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힘을 합하고 대한의용부 참모로 활약하였으며 병인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그해 9월 19일 좌익단체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 51세였다.

선생의 시신은 동지들이 만주 길림성 훈춘현 산채구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지만 아직도 독립된 고국에 돌아와 묻히지 못함을 절통히 여겨 그 추모의 정을 만분의 일이나마 위로하고자 선생의

고향마을에 이 비를 세웠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항일 투쟁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하였다.

안내문을 읽어본 다음 「한상열의사추모비」 옆으로 다가가서 추모비를 보고 있을 때 박순업 원장의 설명이 잠깐 있었다. “한상열 의병장은 선비였지만 대담했다고 한다. 홍천에 처자식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항복할 것을 회유하기도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횡성 본거지를 습격하였고 무기의 열세로 참패를 당하였다.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참모장으로 활약하다가 총에 맞아 순직하였다. 생가터는 안쪽에 있다”고 말하였다. 「한상열의사추모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상열의사추모비

선생의 성은 한씨(韓氏)요 이름은 상열(相烈) 혹은 상열(相說)이요 자는 문극(文極)이니 본관이 청주로서 시조 태위(太尉) 위양공(威襄公) 휘(諱) 난(蘭)의 32세손이요 절도사(節度使) 공 휘만손(萬孫)의 18대 종손이다. 고종 13년 병자(丙子) 1876년 4월 2일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韓東洙) 공

과 모친 연일정씨(延日鄭氏)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청소년 시절에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상실과 고종 32년 1895년의 을미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품게 되었다.

광무 9년 1905년에 일제의 한국병탄(併呑)야욕이 노골화 되고 을사5조약을 체결(勒結)

하자 이에 분개하여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등 자결하는 인사들이 속출하더니 다음해에는 제2차의병인 병오의병(丙午義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의 의병은 충청도의 민종식(閔宗植) 선생과 전라도의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광무11년 1907년에 해아밀사사건(海牙密事事件)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마침내 전국적인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제3차의병 또는 정미의병(丁未義兵)이라 부른다.

이전의 을미의병이나 병자의병이 대체로 노장층(老壯層)의 유림지도자(儒林指導者)가 중심이 되었던데 비하여 정미의병은 해산된 구한국 군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서 군사에 밝은 청년들이 앞장을 서는 의병이었기 때문에 왜병의 피해도 전보다 훨씬 큰 것이



한상열의사추모비



었다. 그런데 정미의병은 원주진위대 군사가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공호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왜병과 전투를 벌인 후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때에 선생은 32세의 청년으로 이웃고을에서 일어남을 보고 자신도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의병 200여 명을 모아 지평, 흥천, 원주, 평창, 영월 등지에서 적을 공격하여 다수의 왜병을 죽이고 무기와 탄약 등을 노획하였는데 왜적과의 교전이 수백 회이며 군사가 많을 때에는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무신(戊申) 1908년 2월에는 흥천에서 왜군 대부대와 크게 접전을 벌여 이를 격퇴시키니 이에 분노한 일제는 4월 2일에 황성의 일본수비대를 파견하여 흥천군 월운리 서북후동(西北後洞)에 은거하던 선생의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다하였으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 20일에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의 황성 본거지를 습격하여 왜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일제의 계획적인 대진압작전(大鎮壓作戰)으로 의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미의병은 점차로 해산하게 되었다.

경술국치 후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3·1운동 다음해인 경신(庚申) 1920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힘을 합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 참모로 활약하였으며 병인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그해 9월 19일에 민족진영의 분열과 그들의 주도권 장악을 노린 좌익단체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 51세였다. 선생의 시신은 동지들이 만주(滿洲) 길림성(吉

林省) 혼춘현(琿春縣) 산채구(山菜溝)에 권조(權厝)하고 아직도 독립된 고국에 반장(返葬)하지 못하여 그 혼백이 만리타국에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겠다.

선생의 배(配)는 밀양박씨이며 계손(系孫) 정희(正熙)와 일녀를 두었고 정희는 재진(載珍)·재화(載華)·재욱(載旭) 삼남과 삼녀를 두었으며 재진은 영호(英鎬)·장호(章鎬)·경호(敬鎬) 삼남과 일녀를 두고 재화는 사녀를 두고 재욱은 아들 창호(昌鎬)와 일녀를 두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항일투쟁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계묘(癸卯)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단장(建國功勞勳章)을 추서 하였다.

이제 선생의 장손 재진씨가 선생의 묘소를 고국으로 반장치 못함을 절통(切痛)히 여겨 그 추모의 정을 만분의 일이나마 위로하고자 선생의 고향마을에 이 비를 세우니 선생의 혼백은 이 돌에 의지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빈다.

단기 4325년(1992) 10월 10일

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박한설(朴漢高) 근찬(謹撰)

대한민국 광복회 강원도 지부 후원

강원도 횡성군수 유재규(劉在珪) 후원

청주한씨 절도공파 증친회 근립(謹立)

의사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중희(韓宗熙)

1993년 6월 26일 근립(謹立)

일행은 박 원장의 설명도 듣고 추모비도 읽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한상열 의병장의 생가터를 향했다. 추모비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100여 m 가서 산 밑을 보면 2층 양옥집이 있는데 그곳이 생가터이다. 산을 등지고 남향을 향하고 있는 아담한 터였다. 필자는 박순업 원장과 마을 뒷산까지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 보고 돌아왔다.



한상열 의사 고향 문암리 마을 전경과 생가터(산 밑 2층가옥 부근)

이렇게 봄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횡성문화원 이사들과의 향토유적을 답사하였다. 의병들의 근거지 봉복사, 최인순 의병장 집터, 애국지사 강성순 묘소 탐방 및 손자 며느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애국의 고장 횡성’을 다시 실감하였다.

지난 겨울에도 혹한이 있었는데도 삼라만상의 갖가지 나무와 풀과 꽃들은 새 움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의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하였다. 마치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지금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같이!

부록 6 | 신문기사로 본 황성의병과 독립운동가

강원도의병 상황보고 - 민근호, 오경묵, 심상희 등

(대한매일신보 1907-10-31)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씨가 해도(該道) 각 군 정황을 조사하여 내부에 보고하였는데, 도내에 의병괴수는 원주진위대 전 특무정교



민근호이며, 그 부하가 다 해산한 병정이고, 홍천군에는 슈셔기와 리숙들이 다 도망하여 보이지 않고, 순검 삼명은 위협을 못 이기어 따라 갔다 하면서 불려도 오지 아니하고 황성군 슈셔기 오택선의 아버지 오경묵(오경묵)이는 일찍이 완만한 아전으로 산포수를 많이 모았으며, 또 노동자 6~7명을 거느려 작폐가 무수하고 지평군에 사는 이인영과 이기준과 원주시는 장경환이 산포수 수백명을 거느리고 홍천과 인제 지경에 왕래하다가 이제는 절반이나 해산하고 홍천사는 박량직과 이한재가 홍릉 사는 쥬가로 더불어 산포수 삼백여명을 거느리고 인제로 들어가다가 일본 병사를 만나 도망하고 양근 사는 전 참령 심상희가 해산 병정 수백명을 거느리고 홍천에서 인제에 들어가다가 일본 병사를 만나 헤어졌다더라.

## 의도행동(義徒行動) - 심상희, 여용서 등

(황성신문 1907-11-10)

지난 달 31일 밤에 의도 약 400명이 회양군에서 일본우편국 호위병과 전투 중이라는 보고가 있어 고산지(高山地)에서 응원대 10여명이 급행하여 이번 달 1일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그 지역에 주둔한 백정(白井) 대위 등이 평강 방면으로 전진하여 의도를 추격 중이라 하였고, 신림(新林), 성남리(成南里), 황화(黃化), 신수정점(新水亭店), 송치(松峙), 주천(酒泉) 및 기타 도로 양측 산간부락에 의도 1천 200명이 둔재하여 12~3일 전부터 동복제작과 모피 수집, 양식퇴적과 재화의 약탈이 무소부지(無所不至)인데, 부근 촌민이 동정을 표하여 원근(遠近) 촌락에서 물화의 집류(執留)에 노력한다 하였다.

이들 의도(義徒)는 향자(向者)에 강원도 선유사의 일행을 습격하여 그 위원 권태준(權泰駿)을 포획·협박하고 선유사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함으로 우매한 인민은 성의(聖意)를 오해하고 원근에서 그 무리에게 투항한 자가 있는 즉, 지금에 소탕치 아니하면 그 세력이 더욱 증가하리라 하고, 또 홍주(洪州)에서 온 자와 횡성부근을 경과하여 온 자와 문막 방향에서 온 자와 양근 이포 부근에서 온 자 등이 10여일 전부터 점차 모여 횡성~지평간 모고곡(毛古谷)이라 칭하는 큰 땅에 둔취하여 그 근방 고지(高地)에 방어공역(防禦工役)을 시행하고, 초병(哨兵)을 배치하여 엄중히 계엄하며, 월동 준비에 분망(奔忙)하였다. 또 격문을 돌려 의도취집을 힘쓰고, 일거(一擧)하여 원주·충주를 탈취하고 대거(大擧)하여 경성으로 향한다고 성언(聲言)하는데, 토인의 말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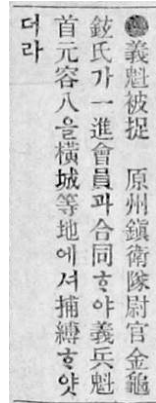


의대장을 칭하고 창의격문을 미리 통지하였으며, 포군(砲軍) 200여 명이 인솔하고 본군(本郡)을 내왕하여 소재하는 포군을 모두 소집한 바, 군의 사세(事勢)에 실로 어찌할 바(實爲罔措)를 모른다고 하여 영월군에 처음 들어 왔을 때에 그 수가 1백 2~30명에 그치더니 불과 며칠(幾日)만에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져서 현재 치성(熾盛)의 세력으로써 소요의 폐에 이르렀다 하였더라.

### 의괴피착 - 원용팔

(황성신문 1905-9-20)

원주진위대 위관(尉官) 김구현씨가 일진회원과 합동하여 의병괴수 원용팔을 황성 등지에서 포박하였다더라.



### 지방정형 지방 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

(대한매일신보 1907-08-14 / 3면)

지방 각군의 통신을 거한 즉 의병이 춘천군으로부터 와서 가평군을 쳤다 하였고, 원주에서는 해산한 병정이 화적당과 합하여 300여 명이 영천군에 모여서 점점 창궐한다 하고, 안동 진위대 병정은 아직도 해산치 아니하고 의병과 합세하라 한다 하였고, 통진군은本月 11일에 강화에 패

▲디방병정  
 덕방관군의공신을거복후의  
 병이충천군으로오러와서  
 가평군을첫다나고  
 원주에는원산로병영이  
 거창과함양이삼거리에서  
 영천군에오혀서정전창  
 평창다나고  
 안동진위병영은안동  
 도원산처아니하고의병  
 기함세차라나고  
 우정군은보살신영과남  
 회피로병영은이동전  
 수송회기와서총과탄약을  
 달나가지로위협을당치  
 못하여군수와순검은총  
 직에가서숨으리인심이총  
 주박다나고  
 근산군은위협은주의를  
 품은군수가안장을더지  
 고안동위안수를잃은  
 성은어나는데폭동이있  
 습는지모르겠다하였고  
 의주군은대단히위험한  
 형세가있어서길에행인이  
 끊어지고  
 원주의진위대는인민수  
 백명과협력하여주천과  
 횡성의두길로분파하여  
 나아갔다하고  
 본월  
 10일에의병300여명이  
 제천군에들어왔고  
 강릉군에서는평창군  
 으로는체전부는중적이  
 불명하며두고을사이에  
 의병수효가600여명인  
 데강릉군을근거지로  
 정하고다시크게모여  
 경성을도륙한다고  
 각군에격서를돌리는데  
 형세가심히급한지라  
 원산에있는일본군대  
 에서1중대를그지방  
 으로보내어접전케  
 한다하며  
 원주군에서는의병이  
 나아간후로인민이환  
 산하때일병이엄절히  
 수탐한다하였고  
 원주에서나  
 이간한병과의병은  
 어제흥천군에서합  
 하여총과탄환을가  
 지고평창군방면으로  
 향하였는데그수효가  
 1천명이상이라하였  
 고(중략)

한 병정들이 통진군수에게 와서 총과 탄약을 달라하기로 위협을 당치 못하여 군수와 순검은 촌집에 가서 숨으매 인심이 흥흥하다 하였고, 금산군은 배일하는 주의를 품은 군수가 안장을 더 지고 갔는데 군수를 잃은 백성들은 어느 때에 폭동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하였고, 여주군은 대단히 위험한 형세가 있어서 길에 행인이 끊어지고, 원주의 진위대는 인민 수 백명과 협력하여 주천과 횡성의 두 길로 분파하여 나아갔다하고, 본월 10일에 의병 300여 명이 제천군에 들어왔고, 강릉군에서는 평창군으로 가는 체전부는 중적이 불명하며 두 고을 사이에 의병 수효가 600여 명인데 강릉군을 근거지로 정하고 다시 크게 모여 경성을 도륙한다고 각 군에 격서를 돌리는데 형세가 심히 급한지라 원산에 있는 일본군대에서 1중대를 그 지방으로 보내어 접전케 한다 하며, 원주군에서는 의병이 나아간 후로 인민이 환산하때 일병이 엄절히 수탐한다 하였고, 원주에서 나아간 한병과 의병은 어제 흥천군에서 합하여 총과 탄환을 가지고 평창군 방면으로 향하였는데 그 수효가 1천명 이상이라 하였고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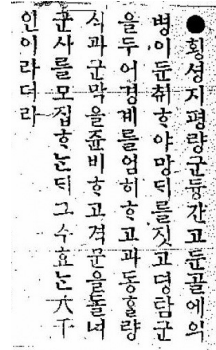


하고, 의병은 산면으로 퇴각하였다 하고 백성들은 산곡 중으로 피란하였다더라.

### 횡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에

(공립신보 1907-12-06 / 2면)

횡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에 의병이 주둔하여 망루를 설치하고, 정탐병을 두어 경계를 엄히 하고, 겨울을 날 양식과막사를 준비하고, 격문을 돌려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수효는 8,000명이라더라.



### 충주전을 거한 즉 거월 19일 경시 李南寧씨가

(황성신문 1908-04-05 / 2면)

홍천군 서석면 청양리에서 의병 한 상열(韓相烈) 등 250명과 교전 3시간 만에 탄약이 꺾절하여 부득이 횡성으로 철환하였다가 경시 박태영(朴泰榮), 박영진(朴榮鎭) 양씨의 협력을 얻어 재차 공격을 개시하여 금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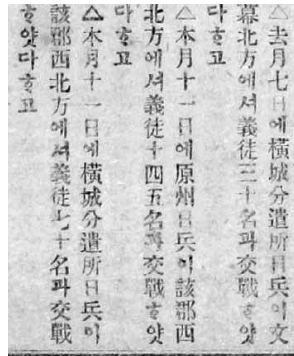


2시간을 전투하다가 재차 청양리에서 3시간 반을 교전한 후에 추격하여  
 황성군 곡일리에 이른즉 의병들이 그 때 이하영(李夏榮) 등 약 30명과 협  
 력하여 강경히 저항하였다 하고

### 거월 7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문막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5-22 / 2면)

- △ 지난달 7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  
 이 문막 북방에서 의병 30명과 교  
 전하였다 하고
- △ 이달 11일에 원주일병이 원주군 서  
 북방에서 의병 14, 15명과 교전하  
 였다 하고
- △ 이달 11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황성군 서북방에서 의병 70명과 교  
 전하였다 하고.



### 황성 흥학(興學)

(황성신문 1908-08-26 / 1면)

황성군은 일도 문향으로 저명하되 당차쇄신 시대하여 한 개의 학교가

없음을 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니 음력  
 금 6월초에 본도 학회가 발기함을 개제하  
 여 본군수 심흥택(沈興澤씨)와 군내 유지  
 신사가 지회를 창립하고 멀지 않는 기일에  
 학교를 또 설립하여 학원이 50~60인에 달  
 함이 본군수가 열심 권면으로 학원이 자자  
 불염(孳孳不厭)하여 장진의 망이 대유하  
 다더라

橫城學 橫城郡은 一道文鄉으로  
 著名이 되當此刷新時代가야 一個學校  
 가 無용을 人莫不慨歎이더니 陰今六月  
 初에 本道學會가 起함을 階梯가야 本郡  
 守沈興澤氏與郡內有志紳士가 支會를  
 創立하고 不幾日에 學校를 又設호야 學  
 員이 五六十人에 達호의 本倅가 熱心勸  
 勉으로 學員이 孳孳不厭호야 將進의 望  
 이 大有호다더라

###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전보다 더 성하는 모양이며

(대한매일신보 1908-10-22 / 3면)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더 발생하  
 는 모양이며 황성과 마년과 영천과  
 삭녕 각군에서 의병장 연기호씨의  
 거느린 의병 백여 명이 출몰하여 일  
 본토벌대와 수차 충돌하였는데 그  
 의병은 주황색 옷을 입고 군기는 신

다방정형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전  
 보다 더 성하는 모양이며 황  
 성과 마년과 영천과 삭녕  
 각군에는 의병장 연기호씨  
 의 거느린 의병 백여명이 출  
 몰호야 일본토벌대와 수차  
 충돌하였는데 그 의병은 주  
 황색옷을 입고 군기는 신  
 식총과 단발총이 많으며 또  
 화승총을 각자 가졌는대  
 파주와 양주지방에는 의병  
 장 윤인순씨가 의병을 모  
 집하는 중이라 하고

식총과 단발총이 많으며, 또 화승총을 각각 가졌다 하며 파주와 양주지  
 방에는 의병장 윤인순씨가 의병을 모집하는 중이라 하고,



## 화성교 시험

(대한매일신보 1909-02-15 / 3면)

황성군 화성학교는 설립한 지 5개월에 황성군수 심홍택씨의 권면과 임원재씨의 열심으로 주야 학생도가 60여 명이라. 연중 시험을 지내었는데 우수생에 오지영, 한상익 등 4인이오 급제생에 신현구, 임덕수 등 8인이오 황성군 관동지회에서 상품도 많이 주었다더라

(三) 號 六 十 九 百 四 第

● 화성교 시험 황성군 화성 학교는 설립한지 오상에 허 군수 심홍택씨의 권면과 임원재씨의 열심으로 주야 학생도가 육십여 명이다. 연중 시험을 지내었는데 우수생에 오지영 한상익 등 4인이오 급제생에 신현구 임덕수 등 8인이오 황성군 관동지회에서 상품도 많이 주었다.

##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황성군 지방에만

(대한매일신보 1909-05-22 / 3면)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황성군지방에만 의병장 김치영씨의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는데 민정이 오오하여 배일주의가 많으며 이번 발표한 신세법에 대하여 더욱 불을 하다하고

다 함 정 영

▲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황성군지방에만 의병장 김치영씨의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는데 민정이 오오하여 배일주의가 많으며 이번 발표한 신세법에 대하여 더욱 불을 하다하고

## 가상한 일

(대한매일신보 1910-04-09 / 1면)

강원도 횡성군 부동리 부  
산학교는 본래 십실잔촌에서  
설립한바라 재정할 관출할  
방침이 없음을 불언가상할  
바거니와 신문을 구람하다  
가 대금 청장할 길이 없어서

●가상한 일

강원도 횡성군 부동리 부  
산학교는 본래 십실잔촌에  
서 설립한바라 재정할 관  
출을 방침이 없음을 불언가상  
할바거니와 신문을 구람  
하다가 대금 청장할 길이 없  
어서 신문을 정지할 지경이  
되엇더니 그 학교 여러 생  
도가 꺾린 먹기를 끊고 신  
문을 계속하여 구람하기로  
결심하매 그 학교 임원들도  
학도들의 가상한 마음을  
위하여 일제히 담배를 끊  
엿다더라

신문을 정지할 지경이 되엇더니 그 학교 여러 생도가 꺾린 먹기를 끊고 신문을 계속하여 구람하기로 결심하매 그 학교 임원들도 학도들의 가상한 마음을 찬성키 위하여 일제히 담배를 끊었다더라

## 횡성

(신한민보 1919-07-08 / 2면)

5월 27일에 수백여 명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크게 시위운동을 펼칠 때에 왜적수비대와 경찰대가 풀어나와 서로 충돌되어 인민층에서 다수히 살상되었다 하며

**횡성**

五月二十七日에 수백여명 군중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크게 시위운동을  
펼칠 때에 왜적 수비대와 경찰대가 풀어나와서  
충돌을 하여 인민층에서 다수히 살상되었다  
하며

## 의병전(9) 강원도에는 평강에

(독립신문 1920-05-22 / 1면)

강원도에는 평강에 김정식(金正植), 횡성에 김치영(金致榮), 김화에 유학근(柳學根)·안창근(安昌根), 흥천에 김춘수(金春洙)·이병수(李秉洙), 영해에 정문칠(鄭文七) 그다음 채응경(蔡應慶)·姜두필(姜斗弼)은 이천에서 부하 80여 인을, 노윤선(盧允善)은 영월에서 400군(軍)을, 김윤배(金允若)은 관동총장(關東總將)으로 부하 70여 인을, 유학근(兪鶴根), 안상근(安商根)은 철원보개산(鐵原寶蓋山)을 근거(根據)하여 부하 400여 인을 거느리고 또 전참위(前參尉) 金奎植도 있다 하다.

江、原、道、에、는、平、康、에、金、正、植、  
 城、에、金、致、榮、金、化、에、柳、學、根、安、昌、  
 根、洪、川、에、金、春、洙、李、秉、洙、  
 이、鄭、文、七、그、다、음、蔡、應、慶、姜、斗、弼、은、  
 伊、川、에、서、部、下、八、十、餘、人、을、盧、允、善、은、  
 是、寧、越、에、서、四、百、軍、을、金、允、若、은、  
 東、總、將、으로、部、下、七、十、餘、人、을、俞、鶴、  
 根、安、商、根、은、鐵、原、寶、蓋、山、을、根、據、하、  
 야、部、下、四、百、餘、人、을、거、느、리、고、또、前、參、尉、  
 尉、金、奎、植、도、有、하、다、

## 광주에서 체포된 신덕영 등의 공판

(동아일보 1921-5-1, 3면)

신덕영 외 14명의 제령위반에 대한 공판은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재판석에는 사쿠라다[櫻田] 재판장, 유복영(柳福永)·고이케[小池] 두 배석 판사와 기무라[村上]검사가 열석(列席)하였는데, 원래 이 사건은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지로 가맹시키고 노형규의 소개로 노석중을 가입시켜서 간부를 조직하
 여 작년 7월 경에 경성부 소격동(昭格洞) 신덕영의 집에서 네 사람이 관
 현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한 사람의 관계를 가진 농림주식회사(農林株
 式會社)의 주식모집원으로 변장한 일과 둘째로 형규가 지정한 전라남도
 부호에게 미리 군자금 제공의 위협문을 보낸 일과 셋째로 전라남도예와
 서 활동하는 중에는 근거지를 광주군 본촌면 일곡리로 석중의 집에 들
 ○을 언○하고 유선주(劉善柱, 일명은 박일봉)과 조병렬을 가입시킨 후 육
 혈포 한 자루를 구하여 가지고 전라남도 각지에서 활동을 개시하여 화
 순군 박현경(朴賢景)에게 금 200원, 광주군 이계익(李啓翼)에게 금 100
 원, 곡성군 신유선(辛有善)에게 금 30원을 가져간 일과 대동당 총재 김
 가진(金嘉鎭) 명의의 포고문과 대동단조선총지부장(大同團朝鮮總支
 部長) 한부(韓扶, 한부는 신덕영의 변명). 대동단조선총지부장 한부 명
 의의 경고문을 경성부 수표교(水標橋) 우체국통에 넣어서 전라남도 각
 부호 중 노중승(盧鍾升), 정해봉(鄭海鵬), 양재국(梁在國), 국재웅(鞠
 採雄) 등에게 보낸 일과 이윤호(李允鎬)와 노석정(盧錫正)은 작년 5월
 부터 대한민국군제특과원(大韓民國軍制特派員)이라는 한준호(韓俊
 鎬), 박문용(朴文容), 정용택(鄭容澤), 이재치(李在熾) 등과 연락을 뒤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한호준 등이 서울로 올라간 후 종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신덕영 등과 결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던 일에 계속 활동한 일과
 김정련(金正連)은 평양숭실대학 출신으로 광주숭일학교(光州崇一學
 校) 교원과 회계의 일을 보던 중에 암연히 독립운동자의 지도와 연락에
 종사하던 중 신덕영과 한호준의 활동에도 찬동한 일과 민치도(閔致道)
 가 수만의 천군(天軍)이 오는 날에는 천일파는 크게 박멸시키겠다는 협

박문을 발송하여 정인채(鄭麟彩)와 양사향(梁士享)에게서 모집한 군자금을 상해로 보낼일에 지도한 일이며 또한 그의 행동을 찬양한 일과 양인묵(梁仁默)·윤영기(尹永淇)·신유선(辛有善) 등은 신덕영 등에게 가입하여 양지봉(梁志鳳)·양효묵(梁孝默)·임승호(林承鎬)·민영두(閔永斗)·김형옥(金衡玉)·윤희상(尹喜祥)·정병현(鄭炳鉉)·심상홍(沈相弘) 등 부호의 이름을 소개하여 군자금을 강청케 한 일과 전치협(全稚莢)은 신덕영의 육혈포(당시 권총을 말함)든 행구를 송정역(松江驛)부터 광주(光州)까지 허가없이 운반하여 준 일과 정수현은 완구용 육혈포를 경성에서 가져다가 자기 남편되는 신덕영에게 주어 군자금모집운동을 협조한 일과 유선주는 최양옥과 같이 화순군 손영현(孫永絢)·손중채(孫鍾彩)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청구하는 중 육혈포를 놓아서 그 집 기둥을 뚫어내고 집안사람들을 위협하여 군자금을 강정한 일로 대정 8년(1919) 제령 제7호위반, 가택침입, 공갈취재, 총포화약취체, 규칙위반 등 사건이라는데 당일 오후 7시까지에 전부 심문을 마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부터다시 개정되어 검사의 구형이 있는 후 노병수(魯丙洙)·추장(秋場)·김병로(金炳魯)·송태환(宋台煥)·이정상(李政相) 변호사 제씨의 변론을 마치고 각 피고의 변론을 듣는 ○김정련은 일어서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반년 동안이나 옥중에서 고초를 받게 하고 또한 형기 2년이나 되는 징역을 선고함은 합당치 못하다는 말이 있는 후 폐정되었는데 시간은 오후 5시나 되었고 판결연도는 5월 7일이라 하며 검사의 구형은 다음과 같더라.

신덕영 징역 8년, 최양옥 7년, 노석정 7년, 이운호(결석판결) 7년, 유선주(결석판결) 7년, 노석중 6년, 노형규 5년, 조병렬 2년, 김정련 2년, 전치



협 1년, 신유선 1년, 정수현 1년.

## 길림 양기탁 저에 회집 대표 13명

(중외일보 1927-11-04 / 2면)

별항과 같이 이동구(李東求, 1886~1933, 황성출신)의 분주로 만주에서그와 같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작년 3월경에 이동구는 비밀히 조선에 들어와 경성 천도교 연합회 간부 김봉국(金鳳國), 송헌(宋憲), 이동낙(李東洛)과 형평사 중앙총본부의 간부 장지필(張志弼), 오성환(吳成煥), 조귀용(趙貴



용) 등에 만주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한 것을 전달하고 작년 3월 20일 경에 이동구는 형평사 측의 대표로 김동국, 이동락은 천도교 측의 대표로 중국길림으로 들어가 길림성내에 있는 양기탁방에서 정의부의 대표 정원흠(鄭元欽), 고탄신(高割信), 이일심(李一心), 현정경(玄正卿) 30명이 회합하여 구체적으로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당칙을 제정한 후조직, 선전, 경리, 검사 등 기관을 두고 만주 각지와 조선 내지에 세포단체를 두기로 하고 만반 계획을 세운 후 활동하다가 별항 사실과 같이 발각되었다.

경계의 불비를 이유로 고려혁명당 공판 연기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고 경계하면서  
 간수가 세 명밖에 안 왔다고 공판 연기  
 변호사 항변도 歸於水泡(중외일보 1928-02-10 / 2면)

지나간 지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8일 오후 1시 25분에 신의 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된고려혁명당의 관계자 이동구 이동락 조귀용 장지필 서광훈 오성환 송헌 김봉국 홍병기 이동욱 방찬문 이원식 이한봉 유공삼 박기돈 등 15명에 대한 제2회 속공판의 상보를 듣는데 피고 열다섯명이 출정한 후 본도(本島) 재판장으로부터 공판 속행을선언하자 변호사 김병로 씨로부터 피고들의 수감을 풀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항변이 있어서 피고들의 수감을 일일이 끄르게 하였으나 임(林)검사로부터 동사건은 위험한 인물이 많이 있으니만치 경계 간수가 부족한 즉 금일은 연기를 하자는 연기 신청이 있었으므로 변호사 김병로씨로부터 또 다시 위험한 인물로 인정하는 제령 위반, 강도 살인사건의 관계자로 되어 오는 피고 중 삼명 밖에 없으니 그 삼명을 분리하고 계속 심리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도 유익할 것이라고 항변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재판장으로부터 이십분 휴정을 선언하고 회의실로 밀려들어 가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더라





까지 전부 압수를 당하고 당원 심○망 없이에 체포된 고려혁명당사건은 그 중에서 한명만 면소되고 나머지 15명은 지난 4월21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제령 제10호위반 강도 살인 방화 등의 죄명 하에 무기로부터 최대 2년의 판결을 불복하고 평양복심법원으로 넘어온 이래 7개월 동안이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오던 중 정원웅(23), 이원주(25) 방찬문, 이용만(29)의 네 명은 공소를 취하하고 목하 평양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나 그 외의 권기리 등 그 외 7명의 복심 공판이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에 동법의 형사 법정에서 경판사, 주심 상야, 국지방라사 배심 석현 검사 입회, 한근조, 최○묵, 이회덕 세 변호사 참석으로 개정되었는데 방청석에서는 공판정에서나마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고자 지방에서 모여 온 친척들과 동지들로서 글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들이 용수를 벗고 미소의 목례를 건네면서 법정에 나타나는 순간에는 실로 눈물겨운 극적 장면이었다. [“독립을 ‘○’으로 처리

## 횡성여자야학

(중외일보 1929-02-25 / 3면)

강원도 횡성군 읍내 엽윗 청년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에 부녀의 문맹퇴치에 제일선 사업으로 횡성여자 야학을 개강하고 방금 수업중이라는 바 생도는 80여 명에 달한다 하며 각과



정도는 갑을 양반으로 분하여 갑반은 보통학교 3·4학년 정도이고, 을반은 역시 1·2학년 과목이러는데 강사로 장성준(張聖俊), 이기천(李基千), 방인숙(方仁淑) 등 3씨가 무보수로 노력한다더라

### 작효두(昨曉頭)까지 순차로 전부 피착

### 대담무적의 공명당 권총대

경춘가도에 신출귀몰튼 그 행적

천하 이목을 놀래이던 대사건도

살벌 공기 중에 일단 증언(중외일보 1929-04-22 / 2면)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인 백주에 경춘가도 마치현에서 경성으로 향하여 오는 우편자동차를 습격한 권총청년 3명은 대담하게도 왕래하는 자동차와 행인을 세워 놓고 금품을 강탈한 후 조선 ○○\* 만세를 고창하면서 유유히 잠적하였다가 20일 오전 1시 반경 월색이 희미한 송림 속에서 포위 수색하는 경관대와 충돌되어 3명중 김정련(金正連, 35)만 경관대에게 체포되고 나



머지 2명은 밤이 밝은 20일 오전 8시 반경에 철옹성 같은 경계망을 피하고 또 다시 경춘가도인 망우리에 나타난 춘천으로 가는 내선 자동차부 자동차를 습격하여 승객을 내려놓고 운전하여 가지고 35마일의 쾌속력으로 주중한 경계망을 박차고 무인지정을 질주하듯이 경성에 들어와 잠복하려 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찾는 정사경관대의 수색을 받아 동일 오후 11시 30분에서내 황금정 1정목 48번지 박성재의 집에서 단원 중 자동차운전수 이선구(29)가 잡히고 21일 미명 5시 반에 시내 체부동 최상하(崔相夏)의 집에서 주범 최양옥(32)이 체포되어 40만 부민과 아울러 근기 일대를 진동시킨 사건도 이에 낙착되었다. [\*독립을 ‘○○’으로 처리

### 경기관총대도 출동하여 혼수미몽 중 엄습 체포

여명 고가에 총검 섬홀 살기 등등

무장 정사복 경관의 연합 대출동

◇ 수범(首犯) 최양옥 피착 광경(중외일보 1929-04-22 / 2면)

계엄 상태와 같은 서울의 밤이 하루를 지내고 다시 천지가 밝으려 하는 21일 새벽 5시 반경에 시내 종로서에는 공기가 긴장될 대로 긴장된 가운데 동서 삼륜(三輪) 고등계 주임이 총지휘가 되어 가지고 30여 부장 경관을





비롯하여 정·사복 경관은 물론이고 경기관총대까지 10여 대 자동차에 분승한 후 질풍같이 시내 체부동 방면으로 달리어 가서 무장경관을 부근 일대에 배치한 후 동동 118번지 주류 제조업 박인서(朴寅緒·27)의 집을 습격하여 그 집 뒷방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꿈속에 파묻고 아무런 염려 없이 비단이불을 덮고 자는 조선 천지를 뒤 흔들어 놓고 최후의 한 명으로 경찰의 손에 잡히지 아니한 이사건의 주범인 강원도 원주 출생인 최양옥(35)가 드디어 형사대에 체포되었다.

관계자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 최양옥(32)

평북도 용천군 양광면 충열동 906번지(송대 출신) 김정련(35)

신의주부 노송정(전신의주부청 자동차 운전수) 이선구(29)

### 주초(酒草)도 접구(接口)치 않고 침묵 일관의 성질

어찌지 형의 몸이 얽려되어

매씨는 소식 듣고 통곡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최양옥이가 재작년에 표연히 집을 떠난 후 그 고향 원주에 남은 세 어린 동생과최양옥의 외딸 伊順(10) 등을 거느리고 간신히 지내오던 그 아우 양길(養吉, 21)은 작년부터 서울로 와서 경성부 창신동 693번지 그 백부 최재필(崔在弼, 70)씨의 집에 유하면서 전매국 직공살이를 하고 있





차버스가 지나다가 발견하고 즉시 금곡주재소에 고발하여 이 금보를 들은 동주재소에서는 네 명을 즉시 추격하여 증거품을 수색하는 동시에 경찰부에서는 이(李)형사과장 이하 다수의 경관이 현장을 급거 출동하여 사건발생의 현장을 임검하며 즉시 야마구치(山口) 양주경찰서장 이하 십수 명의 경관이 현장에 달려가서 범인을 추격한 바 지세의 관계로 산중에 아직 있을 것을 추측하고 우선 산 아래에만 에워싸고 밤을 새워 100여 명으로 총공격을 하여 포위 습격하기로 하였던 바 19일 오후 6시 경에 양주군 화도면 녹촌리 암굴(巖窟)에 숨어있음을 판명하고 산상대(山上隊)와 산록대(山麓隊) 등 약 130명의 무장경관대는 암굴과 약 50여간 되는 거리에까지 이를 때에 범인들은 벌써 눈치 채고 전부 탈주하였다.

이렇게 엄중한 경계망을 돌파하고 탈주함을 그 뒤를 에워싼 제2선의 산하대가 발견하고 “정지하라 만일 움직이면 발사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으나 범인은 범같이 나는 듯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둘째선도 넘어 천마산 속으로 또 다시 잠복하였는데 해는 이미 저물고 험준함으로 다시 금 에워싸기만하고 있을 즈음에 범인들은 공복(空腹)이어서 견디지 못해 산 아래 외딴집을 찾아오다가 이 집을 미리부터 수배하고 있던 본정·양주·경기도 형사과 등 세 곳 경관에게 발각되어 21일 새벽 0시 30분에 세 명 중 김정련(金正連)은 먼저 체포되고 두 명은 탈주하였다.

이로부터 다른 두 명은 북한강 방면으로 탈주한 형적이 있다하여 총동원으로 천마산과 한강 연안을 사방 1백리 가량 에워싸고 대대적으로 수색된 바 범인 두 명은 이곳에서 독섬부근의 광주군 구천면(廣州郡 九川面) ‘가래울나루’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유동대(遊動隊)에 발각됨에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20일 새벽에 망우리(忘憂里)고개로 향하여 피신하여 가다가 경성을 떠난 춘천행 내선자동차(경 480호)가 21일 오전 9시 40분 경에 망우리를 지날 즈음에 이선구가 정차를 시켜 승객 6명 중 늙은 부인 한 명과 운전수만 태워 가지고 이선구 자신이 운전하여 경성으로 들어와 황금정 4정목 부근에서 내려 본정 4정목 방면으로 잠적하였다.

### 상해에는 지부성립 공명단본부는 포와

최양옥 이하 잡힌 세 사람은 태연히 취조에 응대(동아일보 1929-4-24 / 3면)

공명단원이 지난 20일에 내선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경성시내로 들어

와서 본정(本町) 4정목 경성암본점(京城庵本店)에서 일본밥과 맥주를 먹고 동일 오전 11시에 말하되 “공명단이란 이름은 처음 들었으나 최양옥이가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 내지로 침입한다는 정보는 지난 2월 19일에 받았으므로 그 즉시로 관내를 수색



하는 한편 엄중히 경계를 해 오다가 이번 일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경성 황금정(黃金町) 3정목 255번지 대정관(大正館) 앞에 있는 ‘황금택시’라는 자동차부에 이르러 경919호 자동차를 니시다 죠쇼[西田常勝, 운전수]와 가토 야스타로[加藤安太郎, 조수]의 운전으로 최양옥과 이선구가 타고 부청 앞을 돌아 이번 사건의 수색총본부인 경기도경찰부 앞에서 내리고 최양옥은 적선동 전차정류장 앞에서 내리었는데 그 눈치를 췌 본정 서원이 전후 10여 차례 힐문하였으되 그 운전수들은 전연 그 사실을 부인한 까닭에 즉시 체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시내 본정서(本町署)에서는 23일에 두 명을 인치하고 29일 구류처분을 하여 그 즉시로 서울형무소에 보내었더라(『동아일보』 1929년 4월 24일자 「상해에는 지부성립 공명단본부는 포와」).

# 공명단사건판결 최양옥은 징역 10년

(동아일보 1929-12-14 / 3면)

공명단사건 판결  
 최양옥 징역10년  
 검사의 구형한대로 언도  
 피고 일동 공소제기

세상의 이목을 경동케한 공명단의 최양옥 김정련 이선구 등 세 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 취체령위반 우편법위반 강도 등의 판결언도

는 기묘한 바와 같이 십삼일 경성지방법원 제4호법정에서 동법원 말광(末廣) 재판장으로부터 지난번 입회검사의 구형대로 피고 최양옥은 징역 십년 피고 김정련은 팔년 피고 이선구는 징역오년의 언도가 있었는데 판결의 이유는 검사의 논고와 같이 피고 최양옥과 김정련은 개정된 신치안유지법과 우편법위반 총포화약취체령위반 강도미수 등 중에 전기치안유지법을 선택하고 피고 이선구는 우편법위반강도방조 등 중에 우편법위반을 선택하여 각각 해당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바 변호사들의 변론한 취지와는 전연 반대되는 것으로 피고는 필경 공소까지 하게 되리라더라

## 共鳴團事件判決

### 崔養玉은十年懲役

#### 被檢사의 구형한대로 언도

#### 被告一同控訴提起

世上의 이목을 경동케한 공명단(共鳴團)의 최양옥(崔養玉) 김정련(金正連) 이선구(李仙九) 등 세 명에 대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총포화약취체령(銃砲火藥取締令) 위반 우편법(郵便法) 위반 강도(強盜) 미수(未遂) 등 중에 전기치안유지법(前記治安維持法)을 선택하고 피고 이선구(李仙九)는 우편법(郵便法) 위반 강도(強盜) 방조(傍助) 등 중에 우편법(郵便法) 위반 강도(強盜) 방조(傍助)를 선택하여 각각 해당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바 변호사들의 변론한 취지와는 전연 반대되는 것으로 피고는 필경 공소까지 하게 되리라더라

公明團事件判決  
 崔養玉은十年懲役  
 被檢사의 구형한대로 언도  
 被告一同控訴提起



## 격문살포사건, 강진(姜進) 10년역(役) 구형

21일 오후 2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리(조선중앙일보 1934-12-22 / 2면)

러시아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 조선공산운동을 하는 강진(姜進, 24)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위반 사건의 공판은 21일 오후 3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촌전(村田) 검사관 입회로 개정되어 검사는 10년 징역을 구형하였고 그 기소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기소사실

강진은 9세 때 러시아로 건너가 동지 국립소학교를 16세 때에 마치고 중학을 거쳐 20세 때에 역시 동지 국립요동대학 공과 제1학년에 입학하였다가 1학기를 마치고 중도 퇴학을 하였다. 그 후 대정 15년경에 간도



용정촌으로 건너와 야학에 교사로 있으며 동지 동흥중학에 통학 하다가 1년 후에 퇴학하였다. 그런데 강진은 1922년경에 러시아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가지고 「니코리스코-스리스코」제1호중학 「야체카」에 소속자로 공산주의 교훈을 받아왔다. 그 후 1926년 7월 룡진촌에서 안재규(安在奎)를 만나 안재규의 권유로 공산운동과 xx운동\*을 꾀직한 검사에 가입하여 제3 「야체-카」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용하다가 금년 10월경에 검거선봉이 일어나자 러시아로 도주하였다가 1927년 3월에 이르러 조선 실정조사로 조선 내지에 잠입하는 도중에 용정촌에서 동지 이종림(李宗林)과 회합하여 공산운동협회를 하다가 또 검거봉이 일어나자 고광수(高光洙)\*\*와 함께 경성으로 도주 잠입하였다. 그레가지고 1931년 4월 정부터 이종희(李種熙) 이문홍(李文弘) 등과 회합하여 공산운동 방침을 세우고자 시내 관훈동모 중국 요리집에서 회합하여 시내에 격문 살포할 것을 협의하는 등 각 방면으로 활동하다가 드디어 동년 6월 18일 시내 인사동 옆에 있는 조선극장 안에서 500매의 격문을 관중에게 살포하였다. [\*독립운동을 'xx운동'로 기재][\*\*고광수는 황성 출신]

### 황성교회 창설자 명예목사 탁영재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황성사회에서 가장 신앙이 두터운 씨는 기독교 독신자로 황성에 수 교회를 창설하고 40여 년간 종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노청년의 기분이 농후하다. 지조는 높고 가히 청빈지조가 이에 있으며 사회의 반면이다. 황성

에 수 교회의 명예목사로 화성 유치원 후원회와 횡성체육회 고문을 역임하고 횡성사회의 지고한 인격자이면서 실천가임을 알 수 있다. 횡성 전체는 씨의 건재를 한층 빌고 있다.



### 횡성읍의 전경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 부록 7 | 횡성항일민족운동 연표

### 1895~1906년

- ▶ 1895년 횡성출신 박영목(성목)은 명성황후(明成皇后)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켜 경희백(慶希伯)과 함께 강원도에서 활약.
- ▶ 1896년 3월 박영목(성목)은 홍천(洪川) 삼마치(三馬峙)에서 일본군 1백여 명과 만나 적군과 교전하여 적 8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림. 4월 횡성(橫城)에서 반년간 횡성을 지키면서 포고문(布告文)·격고문(檄告文) 등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
- ▶ 같은 해 6월 횡성출신 권대형은 고성(高城)·양양(襄陽) 등지를 점령하고 군수를 처형하기도 하였으며, 관군의 공세가 점차 심화되어 탄환·화약·양곡 등 군용물자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자 양곡운반의 임무 담당.  
같은 해 8월초에는 민용호의 지휘 아래 민동식·성익현·차윤옥 등과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회양(淮陽)·금성(金城) 방면으로 나와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고 산협을 따라 황해도 곡산(谷山)방면으로 이동.
- ▶ 같은 해 박영목(성목)은 강원 횡성(橫城)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권대형, 홍재구 등과 함께 횡성 등지에서 일본군에 항전, 1910년 국권피탈 후 남만주 환인현(桓仁縣)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하다가 병사.
- ▶ 1905년 7월 20일 원용팔(元容八), 강원도 영월·원주·횡성에서 의병을 일으킴.
- ▶ 같은 해 8월 20일 원용팔이 창의격문(倡義檄文)을 작성하고 100여 명을 거느리고 의병 봉기.
- ▶ 같은 해 9월에 원용팔, 박정수(朴貞洙) 등, 원주·횡성 접경지역에서 의병 조직. 원용팔, 박정수 등이 영월 주천과 횡성 강림의 접경지역에서 의병 쫓기.
- ▶ 같은 해 10월 3일 원용팔 횡성에서 피체.
- ▶ 같은 해 11월 17일 일본, 대한제국을 강박하여 을사늑약 체결, 한국 외교권 피탈.
- ▶ 횡성출신 김인즙은 상동청년회 동지들과 함께 모여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인즙을 비롯하여 신상민(申尙敏)·이시영(李始榮)·전석준(田錫俊)·최재학(崔在學)은 도끼를 메고 5명씩 연명으로 1·2회로 나누어 죽든지 잡혀갈 때까지 상소하기로 결의하고 1905년 11월 27일 제1회로 이준(李儁)이 지은 상소를 최재학(崔在學)이 소두가 되어 대한문(大漢門) 앞에 나아가 바치고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형 요구.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상소에 연명한 5명을 체포해 가자 김인즙 등은 시민들

에게 일제를 규탄하고 국권회복에 결기할 것을 호소하는 가두연설을 한 다음 시민들과 함께 일제 헌병대에 대하여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헌병대에 피체.

### 1907년

- ▶ 1907년 4월 20일 금기철 의진은 한상열(韓相說) · 김현국(金顯國)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에 주둔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
- ▶ 1907년 5월 횡성군 갑천면 부동리 · 구방내 · 화전리 · 전촌리 · 대관대(大官垵) · 삽교리 주민 국채보상금 의연. 횡성군 우사상도중(右社商都中) 상인들 국채보상금 의연.
- ▶ 같은 해 6월 횡성군 횡성면 3리 군영촌(群英村) 주민 국채보상금 의연.
- ▶ 같은 해 7월 2일 오경목은 조동교(趙東敎) · 정대무(丁大武)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이강년 의진에 참여하기 위해 제천(堤川)으로 감. 이강년 의진에 참여한 직후인 7월 7일 제천전투에 참가하여 대승.
- ▶ 같은 해 7월 6일경 원주출신 김현국은 원주군 문막리에서 의병들을 모집하여 부하 70여 명을 인솔하고 여주군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원주 · 횡성 · 흥천 · 영월 · 평창 등지에서도 활동.
- ▶ 같은 해 음력 7월 17일 횡성출신 김명서(金明瑞)는 의병을 모집하는 최인순(崔仁順, 仁舜)의 휘하에 들어가 원주군 · 횡성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고 같은해 음력 10월에는 평창일대에서 활약하던 정병화(鄭炳和)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피체, 옥고.
- ▶ 같은 해 7월 19일 일제의 강요로 고종황제 퇴위, 순종 즉위.
- ▶ 같은 해 7월 24일 일제,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정미7조약 체결. 차관정치.
- ▶ 같은 해 7~8월 사이에 왕춘백은 민궁호 의병부대에 속하여 동료 의병 300여 명과 함께 충북 충주, 강원도 원주 · 횡성군 소재의 마을에서 군자금품 수합활동 진행.
- ▶ 같은 해 8월 1일 일제가 서울 시위대 해산. 참령 박승환(朴昇煥) 자결. 시위대 군사들이 일본군과 시가전 전개, 의병전선 가담.
- ▶ 같은 해 8월 3일 일제가 지방진위대 해산. 해산된 지방진위대 군사들이 의병 가담.
- ▶ 같은 해 8월 16일 정병화(鄭炳化) 의병부대원 500여 명, 횡성군 봉복사에서 일본군토벌대와 교전.
- ▶ 같은 해 8월경 횡성 출신 오정목이 봉복사에서 민궁호(閔肯鎬)의 권유로 의병 투신.
- ▶ 같은 해 8월경 횡성 출신 한상열(韓相烈), 약 200명과 창의, 횡성 · 지평 · 흥천 · 원주 · 평창 · 영월 등지에서 교전.

- ▶ 같은 해 8월 중 박순길은 춘천군 안평(安平) 땅에서 일본병과의 교전에 참여하였고 가평 출신의 박래병 의병장이 300여 명을 이끌고 강원도 횡성으로 이동하여 지영기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5~6시간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때도 참전.
- ▶ 같은 해 8월 횡성출신 서용인은 정병화(鄭炳和, 鄭秉煥이라고도 함)의 휘하에 들어가 평창·영월·횡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김명조(金明祚)·정시종(鄭時鍾)·이태경(李泰京)·안석조(安錫祚) 등과 함께 일본인 우편 체송부를 체포하여 살해하였다고 함.
- ▶ 같은 해 8월경부터 횡성출신 장명수는 인제, 횡성, 영월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해 온 김광옥(金光玉, 일명 金鍾鐵·鍾煥)의 휘하에 들어가 김중근(金鍾根, 金成日, 또는 許仲國, 姜大將)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옹해준(龍海俊), 정태용(鄭泰用), 최순실(崔順實), 장재선(張在善), 이낙여(李洛汝) 등과 함께 강원도 각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피체포.
- ▶ 같은 해 8월(음력) 함재실(咸在實)은 이원오(李元五)와 함께 원주군 정지안면(正之安面)의 채성구(蔡聖九) 집에서 군자금 12원을 모금하는 등 주로 군자금조달의 임무를 담당.
- ▶ 같은 해 9월 8일 의병, 원주 동쪽 20리 횡성 갈곡(葛谷)고지에서 교전.
- ▶ 같은 해 9월 10일 민공호 의병부대, 흥천읍 점령, 횡성·양덕원·춘천 등지에서 활약.
- ▶ 같은 해 9월 10일 횡성출신 한기석·한갑복 등 의병, 민공호 의병부대와 연결, 활약.
- ▶ 같은 해 9월 23일 민공호 의병부대 350명이 갑천리와 봉복사에서 일본군과 격전. 일본군 원주수비대가 의병근거지인 봉복사 소각. 민공호 의병부대, 흥천·인제·강릉 등지로 이동.
- ▶ 같은 해 10월 이구재(李九載)·이은찬(李殷瓚)이 지평·횡성지역 의병을 기간으로 관동창의대(關東倡義隊) 결성, 이인영(李麟榮)을 창의대장으로 추대.
- ▶ 같은 해 10월 7일 한국주둔 일본헌병이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업무장악, 헌병경찰제도 실시.
- ▶ 같은 해 10월 25일 민공호 의병부대 약 300명이 둔촌에서 일본군과 격전, 대승.
- ▶ 같은 해 10월 27일 의병 약간 명이 횡성 갈동(葛洞)·매곡(梅谷)·신암동(新岩洞)에서 일군과 교전.
- ▶ 같은 해 10월 31일 한갑복·민공호·한상열·심상희(沈相熙) 등이 인솔하는 의병 8천여 명이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지금의 서원면)에 집합.
- ▶ 같은 해 11월 5일 민공호 부대 800명이 청일면 동평리에서 교전.
- ▶ 같은 해 11월 9일 의병 약 20명이 횡성 상창봉에서 교전.
- ▶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방관일(方觀一)은 이인영(李麟榮)·정대일(鄭大一) 등



의병장과 연합하여 700여 명 규모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강원도 횡성군 고모곡(古毛谷, 지금의 서원면)을 중심으로 활동.

- ▶ 같은 해 12월 7일 의병 약 130명이 횡성 장전점(長箭店) 모평리(茅坪里)에서 일군과 접전.
- ▶ 같은 해 12월 8일 의병 약 70명, 횡성 학곡(鶴谷)에서 일군과 교전.
- ▶ 같은 해 12월 상순 의병장 박남화(朴南華) 횡성 매돌총(埋突衝)에서 일본병과 충돌 전사.
- ▶ 같은 해 12월 10일 의병 약 300명이 횡성 동방 6리에서 접전.
- ▶ 같은 해 12월 12일 의병 약 150명이 둔내면에서 교전.
- ▶ 같은 해 12월 13일 민궁호 휘하 한갑복, 윤성옥, 한상열 등 의병부대는 1,200~1,300명을 이끌고 횡성을 출발하여 흥천 서석면(瑞石面) 방면으로 진출.  
같은 날 주기준(朱基俊)이 이끄는 의병 150명은 횡성군 둔내면 자포동에 잠복하고 있다 가 일본 평창수비대 25명의 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
- ▶ 같은 해 12월 14일 한기석 의병 약 300명이 횡성군에서 교전, 한기석 전사.
- ▶ 같은 해 12월 19일 민궁호 의병부대 약 300명이 횡성 동북쪽에서 일군과 공방전, 100여명 사상.  
같은 날 주기준(朱基俊)부대 150명 둔내면 자포리(自浦里)에서 일본군 평창수비대와 교전, 5명 전사 16명 부상.
- ▶ 같은 해 12월 21일 주광식(朱光植) 부대 300명이 영월 수주면 강림동(지금의 횡성 강림면)에서 습격 받아 70여명 전사, 부상 미상.
- ▶ 같은 해 12월 28일 한갑복 의병 30명이 횡성군 청룡면(지금의 횡성읍) 추동리에서 일군 수비대 공방전, 한갑복 전사.
- ▶ 같은 해 12월 중에 심경섭(沈敬燮)은 박화남(朴華南)의 부하로 강원도 횡성군 복천면에서 일본 헌병과 교전하다 피체.

## 1908년

- ▶ 같은 해 1월 3일 횡성 갑천면 서북방으로 20리에서 접전.
- ▶ 같은 해 1월 10일 의병 40여 명이 횡성 서방에서 공방전. 의병이 횡성군 둔동(屯洞) 곁에 교(乞隱橋)에서 일본군 원주수비대와 교전.
- ▶ 같은 해 1월 12일 의병 약 40명이 횡성 서방에서 접전.
- ▶ 같은 해 1월 13 전화춘은 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의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여 청량리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귀가하여 휴양.
- ▶ 같은 해 2월 전화춘은 다시 일어나 김용상(金龍翔), 한상열, 노면영(盧免永) 등과 함께 활동.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일본군에 패한 후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춘당리(春堂里)에

잠복하고 있다가 동년 7월 6일 체포되어 청일면 속살리(粟實里) 부근에서 피살, 순국.

- ▶ 같은 해 2월에 황성출신 한상열은 흥천에서 일본의 대부대와 접전을 벌여 격퇴.
- ▶ 같은 해 2월 27일 민공호 의병부대 원주 치악산 아래인 강림(講林) 동쪽 약 10리 되는 등자치 부근에서 적에게 노출. 적군은 강림에서 출발, 사자산(獅子山), 구룡산(九龍山) 방면으로 우회하여 등자치로 접근. 이때 민공호의 부대는 그 10리 지점인 귤덕리(蕪德里)에서 숙영.
- ▶ 같은 해 2월 29일 민공호 의병부대 약 90명, 황성 강림부근에서 일군 충주순사대(忠州巡査隊)의 피습을 받아 민공호 의병장 피체, 그날 저녁 피살.
- ▶ 같은 해 3월 3일과 5일 의병 150명이 황성 동북쪽 40리 유동(柳洞)에서 일병과 교전.
- ▶ 같은 해 3월 7일 의병 약 60명이 황성 동쪽에서 일병과 공방전.
- ▶ 같은 해 3월 8일 의병 60여 명, 황성 동쪽 두원(斗元)부근에서 안흥 소재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와 교전.
- ▶ 같은 해 3월 12일 황성 김치영(金致永) 의병부대 150여 명, 일군 황성분견대의 기습에 대응 교전.
- ▶ 같은 해 3월 13일 의병 약 150명, 황성 북쪽 40리 지점에서 일병과 공방전.  
같은 날 김치영 의병부대 150여 명이 황성에서 일본군 황성수비대 보병분대 공격.
- ▶ 같은 해 3월 14일 황성의병 100여 명이 황성 동쪽에서 일본군 황성수비대와 교전.  
같은 날 충주 의병이 황성 갑천 전촌(筍村)지역에서 일본군 수비대에 공격받음.
- ▶ 같은 해 3월 16일 금기철(琴基哲) 의병부대 156명이 황성 옥동에 침입. 군자금 모집.
- ▶ 같은 해 3월 24일 의병 약 20명 황성 동평 부근에서 교전.
- ▶ 같은 해 3월 25일 한상열 부대 황성 동부 마암 근처에서 교전.
- ▶ 같은 해 3월 한상열 의병부대의 전군대장 이창오(李昌五) · 중군대장 김화춘(金和春) · 후군대장 한상오(韓相五)가 황성에서 의병 모집.
- ▶ 같은 해 4월 2일 한상열 · 김현국(金顯國) · 최인순(崔仁順) 의병부대 300여 명(200명)이 흥천군 영귀미면(詠歸美面, 지금의 동면)에서 일본군 황성수비대와 교전. 의병 60명 전사.  
같은 날인 4월 2일에 적은 황성의 일본 수비대를 파견하여 4월 2일 흥천군 월운면 서북 후동(月雲面 西北後洞)에 거주하는 한상열의 처자를 납치하여 귀순할 것을 종용하고자 각종의 유인·협박을 가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오히려 20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황성을 습격하여 적을 크게 놀라게 함.
- ▶ 같은 해 4월 3일 의병 약 140명이 황성 서북쪽 약 70리에서 일병과 접전.
- ▶ 같은 해 4월 7일 윤성욱(尹成旭)이 황성에서 의병장 윤성욱(尹成玉)을 구출하던 중 일

본군수비대에 피체.

- ▶ 같은 해 4월 19일 의병 150여명, 황성 학곡(鶴谷)에서 원주수비대 파견 연락병과 교전.  
같은 날 의병 300여 명이 황성군에서 일병과 교전.  
같은 날 의병 약 30명이 황성 갈담(葛潭) 북쪽 30리에서 교전.
- ▶ 1907년 4월 20일 김현국은 황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상열(韓相說) 의병진, 양양·강릉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금기철(琴基哲) 의병진과 연합하여 황성의 일군수비대를 습격.
- ▶ 같은 해 4월 20일 민공호의 잔여 의병부대가 황성·인제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  
같은 날 황성 의병 150여 명이 황성읍내에서 황성분견대와 교전.  
같은 날 황성 의병 70~80명, 황성에서 일본군 황성분견대와 교전.
- ▶ 같은 해 5월 7일 의병 30여 명이 원주군 문막 북쪽에서 황성분견대와 교전.
- ▶ 같은 해 5월 11일 의병 70여 명이 황성 서북쪽 하창봉동(下峯洞)에서 황성분견대와 교전. 의병 13명 전사.
- ▶ 같은 해 5월 23일 의병장 한상열 등 15명이 갑천면 동평(銅坪) 윤명길(尹命吉) 등 투항자 응징.
- ▶ 같은 해 5월 28일 의병 약 50명이 황성 갈담(葛潭) 서쪽 20리에서 교전.
- ▶ 같은 해 6월 16일 의병 약 30명이 황성 산내리에서 교전.
- ▶ 같은 해 6월 27일 조사길은 김현국 의진의 차장(次將)으로 상인으로 변장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6월 29일 총살, 순국.  
같은 날 의병이 황성 동북방에서 교전.
- ▶ 같은 해 6월 28일 의병 500여명, 황성 봉복사 남쪽에서 원주수비대와 교전. 의병 5명 전사.  
같은 날 의병 80여 명이 황성 운교역(雲橋驛) 동북쪽 지점에서 원주수비대와 교전. 의병 20명 전사.
- ▶ 같은 해 7월 3일 전화춘(全化春)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하여 황성, 흥천, 평창 등지에서 활동하던 신영순이 황성군 둔내면(屯內面) 석문리(石門里)에서 원주경찰서 순사대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다가 총살, 순국.
- ▶ 같은 해 7월 4일 의병 약 80명이 황성 소학리에서 접전.
- ▶ 같은 해 9월 8일 김현국은 부하 33명과 함께 신림(神林) 헌병분견소를 습격
- ▶ 같은 해 9월 30일경 김현국은 황성군 북면 냉리(冷里)에서 일헌병대와 교전.
- ▶ 같은 해 10월 24일 김현국은 부하 37명으로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永浪里)에서 안흥분견소 헌병 5명과 교전 일군과 교전
- ▶ 같은 해 11월 12일 의병 약 10명 황성 동방 50리에서 접전.

- ▶ 같은 해 11월 16일 황성 울살리에서 접전.
- ▶ 같은 해 11월 23일 의병 35명이 황성 옥동리에서 옥동헌병분견소원과 교전, 의병 3명 전사.
- ▶ 같은 해 11월 24일 의병 4명이 황성군에서 황성헌병분견소원과 교전.
- ▶ 같은 해 12월 7일 의병 20여 명이 황성 북쪽 약 15리 지점에서 황성헌병분견소원과 교전, 의병 6명 전사.
- ▶ 같은 해 12월 14일 김한국 황성군 정곡면(지금의 안흥면)에서 일헌병과 교전.
- ▶ 같은 해 12월 16일 의병 18명이 황성군 군내면(지금의 황성읍) 옥동리 습격.
- ▶ 같은 해 12월 19일 주기준(朱基俊) 의병부대 150여 명이 황성군 둔내면 자포동(自浦洞)에서 토벌대와 교전, 의병 5명 전사, 16명 부상.

### 1909년

- ▶ 같은 해 1월 20일 약 50명이 황성 안흥 동남 약 120리에서 교전.
- ▶ 같은 해 5월 5일 의병 약 20명이 황성 갈담 북쪽 약 40리서 교전.
- ▶ 같은 해 5월 19일 의병 18명이 청일면 울살리(栗實里) 동남에서 일본군 헌병분견소원과 충돌.
- ▶ 같은 해 8월경 황성출신 박내원(朴內元)은 이교영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풍기군(豊基郡) 소룡산리(小籠山里), 안동군(安東郡) 풍산면(豊山面) 서미곡리(西尾谷里), 영주군(榮州郡) 등지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다가 피체, 옥고.
- ▶ 같은 해 9월 일제가 정규군 보병 2개 연대와 해군함정 동원,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 자행, 삼남지방 의병 초토화(2개월간).
- ▶ 같은 해 9월 19일 의병 4명이 공근면 하포원 학담리 최재식(崔在植)·손경홍(孫京洪) 집 공격

### 1910~1918년

- ▶ 1910년 3월 20일 의병 5명이 황성군 공근면 상수백리(上水白里) 공격.
- ▶ 같은 해 8월 29일 일제가 일한병합조약(日韓併合條約) 발표, 한국을 식민지화.
- ▶ 같은 해 9월 10일 일제가 조선헌병조례 발표.
- ▶ 같은 해 10월 1일 일제가 조선총독부 개설,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공포.
- ▶ 1911년 1월 2일 왕백춘은 금지철(琴地哲)·이용석(李龍錫) 등 동료 의병과 함께 강원도 황성군 고모곡(古毛谷, 지금의 서위면) 이십곡리(二十谷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등의 의병활동 함.

- ▶ 1912년 4월 12일 밤 황성출신 김옥봉은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에서 전개되던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자극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 그날 밤 마을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고 분일리 뒷산 기슭에서 송병기(宋秉箕) 등이 이끄는 시위대와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확대.
- ▶ 1914년 9월경 정태용(鄭泰用)은 김종근(金鍾根)의 휘하에 들어가 용해준(龍海俊), 김원실(金元實), 이낙여(李洛汝) 등과 함께 흥천, 인제, 황성 등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
- ▶ 1915년 1월경 최순실은 김종근(金鍾根, 金成日·許仲國)의 휘하에 들어가 장명수(張命壽)·용해준(龍海俊)·장재선(張在善) 등과 함께 흥천·인제·황성 등 강원도 각지에서 활동.
- ▶ 같은 해 3월경에 최순실은 일찍이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을 하였던 김종환(金鍾煥·金鍾鐵·金光玉)을 만나 그를 통솔자로 추대하고 그의 인솔하에서 활동.
- ▶ 같은 해 3월경 정태용은 일찍이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을 하였던 김종환(金鍾煥, 金鍾鐵·光玉)을 만나 그를 통솔자로 추대하고 그의 인솔하에서 활동하였다고 함.

## 1919년

- ▶ 같은 해 1월 5일천도교인 권동진·오세창·최린·손병희 등이 독립운동추진계획 수립.
- ▶ 같은 해 1월 22일 고종황제께서 돌연히 돌아가심.
- ▶ 같은 해 2월 25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33인 인선.
- ▶ 같은 해 2월 27일 독립선언서 21,000매를 천도교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
- ▶ 같은 해 2월 28일 천도교에서 독립선언서를 전국 각지로 전달.
- ▶ 같은 해 3월 1일 3·1운동 발발.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독립선언서 발표,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민중 등 4~5천명 독립식전 거행. 이때 황성출신 최양옥도 만세운동 참가.
- ▶ 같은 해 1919년 3월 10일 철원군 독립만세운동.
- ▶ 같은 해 3월 11일 황성군 천도교인 장도훈이 서울에서 큰 태극기 1폭, 창호지 태극기 20매, 독립선언서 40매를 구하여 황성에 돌아옴.
- ▶ 같은 해 3월 12일 춘천주둔 보병 제79연대의 병력 일부를 원주로 이동하여 원주·황성 지방에 대한 경계 강화.  
황성을 영영포리 신재근 집에 최중하·장도훈 등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군내와 원주 소초면, 평창군에 배포 결정.

- ▶ 같은 해 3월 13일 황성 천도교인, 군내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배포.
- ▶ 같은 해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이 고종의 죽음에 조의 표시, 상장(喪章) 패용 시위.  
같은 날 김인경이 독립선언서를 평창군 대화면 윤교리 이인영에게 전달.  
같은 날 이인영이 대화리 천도교인 최상달에게 전달, 평창군 만세시위 추진.
- ▶ 같은 해 3월 3·1운동 후 최양옥은 아버지 친구 신병선 집에 거주할 때 만주에서 돌아온 그의 아들 신덕영에게 독립운동 참가 권유 받고 독립운동 참여 결정하여 황성으로 낙향.
- ▶ 같은 해 3월 27일 황성 장날, 약 300명의 군중, 독립만세시위. 최중하, 정해경, 탁영재 등은 60여 매의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시장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운동 지휘, 천도교인 8명 피체.
- ▶ 같은 해 4월 1일 황성 장터에서 1,300여 명 군중이 독립만세운동, 강달회 · 하영현 · 강성순 · 전한국 · 김치정 피살(강만형 피체 후 옥중에서 순국). 최양옥도 참여했다가 처가로 피신했지만 피체, 이후 겨우 탈출.  
황성 상인들 시장 철폐운동(~7일).
- ▶ 같은 해 4월 2일 황성 장터에서 약 200여 명의 군중이 헌병분견소에 몰려가 독립운동 허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
- ▶ 같은 해 4월 3일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주민, 강달회 장례식 거행.
- ▶ 같은 해 4월 5일 소초면 둔둔리 · 장양리 · 의관리 · 평장리 · 교항리 등 주민 수백 명이 소초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 전개.  
같은 날 잡화상이었던 이기순은 둔내면 자포곡리(自浦谷里) 천관여(千官汝)의 집에서, 천관여와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다 피체.
- ▶ 같은 해 4월 7일 황성 장터 길가에 태극기를 세우고,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을 부착.
- ▶ 같은 해 4월 11일 천선재는 주천장날을 거사일로 계획하고 4월 8일에는 법흥리의 최춘일(崔春日)의 집에서 그리고 9일에는 양변면(兩變面) 신일리(新日里) 최성오(崔成五)의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선동, 또 10일에는 수주면 무능리(武陵里)에서 현성준(玄聖俊)에게 만세운동을 권고하며 추진하다가 피체.
- ▶ 같은 해 4월 12일 성태현(成泰鉉), 송병기(宋秉基), 박민희(朴民喜), 이정헌(李正憲)은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 명을 모아 분일리내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 고창. 그 후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
- ▶ 같은 해 4월 15일 황성군수 · 헌병분견소장이 각 면장과 동장에게 선동자 포박 지시.



- ▶ 1919년 11월(음력) 최양옥은 대동단의 조선지부 책임자 신덕영이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로 찾아오자, 대동단에 입단할 것을 약속.
- ▶ 같은 해 12월 황성인 최양옥(崔養玉), 대동단(大同團)에 입단.

### 1920년

- ▶ 같은 해 음력 4월 하순에 최양옥은 '상경하라'는 신덕영의 편지를 받고 음력 5월 3일 상경하여 신덕영의 집에 동거.
- ▶ 같은 해 6월 남상정은 중국 동삼성(東三省) 유하현(柳河縣)에 본부를 둔 조선독립단(대한독립단인 듯함)장 진규환(陳奎煥)의 지령을 받은 최익채(崔益采)의 권유를 받아 단에 가입, 활동 중 피체, 옥고.
- ▶ 같은 해 7월경 최양옥은 신덕영 집에서 노형규, 노석중 등과 함께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조직하는데 참여.
- ▶ 같은 해 음력 8월 신덕영은 자신의 첩인 정수현으로 하여금 모의권총 2정을 입수하여 최양옥으로 하여금 광주에 있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요구.
- ▶ 같은 해 음력 9월 21일에는 최양옥이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노석정과 함께 신대선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내도록 요구.
- ▶ 같은 해 음력 9월 22일 경에도 최양옥은 노석정과 함께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곡성군 겸면(兼面) 칠봉리(七峯里) 심상홍(沈相洪) 집에 가서 동인을 마을 앞의 작은 산으로 나오게 한 후 "우리는 광복단원인데 군자금 1,500원을 내라"고 요구.
- ▶ 같은 해 9월 26일 최양옥은 단독으로 전남 광주에 내려가 이춘수(李春秀)의 집에 투숙한 후 노석중(盧錫中)과 전치영(全稚英)을 소집하고 이들에게 신덕영 등의 남하계획을 통고하고 이들과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한 사전준비를 함.
- ▶ 같은 해 9월 28일 최양옥은 신덕영의 남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노석중과 전치영으로부터 10원씩을 받아 서울의 신덕영에게 송금.
- ▶ 같은 해 10월 1일 최양옥은 광주 송정리에 도착한 신덕영, 박일봉의 지휘를 받아 광주 금계리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
- ▶ 같은 해 10월 27일 신덕영 · 최양옥이 독립운동자금 모집반 구성.
- ▶ 같은 해 11월 2일에 최양옥은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독립자금 모금.
- ▶ 같은 해 11월 3일과 5일 최양옥 곡성군 삼기면(三岐面) 월경리(月境里)에서 독립자금 모금.
- ▶ 같은 해 11월 4일 최양옥은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유곡리(維谷里)에서 독립자금 모금.

- ▶ 같은 해 11월 5일 자동차로 전남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피체.

### 1921~1928년

- ▶ 1921년 5월 31일 최양옥은 광주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언도 받음.
- ▶ 같은 해 12월 13일 최양옥은 대구복심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
- ▶ 1926년 11월 15일 최양옥은 7년형을 받았지만 대정 13년(1924)의 은사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출감.
- ▶ 1928년 음력 4월 최양옥은 상경하여 신덕영의 처 오씨를 만났고 오씨와 함께 중국 하북성의 석가장에 있는 신덕영을 만나기 위해 북경으로 감.
- ▶ 같은 해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 태원에서 신덕영, 안창남 등과 함께 ‘함께 소리내어 알린 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
- ▶ 같은 해 음력 9월 최양옥은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정련(金正連, 1894년생)을 석가장(石家莊)에서 만나 공명단에 가입.
- ▶ 같은 해 음력 9월 하순에 최양옥은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만났을 때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움.
- ▶ 같은 해 음력 10월 산서성 태원에 있던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은 후 1928년 음력 12월 15일 신덕영과 작별하고 김정련과 함께 입국하기 위해 석가장(石家莊)에 감.

### 1929년

- ▶ 1929년 2월 18일 최양옥은 다렌[大連, 중국 동베이(東北)지방 라오닝성(遼寧省) 라오둥반도(遼東半島) 끝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였다가 갖고 있던 돈이 문제가 되었던 지 수상경찰서(水上警察署)에 피체, 선생은 텐진[天津]의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월 25일 석방.
- ▶ 같은 해 3월 6일(음력 1월 25일) 최양옥은 북경으로 가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세 자루를 수취한 후 북경 출발.
- ▶ 같은 해 3월 7일 밤 8시 경 안동역(단동역)에서 김정련 만남.
- ▶ 같은 해 4월 4일 김정련과 함께 평북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봉덕리(鳳德里) 43번지에 위치한 김정련의 17촌 조카인 김인옥(金仁玉)의 집에 찾아가 강도로 위장하고 160원을 마련.
- ▶ 같은 해 4월 7일 해동여관에 모여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40원을 여비로 삼아서 울에 가기로 결정.

- ▶ 같은 해 4월 8일 오후 2시 경 최양옥은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 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이동.
- ▶ 같은 해 4월 9일 최양옥은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7시 5분에 서울에 도착
- ▶ 같은 해 4월 8일 김정련은 오후 6시 조금 지나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1시 10분 경 황해도 사리원역에 도착하여 숭실대학 동창생인 이남식(李南植)을 방문한 후 다시 사리원을 떠나 10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역에 도착.
- ▶ 같은 해 4월 10일 이선구는 오후 10시 17분 신의주를 출발하여 11일 오전 9시 50분 경성에 도착.
- ▶ 같은 해 4월 16일 최양옥은 김정련, 이선구와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사가 지체되자 김정련과 함께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
- ▶ 같은 해 4월 17일 오전 11시경 최양옥 일행은 서울역 황금정(黃金町) 2정목(二丁目)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63번지 집화상에서 삼눈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楊州郡) 구리면(九里面) 교문리(橋門里)에서 내려 양주군 미금면(溍金面) 평내리(坪內里)의 안칠성(安七星)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도착하여 1박.
- ▶ 같은 해 4월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선생 일행은 양주군 미금면(남양주시 호평동)과 화도면(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경계인 마석(麻石, 마치)고개에 도착.
- ▶ 같은 해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의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 경 고갯마루 아래의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계획에 따라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정차. 우편차량이 정차하자 선생과 이선구는 즉시 차에 뛰어올라 최양옥은 운전사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눈줄로 그를 묶어 조수석에 앉혔고 이선구는 운전을 하여 금곡(金谷, 현 남양주시 금곡동)방면으로 이동.
- ▶ 같은 해 4월 19일 최양옥 일행은 새벽 양주군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의 임희중(任熙宗)의 집에 도착한 후 인근의 암굴에 은거하면서 그로부터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음. 이들은 저녁에 한강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려고 오후 8시경 임희중의 집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받게 됨.
- ▶ 같은 해 4월 20일 김정련은 오전 0시 20분 그곳 인근의 독립가옥에서 피체, 최양옥은 이선구와 20일 오전 6시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덕소리(德소리) 동쪽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 현 남양주시 수석동)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은신. 이후 최양옥과 이선구는 20일 오전 9시 30분 경 망우리 고개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차

동차(內鮮自動車) 경(京) 제408호를 정지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입경(入京).

- ▶ 같은 해 4월 20일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서울의 황금정(黃金町) 5정목(丁目)에 도착한 최양옥과 이선구는 본정통(本町通) 4정목 경성암(京城庵)에서 닭고기계란밥과 맥주를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무장경관대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인지경처럼 오전 10시 경 감옥에서 알게 된 정국민(鄭國敏)이 있던 적선동 어구에서 내려 택시 요금으로 1원을 주고 두 사람은 작별.
- ▶ 같은 해 4월 20일 이선구는 11시경 이명구의 집에서 잠복하였던 형사에게 피체.
- ▶ 같은 해 4월 21일 최양옥은 오전 5시 30분 최상하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종로서원에게 피체.
- ▶ 같은 해 4월 21일 피체된 일행은 그날에 종로경찰서에서 1차 신문을 받음.
- ▶ 같은 해 4월 30일에 최양옥의 동생인 최양길(崔養吉)과 원주에서 걸어올라 온 모친 등 가족 5명이 경기도경찰부로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했으나 불허.
- ▶ 같은 해 5월 2일 최양옥 일행은 경기도경찰부로부터 2차 신문을 받음.
- ▶ 같은 해 5월 10일경 최양옥 일행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짐.
- ▶ 같은 해 5월 18일 최양옥 일행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3차 신문을 받음.
- ▶ 같은 해 7월 2일 최양옥의 여동생 최양희는 동대문 밖 창신동 693번지에서 경기도경찰 부원들에 의해 피체, 조사 받음.
- ▶ 같은 해 12월 6일 최양옥 일행에 대한 첫 공판이 개최.
- ▶ 같은 해 12월 13일 최양옥은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고.

### 1932~1945년

- ▶ 1932년 9월 박봉수(朴鳳洙)는 국민부(國民府) 산하 조선혁명군의 일원으로 평남 덕천에서 폭탄사건을 일으켰던 변낙규(邊洛奎), 김병수(金炳洙) 등이 국내에 잠입하자 이들을 도와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활동.
- ▶ 1932년 12월 27일 박봉수는 동지인 장인준(張仁濬) · 김일봉(金一鳳)과 함께 영변(寧邊)의 도박장(賭博場)을 습격하여 군자금모집을 시도.
- ▶ 1933년 3월 29일 박봉수는 변낙규와 함께 삭주군(朔州郡) 거주 이봉주(李鳳柱)로부터 군자금 42원을 모집하고 위조지폐(僞造紙幣)의 발행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게 피체.
- ▶ 1937년 3월에 백흥기(白興基)는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인
- ▶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태(南宮培), 이찬우(李燦雨), 조구석(曹圭奭), 문세현(文世

鉉)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 서적부장 역임.

- ▶ 1938년 3월 백흥기는 졸업 후 그는 문세현, 이찬우 등과 만주(滿洲)로 건너가 재만독립 운동가 이동산(李東山), 오종태(吳鍾泰), 석일경(石一慶) 등과 합세하여 길림(吉林)에 상록회를 조직하는 등 문세현과 함께 간도(間島)지방에서 활동.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그도 이에 연루되어 만주에서 피체.
- ▶ 1939년 12월 13일에 만기출옥. 최양옥은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時日)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도 다 쓸 수 없다”고 그 심경을 토로.
- ▶ 1941년 3월에 원후정(元厚貞)은 심재진(沈在震, 심재영), 고제훈(高濟勳), 김영근(金榮根), 박영한(朴泳漢), 권혁민(權赫民) 등과 함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춘천중학교 교정에서 일인 학생들과 무력 충돌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싸움의 규모가 컸으므로 일경이 개입하게 되었고 이때 한국학생들을 탄압했던 것은 물론이고 춘천중학생의 독서활동도 발각. 그리하여 그도 일경에 피체.
- ▶ 1943년 10월 황성출신 탁영익은 일제에게 강제로 징집당하여 중국 남경지구(南京地區) 주둔 일본군부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중국 중경(重慶)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光復軍)이 있다는 정보를 일본군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여 1944년 5월 일본군을 탈출한 후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여 활동.
- ▶ 1944년 11월 황성출신 김준경(金駿卿, 1924~1973)은 중국 하북성 포기현(蒲瀛縣)에서 일본군 제3702부대를 탈출하여 중국군 왕륙기(王陸基) 장군 휘하의 신편 제15사 유격대에 가담.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광복 맞이.
- ▶ 1945년 4월 탁영익은 중국 중경에 도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호부대인 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警衛隊)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동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함.

## 부록 8 | 춘천 중학생의 독서운동

증언 : 심재영(1986.6.4. 횡성읍 조곡리 댁),  
원후정(1986.6.5. 우천면 정금리 댁)  
(조사자 : 횡성문화원장 박순업)

1938년 일제의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춘천고보도 춘천중학교로 호칭하게 되었는데 이해 9월에 상록회 운동이 탄로 나서 많은 학생이 피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춘천중학교는 초상집 같이 슬픔과 혹은 공포 감마저 뒤덮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부터 조선어 시간의 철폐로 인한 민족적 분노, 일본인 교사와 일본인 학생의 오만한 거동과 한국인 학생에 대한 학대가 겹쳐 나라 없는 젊은 이의 마음은 더욱 상처로 얼룩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상록회로 말미암은 상처는 상록회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당시의 민족적 처지이고 학생들의 패기였다. 일제의 탄압이 가중된다고 해서 소리 없이 울며 사라져 갈 무기력한 백성은 아니었다.

때마침 독립운동계의 거성 여운형이 춘천에 자주 내왕하고 있어 원래 남궁역이나 상록회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새로운 자극을 또 받게 되었다. 여운형은 당시 요선동 관동병원을 경영하던 이림수와 친교하고 있었고 이림수의 아들 이란은 당시 춘천중학교의 학생이었다. 그리하여 여운형이 관동병원에 오면 이란을 비롯한 학생들이 몰려갔고, 그러면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의 이야기나 인도의 '간디'에 관하여 혹은 그 때의 세계정세에 관하여 이야기해주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이와 같은 영향과 민족적 각성에 의하여 1939년 3월 당시 투옥된 동지 12명이 이란의 자택에서 회합, 독서회를 조직하여 우리글 책



읽기를 합의하고 북성당 서점에서 이광수 저 『조선의 현재와 미래』, 『흙』 등을 구독하여 윤 번째로 읽고 독후감 발표 및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다. 1939년 김상도씨매에 하숙하였던 심재영, 원후정, 윤익섭, 박순호(당시 2학년) 4명은 매주 토요일 토요모임을 갖고 독립투사의 활약상을 토의하고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다짐했다.

이러한 한국 학생의 동향에 대하여 일본인 학생은 계속 밀정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1940년 4월 일본인 동급생 '소목회'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밀정 행위를 규탄, 의도적으로 매일 1회씩 구타, 병들어 죽게 하였다. 일인 학생의 오만한 태도를 참고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인 학생과 충돌이 있을 적마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학생만 구박하였던 것이 그 시절이다. 당시 3학년이 된 심재영, 원후정, 박영한, 고제훈, 권혁민은 일본인 교련교관 '대정'소위의 사택을 급습하고자 모의하다가 발각되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독서운동도 발각되고 말았는데 1941년 3월 23일 이들의 하숙방을 수색하여 모두 체포하고 모진 고문으로 어린 학생들을 구박하다 그해 11월 10일 12명을 경성지방 법원에 송치하였다. 미결수로 1년 동안 갇은 고생 끝에 1942년 5월 실형선고를 받고 서대문형무소, 인천형무소, 김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 참고문헌 |

- 『강원일보』, 『동아일보』.
- 강대덕·박정수·최창희 『횡성 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2003.
- 강원도, 『강원도사』8권(일제강점기), 2010.
- 김동정, 『횡성인 최양옥 독립을 위한 몸부림』, 횡성문화원, 2016.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2.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6.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5.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3, 196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79~1990.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 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201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0.
- 오영교·왕현중, 『원주독립운동사』, 해안, 2005.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 조동걸, 『횡성(橫城)과 삼일(三一)운동』, 삼일운동기념비건립횡성군협찬회, 1972.
- 횡성군, 『횡성군지(橫城郡誌)』, 2001.
- 횡성문화원,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1996.
- 횡성문화원, 『횡성문화』통권제25호, 2010.



## 김 동 정

### 〈약력〉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 교양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강릉원주대·강원도립대·중앙대 등 외래교수  
 강원도인재개발원·강원여성대학·한국분권아카데미 강사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집행위원  
 강원경찰전사 감수위원  
 강릉경찰70년사 집필 및 감수위원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실무위원  
 강릉소방50년사 감수위원  
 강원도청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강원도의회60년사 자문위원  
 강릉학도의용군사 집행위원(현)  
 원주문화원 이사(현)  
 의암학회 이사(현)

### 〈저서〉

『역사와 문화』(공저)  
 『정선군지』(공저)  
 『국역 봉서유고』(공역)  
 『역주 자치동감』(32책, 공역)  
 『강원의 역사와 문화』(전차책, 공저)  
 『국역 의암집』(공역)  
 『국역 습재선생문집』(공역)  
 『항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드업 작전의 황성전투』  
 『황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강릉경찰70년사』(공저)  
 『양구군지』(공저)  
 『인제군지』(공저)  
 『강원도사』(1~21, 공저)  
 『황성인 최양욱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황성지역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황성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  
 그 외 논문 다수.

향토사료 제31집

## 황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

인 쇄 | 2017년 12월 28일

발 행 | 2017년 12월 28일

발행인 | 박 순 업

편저자 | 김 동 정

기 획 | 민 준 식

발행처 | 황성문화원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황성로 371 (033)343-2271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033)260-9400

ISBN 978-89-6602-111-6

〈비매품〉



